



완벽한 이해와 고득점 전략을 위한

정답과 해설

1

다채로운 표현, 함께 만드는 영상

1 개성적인 표현

소단원 핵심 미리 보기 본문 8~11쪽

핵심 확인 문제 | 1 개성 2 (1)역 (2)반 3 ③
 4 ㉠ 대낮 ㉡ 어둠 5 ④ 6 별 7 ① 8 반어
 9 ③ 10 ② 11 ④ 12 의무, 특권 13 도둑놈

- 1 자신의 삶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표현하여 작품을 완성하는 것을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의 형상화라고 한다.
- 2 (1) 길이 끝났는데 길이 있다는 것은 모순된 표현이다. 모순된 표현을 통해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이 존재함을 나타내는 역설적 표현이 쓰였다.
 (2) '바보'는 '어리석고 멍청하거나 못난 사람을 욕하거나 비난하여 이르는 말'을 뜻한다. 하지만 씹던 껌을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 '너'의 모습은 바르고 순수한 모습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바보'는 반어적 표현이다.
- 3 풍자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과장하거나 왜곡하거나 비꼬아서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표현 방식이다.
- 4 '대낮'은 대낮처럼 밝고 만족스러운 상황을, '어둠'은 어둠에 처한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상징한다.
- 5 '대낮'이 '어둠'이라는 모순된 표현 안에 진리를 담고 있는 역설적 표현이다.
- 6 이 시는 어둠 속에서만 빛이 나는 별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만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주제를 전하고 있다.
- 7 먼 훗날 입을 다시 만나는 미래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 화자는 입과 이별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 8 먼 훗날에 가서야 '잇었노라'라고 말하겠다고 반복하면

2 정답과 해설

서 먼 훗날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못하는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9 시행은 '시의 행'을 말하는 것으로, 이 시에서는 시행 자체를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지 않다.
- 10 이 시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먼 훗날에 '당신'을 만나게 될 상황을 가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1 이 글에 등장하는 양반은 관곡을 갚지 못해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한다. 따라서 양반도 잘못하면 처벌받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양반과 부자가 신분을 매매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양반은 가난해도 존경을 받지만 평민은 부유해도 늘 천대를 받는다고 부자가 불만을 토로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강원도 정선에 사는 양반이 가난하여 늘 관곡을 꾸어다 먹었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부자의 신분은 평민이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했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 첫 번째 매매 증서는 양반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두 번째 매매 증서는 양반이 지닌 특권을 서술하고 있다.

13 작품의 결말에서 부자는 양반을 '도둑놈'에 빗대어 표현하면서 백성을 착취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부도덕한 양반의 모습을 비난하고 있다.

소단원 핵심 확인하기 본문 12~13쪽

핵심 체크 | 1 × 2 ○ 3 × 4 ○
 핵심 내용 확인 문제 | 1 ④ 2 ④ 3 ③ 4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만이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다.

1 '별들', '어둠', '대낮', '지금', '사람들' 등의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고,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과 같은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만들어 내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시에 '나', '우리' 등의 표현이 제시되는 경우에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다고 하는데, 이 시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
- ② 이 시에 계절적 배경은 드러나 있지 않다.
- ③ 현대 사회의 모습을 다룬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⑤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금 어둠인 사람들'이라는

상징적 의미의 시구로 표현하고 있을 뿐, 이들이 겪고 있는 절망감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은 없다.

2 이 시는 '대낮(밝음)'과 '어둠'처럼 대비되는 이미지를 대조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ㄴ), '별', '어둠', '대낮' 등의 소재가 지닌 상징적 의미를 사용하여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ㄹ).

오답 해설

- ㄱ. 설의적 표현은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답을 요구하지 않는 표현으로, 이 시에는 의문형의 문장이 쓰이지 않았다.
- ㄴ. 반어적 표현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반대로 나타내는 표현 방법으로, 이 시에는 반어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3 의인화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으로, ㉠에는 의인화한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다.'로 끝맺는 평서형 문장 표현의 단정적 어조가 사용되었다.
- ② 밝고 환한 '대낮'과 '어둠'이라는 모순된 표현을 결합하여 현실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은 희망과 꿈을 보지 못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역설적 표현이다.
- ④, ⑤ 역설적 표현은 상식에 맞지 않고 서로 어울리지 않는 표현으로 독자의 주의를 끌고 참신한 느낌을 주는 효과가 있다.

4 [서술형] '지금 어둠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별들'은 꿈과 희망을 뜻한다. 따라서 ㉠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만이 꿈과 희망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뜻을 함축한다.

교과서 활동 점검하기 본문 14~17쪽

| 시험에 꼭 나오는 활동 확인 문제 | 1 ④ 2 ② 3 ③
 4 ⑤ 5 ① 6 구린내가 향기롭다.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가 너그럽다 7 ① 8 ② 9 ② 10 ③
 11 ㄱ

1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라는 구절을 통해 별이 어둠 속에서만 빛이 난다는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

2 '대낮'은 밝고 만족스러운 상황을, 그와 반대로 '어둠'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⑤ '별', '별들'은 꿈과 희망을 의미하고, '사람들'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 시어가 아니다.

3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금 대낮인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 주는 것으로,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꿈을 꾸거나 희망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는

표현이다.

4 '환히 밝은 낮'이라는 뜻을 지닌 '대낮'과 '빛이 없어 밝지 않다'라는 뜻을 지닌 '어둠'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표현으로,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둠'은 모순된 표현 안에 진리를 담아내는 역설의 표현 방법이 쓰였다.

5 역설에는 겉보기에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은 표현이 쓰이기 때문에 역설을 사용하면 독자의 주의를 끌고 의미를 인상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ㄴ. 역설적 표현은 겉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고 모순된 표현이기 때문에 독자가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 쉽지 않다.
- ㄹ. 역설적 표현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모순된 표현이 결합하여 독자에게 신선한 느낌을 준다.

6 '구린내'와 '향기롭다', '가시'와 '너그럽다'는 겉보기에 서로 어울리지 않는 모순된 표현이다. 하지만 구린내와 날카로운 가시는 열매를 지켜 내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자연의 보호가 사랑의 표현임을 드러내고 있다.

7 이 시는 '먼 훗날 ∨ 당신이 ∨ 찾으시면 / 그때에 ∨ 내 말이 ∨ 잊었노라', <보기>는 '아리랑 ∨ 아리랑 ∨ 아리랑요 / 아리랑 ∨ 고개로 ∨ 넘어간다.'와 같이 각 행이 3음보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3음보를 반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② 이 시와 <보기>는 모두 처음과 끝에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지 않다.
- ③ 이 시와 <보기>는 대체로 3글자, 3글자, 4글자가 반복되는 3·3·4조의 음수율을 보이고 있다.
- ④ 이 시와 <보기>에는 모두 소리를 흉내 내는 말인 의성어와 모양을 흉내 내는 말인 의태어가 쓰이지 않았다.
- ⑤ 이 시는 '~면 잊었노라'의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지만, <보기>는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지 않다.

개념 플러스

음보율과 음수율

- 음보율: 음보를 일정하게 반복하여 만들어 내는 운율. 음보란 시를 읽을 때 한 호흡으로 끊어 읽는 말의 덩어리를 뜻함.
- 음수율: 글자 수를 일정하게 반복하여 만들어 내는 운율. 3·4조, 4·4조, 7·5조 등이 있음.
- 예) 이 몸이(3) ∨ 죽고 죽어(4) ∨ 일백 번(3) ∨ 고쳐 죽어(4) (4음보)
 백골이(3) ∨ 진토 되어(4) ∨ 낮이라도(4) ∨ 있고 없고(4) (4음보)
 임 향한(3) ∨ 일편단심이야(6) ∨ 가실 줄이(4) ∨ 있으랴(3) (4음보)
 - 정몽주
 → 음보율: 4음보가 반복되어 4음보율이 나타남.
 → 음수율: 3글자, 4글자가 반복되어 3·4조의 음수율이 나타남.

8 이 시의 화자는 '잊었노라'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떠나간 사람을 잊지 못하는 간절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 ㄱ. 먼 훗날 언젠가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될 상황을 가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당신'을 잊을 수 없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상황 설정일 뿐 '당신'과의 재회를 확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 ㄴ. '당신'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정서를 표현하고 있을 뿐, '당신'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 ㄷ. 화자는 '당신'과 헤어진 상황이다.

9 이 시에서 화자는 반어법을 사용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못하는 간절한 마음을 '잊었노라'라고 정반대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은 과장, ③은 비유, ④는 상징, ⑤는 역설에 대한 설명으로, 이 시에는 모두 사용되지 않은 표현법이다.

10 4연에서 화자는 '어제도 오늘도 아니 잊고 /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라고 말한다. 이는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당신을 잊지 못하고 있는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잊었노라'는 당신을 잊지 못하는 마음의 반어적 표현임을 알 수 있다.

11 반어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실제와 정반대로 표현함으로써 그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오답 해설

- ㄴ. 반어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 방법이지 운율과는 상관이 없다.
- ㄷ. 반어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주제를 직접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독자는 그 이면의 의미를 파악해야 주제를 이해할 수 있다.

소단원 핵심 확인하기 본문 18~19쪽

| 핵심 체크 | 1 ○ 2 × 3 × 4 ○
 | 핵심 내용 확인 문제 | 1 ② 2 ② 3 ③ 4 ②
 5 양반이 부자에게 자신의 양반 신분을 팔아서 더 이상 양반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 이 글은 조선 후기 강원도 정선 고을에 사는 한 양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③ 양반은 관곡을 값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의 내적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옥에 갇힐 위기에 처해 대책 없이 울고 있는 양반과 그런 양반을 비꼬는 아내 사이의 외적 갈등이 더 잘 드러나 있다.
- ④ 이 글은 고전 소설로 작가가 상상력을 발휘하여 꾸며 낸 허구의 이야기이다. 인물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고 있어 실존 인물

과 연결 지을 근거를 찾을 수 없다.

⑤ 서술자는 이야기 밖에 있으며 등장인물의 속마음을 모두 알고 있으므로 이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시점을 취하고 있다.

2 양반은 성품이 어질고 글 읽기를 매우 좋아하여 고을에 부임해 오는 군수들이 양반을 찾아가 경의를 표했다고 하였다(ㄱ). 아내는 평생 글만 읽더니 관곡도 못 값는 처지가 되었다고 양반을 비판하며 양반의 도리를 지키는 것보다 현실 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ㄷ).

오답 해설

- ㄴ. 부자는 양반을 돕거나 양반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관곡을 값아 준 것이 아니라, 양반의 신분을 사기 위해 관곡을 값아 준 것이다.
- ㄷ. 양반은 관곡을 값지 않은 죄를 지었으며, 빌려 간 관곡을 값지 못한 것을 처벌하려는 관찰사의 명령은 정당한 것이다.

3 (나)에서 부자는 돈으로 양반 신분을 사서 신분 상승에 대한 개인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한다. 그러나 나라에서 신분 상승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양반과 부자가 신분을 매매하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양반은 가난해도 존경을 받지만 평민은 부유해도 늘 천대를 받는다는 부자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⑤ 양반은 몹시 가난하여 여러 해 관곡을 꾸어다 먹어야 했고 그것을 값지 못해 옥에 갇힐 처지라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가)에서 작가는 '양반이라는 게 한 푼어치도 못' 된다는 아내의 비꼬는 말을 통해 글 읽기만 좋아하고 경제적으로는 무능력한 양반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5 [서술형] 양반은 부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팔았기 때문에 평민이 입는 복장을 하고 평민이 쓰는 호칭을 쓰며 평민으로서의 행동을 취하고 있다.

소단원 핵심 확인하기 본문 20~21쪽

| 핵심 체크 | 1 × 2 ○ 3 ○ 4 ×
 | 핵심 내용 확인 문제 | 1 ④ 2 ① 3 ①, ② 4 경제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아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

1 군수가 관아에서 매매 증서를 만들 때 부자를 높은 자리에 앉힌 것은 부자가 양반 신분을 사서 양반이 되었기 때문에 양반 대접을 해 주기 위한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마)의 '밥을 먹을 때는 맨상투 바람으로 먹으면 안 된다. ~ 생파를 먹어 냄새를 풍겨서도 안 된다.'에서 양반은 먹는 것에도 순서가 있고 지켜야 할 예절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마)에서 양반이 읽고 있는 책들이 조선의 현실과 상관없는 중

국의 옛 서적이라는 점에서 양반은 실생활과는 관련이 없는 관념적이고 비생산적인 학문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마)에서 양반은 추위와 배고픔을 드러내면 안 되고 늘 외모를 단정히 해야 하며 아무리 추위도 화롯불에 손을 댄 안 된다고 하는 등 실리보다는 체면이나 걸치례를 중시하는 허례허식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라)에서 군수는 양반 신분을 사고팔면서 증서를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이 생길 수도 있다며 부자가 양반 신분을 산 것을 합법적으로 허락하기 위해 증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2 (마)의 마지막 문장에서 ‘양반이라 하면 마땅히 이를 지켜야 하는데’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첫 번째 매매 증서에서는 양반이 지켜야 할 의무와 규범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이 글에서는 양반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우스꽝스럽게 과장하여 서술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는 풍자의 방법이 쓰이고 있다(①). 또한 양반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천한 일’의 예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열거의 방법을 사용하여 양반이 지켜야 할 의무와 규범을 강조하고 있다(②).

오답 해설

③은 반복법, ④는 반어법, ⑤는 역설법을 설명한 것으로, (마)에는 쓰이지 않는 표현법에 해당한다.

4 [서술형] 양반은 돈이나 쌀값과 같은 경제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을 통해 경제적인 문제에 무관심하고 무능력한 양반의 모습을 비꼬고 있다.

6 소단원 핵심 확인하기

본문 22~23쪽

| 핵심 체크 | 1 × 2 × 3 ○ 4 ○

| 핵심 내용 확인 문제 | 1 ① 2 ③ 3 ② 4 작가가 풍자하는 대상은 양반으로, 부당한 특권을 누리며 백성을 착취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양반의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1 (바)에서 부자는 첫 번째 매매 증서의 내용에 실망하여 자신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내용을 고쳐 줄 것을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다.

2 군수는 부자의 요청에 따라 매매 증서를 다시 작성하는데, 두 번째 매매 증서의 내용을 다 듣기도 전에 부자가 양반 되기를 포기한다. 이를 통해 군수는 매매 증서를 이용하여 부자가 신분 상승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군수는 매매 증서를 작성하여 부자가 양반이 되는 것을 방해한

다. 이는 신분 매매를 통해 신분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부자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태도를 보여 준다.

- ② 양반과 부자 사이에는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다.
- ④ 부자가 양반 되기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양반과 부자의 신분 매매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 ⑤ 부자는 매매 증서의 내용에 불만을 품고 양반 되기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군수가 부자의 편에서 부자에게 유리한 매매 증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①은 양반을 ‘신선’에 비유하여 특권을 누리는 양반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고, ②은 양반을 ‘도둑놈’에 비유하여 특권을 남용하여 백성을 괴롭히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양반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오답 해설

- ㄱ. ①과 ②은 모두 양반을 빗대어 표현한 말이다.
- ㄷ. ①은 특권을 남용하여 무위도식하는 양반의 모습을, ②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백성을 수탈하는 양반의 부도덕한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모두 양반에 대한 작가의 부정적 인식을 보여 준다.
- ㄹ. ②은 두 번째 매매 증서의 내용에 대한 부자의 생각을 보여주는 표현이 맞지만, ①은 첫 번째 매매 증서의 내용에 대한 부자의 생각이 아니라 부자가 평소 기대해 왔던 양반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4 [서술형] 양반이 지닌 특권을 서술하고 있는 (사)에는 특권을 남용하여 백성들을 괴롭히고 수탈하며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양반의 횡포가 드러나 있으며, 이를 통해 작가는 양반의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인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교과서 활동 점검하기

본문 24~27쪽

| 시험에 꼭 나오는 활동 확인 문제 | 1 ② 2 ⑤ 3 ②
4 도둑놈 5 ③ 6 ㄱ, ㄷ 7 ② 8 ① 9 ⑤
10 ②

1 군수는 신분을 팔고 평민 행세를 하는 양반을 보고 깜짝 놀라지만 그런 양반의 결정을 비난하지는 않는다.

2 작품에 등장하는 두 개의 양반 매매 증서에는 조선 후기 양반의 모습과 당대의 현실이 담겨 있다. 즉 양반이 추구하는 이상 사회가 아니라, 당시 변화하는 현실 세계 속에서 몰락해 가는 양반의 모습,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인 양반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3 ㉠~㉣에는 모두 양반의 부정적인 모습을 과장하거나 비꼴으로써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풍자의 표현 방법이 쓰였다.

4 부자는 두 번째 매매 증서의 내용을 들던 중, 자신을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이라며 양반 되기를 포기한다. '도둑놈'은 무위도식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백성을 괴롭히는 양반의 부도덕한 모습을 빗대어 표현한 말로, 양반에 대한 작가의 비판 의식이 담겨 있다.

5 이 글을 통해 작가는 조선 후기 몰락한 양반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집중적으로 보여 주며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다. 권세를 누리고 있는 양반들 사이의 과도한 권력 다툼을 다룬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과 ②는 첫 번째 매매 증서에서, ④와 ⑤는 두 번째 매매 증서에서 비판하고 있는 양반의 모습이다.

6 풍자는 부당한 현실이나 힘 있는 존재를 대상으로 이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고 비꼬아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대상의 잘못된 점을 효과적으로 비판한다.

오답 해설

나. 풍자는 대상의 부정적인 측면을 독자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공격하기 때문에 대상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7 반어는 표현하려는 내용을 정반대로 나타냄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인상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8 ㉠에 쓰인 '아우성'은 '떠들썩하게 기세를 올려 지르는 소리'를 뜻한다. 따라서 '소리 없는 아우성'은 이치에 맞지 않는 모순된 표현이다. 이 표현은 바람에 날아가고 싶지만 깃대에 묶여 펄럭이기만 하는 깃발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이상 세계를 동경하지만 도달하지 못하는 운명적 한계를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답 해설

- ②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은 깃발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은유법이 쓰였다.
- ③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에서 '순정'은 깃발을 비유한 것으로 은유법이 쓰였고,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을 물결에 빗대어 표현한 부분에는 직유법이 쓰였다.
- ④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에서 '애수'는 깃발을 비유한 것으로 은유법이 쓰였고, 깃발을 백로에 빗대어 표현한 부분에는 직유법, 활유법이 쓰였다.
- ⑤ '아아 누구던가.'는 감탄사를 이용하여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 영탄법이 쓰였다.

9 풍자는 부정적인 대상이나 상황을 비판하기에 적절한 방법이다. 사회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은 비판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10 풍자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고 비꼬아서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독자의 공감을 얻고(ㄱ, ㄷ), 개인 또는 사회의 부정적 현상, 모순, 어리석음 등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표현 방법이다(ㄴ).

오답 해설

- ㄴ. 표현하려는 내용을 반대로 나타내어 실제 전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는 것은 풍자가 아니라 반어의 표현 방법에 해당한다.
- ㄷ. 풍자는 대상의 부정적인 측면을 폭로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소단원 예상 문제

본문 28~33쪽

1 ③ 2 ② 3 ② 4 ④ 5 벌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존재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의미한다. 6 ③ 7 ④ 8 ④ 9 ④ 10 • 시구: '무척 그리다가', '어제도 오늘도 아니 잊고' • 정서: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다. 11 ① 12 ② 13 ⑤ 14 ④ 15 부자가 양반 되기를 포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이다.(부자가 양반이 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이다.) 16 ⑤ 17 ② 18 ① 19 ① 20 ③ 21 (다),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고 비꼬아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개인 또는 사회의 부정적 현상, 모순, 어리석음 등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풍자가 쓰였다.

1 이 시는 '벌', '대낮', '어둠'과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소재를 사용하여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이 시의 화자는 걸로 드러나 있지 않으며, 화자가 과거를 돌아보는 내용도 나타나 있지 않다.
- ② 이 시에는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으며, 화자가 걸로 드러나지도 않는다.
- ④ 이 시는 단정적인 어조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만이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말투는 쓰이지 않았다.
- ⑤ 이 시는 자연과 인간이 아니라 밝음과 어둠의 이미지를 대조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2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 별들이 보인다'라는 표현은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만이 꿈과 희망을 볼 수 있다는 것으로, 화자는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위로를 건네고 있다.

3 이 시와 <보기>에 쓰인 심상은 시각적 심상으로, 둘 다 다양한 종류의 감각적 심상이 쓰이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이 시와 <보기>는 모두 '~다'로 끝나는 평서형 문장 표현을 활용하여 단정적 어조로 말하고 있다.

- ③ 이 시는 '별들', '어둠', '대낮', '사람들' 등의 시어를, <보기>는 '길', '사람', '사랑', '끝나는', '있다' 등의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④ 이 시는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 별들을 낳을 수 있다'라는 표현, <보기>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 길이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이 존재함을 노래하고 있다.
- ⑤ 이 시의 마지막 행인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둠다'와 <보기>의 첫 행인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 길이 있다'는 모두 겹보기에는 모순된 표현이지만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는 역설적 표현에 해당한다.

개념 플러스

정호승, 「봄 길」

이 시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 길이 있다'라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슬프고 힘든 현실에서도 희망과 사랑으로 삶을 개척하는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 길이 되는 사람',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 등의 표현을 통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 가는 모습을 감동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긍정적, 낙관적
- 제재: 봄 길을 걸어가는 사람
- 주제: 희망과 사랑으로 삶을 개척하는 태도

4 ㉠의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이 별들이 보이고 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꿈과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다.

오답 해설

- ①, ② ㉠의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걱정거리가 없고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꿈을 꾸거나 희망을 품을 필요가 없어서 꿈과 희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살고 있다거나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③, ⑤ ㉠의 '지금 어둠인 사람들'은 걱정거리가 많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로,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그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꿈을 꾸고 희망을 품는 존재이므로 밝은 미래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5 [서술형] ㉠에 쓰인 '별'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존재로, 어둡고 힘들어진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상징한다.

6 화자는 '당신'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잊었노라'라고 반대로 표현하고 있다. 즉 속마음과 달리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말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질문의 형식을 갖춘 표현은 쓰이지 않았다.
- ② 자연 현상과는 상관없이 이별의 안타까움과 이별한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임과의 이별을 안타까워하며 임을 잊지 못하는 애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별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거나 이별을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⑤ 대상을 감각적,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심상은 쓰이지 않았다.

7 이 시는 먼 훗날 사랑하는 '당신'이 화자를 찾는 상황을 가정하고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당신'과 이별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화자는 먼 훗날의 상황을 가정하여 현재 '당신'과 헤어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당신'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8 이 시의 1연과 4연의 내용은 같지 않으므로 처음과 끝에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수미상관은 쓰이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 그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와 같이 각 행에서 3음보가 반복되고 있다.
- ② 각 행에서 3글자, 3글자, 4글자가 반복되고 있다.
- ③ '~면 '잊었노라'라는 동일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 ⑤ '잊었노라'라는 동일한 시어가 각 연의 마지막에 반복되고 있다.

9 '잊었노라'는 임을 잊지 못하는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보기>에서 ㉠의 화자는 임과의 이별을 슬퍼하는 마음을 죽어도 울지 않겠다고 반어적으로 표현하여 이별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 ㉡의 화자는 그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사소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일을 사소하다고 반어적으로 표현하여 사랑의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과 ㉡은 모두 역설의 표현 방법이 사용되었다. ㉠에서는 사랑을 위해 이별이 있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사랑과 이별이라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여 사랑은 이별과 같은 시련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라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에서는 결별이 축복을 이룬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결별과 축복이라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별이 정신적인 성숙을 가져올 수 있기에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10 [서술형] 이 시의 화자는 2연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무척 그리워하고 있다고 하였고, 4연에서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잊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못하는 그리움의 정서를 확인할 수 있다.

11 (가)에서 양반은 집이 몹시 가난해서 관곡을 꾸어다 먹고 이를 갚지 못해 옥에 갇힐 위기에 처했다고 하였다.

12 (다)에서 신분을 판 양반이 평민이 되자 복장이나 호칭이 이전과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나)와 (다)에서 신분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신분 질서

가 무너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ㄷ).

오답 해설

- ㄴ. 부자는 신분이 낮지만 양반의 빛을 대신 값은 정도로 경제력이 있다.
- ㄹ. (가)에서 아내가 양반을 비난한 것은 양반의 경제적 무능을 풍자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지위가 높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13 부자는 양반 매매 증서에 담긴 양반의 의무와 특권을 알고 양반 되기를 포기한다. 이를 통해 작가는 양반의 허례허식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 백성을 수탈하는 비인간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③ 부자가 양반 신분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기존의 신분 질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신분 제도의 부당함을 알리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 ② 부자가 양반 되기를 포기한 것은 양반이 빛을 스스로 감지 못한 것과 관련이 없다.
- ④ 부자가 횡포를 부리는 양반을 도둑놈에 빗대어 표현한 것은 부자가 정의감이 있어서가 아니다. 부자의 눈에도 도둑놈으로 비칠 만큼 양반이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음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14 ㉠에서 작가는 '홍패'를 '돈자루'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특권을 남용하여 온갖 재물을 수탈하는 부패한 양반의 행태를 풍자하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벼슬 자체를 얻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15 [서술형] (마)를 보면 양반 신분을 갖고 싶어 했던 부자가 군수가 작성한 매매 증서의 내용 때문에 결국 양반 신분을 포기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군수는 부자가 양반이 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매매 증서를 작성했다고 볼 수 있다.

16 (가)에 쓰인 역설, (나)에 쓰인 반어, (다)에 쓰인 풍자는 모두 개성적인 표현의 방법으로, (가)~(다)는 개성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신분 매매가 이루어지는 현실, 양반의 허례허식과 무능 및 부도덕성 등을 비판하고 있는 (다)에만 해당한다.
- ② 시에 관한 설명으로 (가)와 (나)에만 해당한다.
- ③ 조선 후기 사회 모습과 시대 상황을 보여 주고 있는 (다)에만 해당한다.
- ④ (가)~(다)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17 (가)는 '별들', '어둠', '대낮', '사람들' 등의 시어를, (나)는 '당신', '잊었노라' 등의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나)의 화자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상황에 처해 있다.

③ (가)는 어렵고 힘든 처지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따뜻하고 희망적인 분위기가 느껴지지만, (나)는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과 임을 잊지 못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어 따뜻하고 희망적인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④ (가)는 '별', '어둠', '대낮' 등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 소재를 사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지만, (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시어가 쓰이지 않았다.

⑤ (나)의 화자는 현재 이별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으므로 (가)의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18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못하는 마음을 '잊었노라'라고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법, '잊었노라'를 반복하여 사용한 반복법을 통해 이 시의 주제인 '당신'에 대한 그리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19 (다)에서 부자는 첫 번째 매매 증서의 내용에 양반의 의무만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좋은 쪽으로 고쳐 달라고 한다. 이를 통해 이익을 챙기고 특권을 누리려는 의도로 양반이 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② 두 번째 매매 증서에서 양반은 네 종류의 신분 중에 '가장 귀한 것'에 속한다고 하였고, 양반이 누린 혜택이 서술되어 있다.
- ③ 첫 번째 매매 증서의 내용을 통해 조선 시대 양반들은 실리를 얻지 못하고 체면이나 겉치레를 중시하는 허례허식에 얽매어 살았음을 알 수 있다.
- ④ 첫 번째 매매 증서에는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두 번째 매매 증서에는 양반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제시되어 있다.
- ⑤ 부자는 첫 번째 매매 증서의 내용을 듣고 실망하여 자신에게 좋은 쪽으로 증서를 고쳐 달라고 요청한다.

20 ㉠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당신'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당신'을 잊지 못하는 화자의 마음이 직접적으로 표현된 부분이다.

오답 해설

- ① ㉠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만이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시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은 '대낮'과 '어둠다'라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모순된 표현을 사용하여 현실에 만족한 사람들은 꿈과 희망을 보지 못해 미래가 어둠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 ④ ㉢을 통해 작가는 평민의 재산과 노동력을 수탈하는 양반의 횡포를 비판하고 있다.
- ⑤ ㉠에서 부자는 양반을 '도둑놈'에 빗대어 표현하며 자기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이냐고 따져 물음으로써 양반이 될 생각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21 [서술형] <보기>는 사람들이 아무 곳이나 버린 음료 컵 쓰레기가 엉망으로 쌓인 상황을 '거리의 시민 예술?'이라고 비꼬아 표현하면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태를 풍자하고 있다. (다)는 양반을 비꼬고 양반의 행동을 과장하여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양반의 무능력과 허례허식, 부도덕함 등을 풍자하고 있다.

2 영상으로 표현하기

소단원 핵심 미리 보기

본문 34~35쪽

| 핵심 확인 문제 | 1 복합양식성 2 (1) ○ (2) × (3) ○
(4) × 3 자막 4 효과음 5 ㉠ → ㉡ → ㉢ → ㉣
→ ㉤ 6 ㉢ 7 편집하기

- 영상 매체 자료는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 등 여러 양식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영상의 의미를 구성하는 복합양식성을 띤다.
- (1) 영상을 구성하는 시각적 요소에는 카메라와 대상의 거리, 카메라의 각도, 자막 등이 있다.
(2) 대사는 인물이 하는 말로 청각적 요소이다.
(3) 클로즈업 샷은 카메라와 대상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샷으로, 대상의 일부를 화면에 크게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4) 공간 전체를 한눈에 보여 줄 수 있는 카메라의 각도는 하이 앵글이다.
- 자막 내용은 영상의 이미지나 소리를 보완하며 내용 이해를 돕는다.
- 효과음은 영상을 구성하는 청각적 요소로, 효과음을 사용하면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시청자의 집중을 유도할 수 있다.
- 영상을 제작할 때는 먼저 영상 제작 기획안을 작성하면서 제작 계획을 수립하고, 스토리보드를 작성한다. 이어서 스토리보드를 바탕으로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을 편집한 후, 완성한 영상을 감상하고 평가하며 시청자와 공유한다.
- 배경 음악은 청각적 요소이다.
- 촬영하기의 다음 단계인 편집하기에서는 촬영한 영상을 자르거나 연결하여 영상을 완성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때 자막, 효과음, 배경 음악 등도 추가할 수 있다.

교과서 활동 점검하기

본문 36~41쪽

| 시험에 꼭 나오는 활동 확인 문제 | 1 ⑤ 2 ⑤ 3 ④
4 ② 5 ② 6 로 앵글, 대상을 좀 더 강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다. 7 ⑤ 8 ④ 9 ⑤ 10 ⑤
11 ④ 12 ① 13 ④ 14 ⑤ 15 ①

- 어떤 배경 음악을 사용할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편집하기 단계에서 하는 일이다. 영상 제작을 위한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영상 제작을 위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일을 한다.

오답 해설

①은 영상 제작의 기획 의도, ②는 영상의 예상 시청자, ③은 영상에 들어갈 내용, ④는 영상 제작에 필요한 역할 분담을 논의하기 위한 질문으로 모두 계획하기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활동이다.

- 영상에 넣을 자막의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스토리보드를 작성할 때 하는 일이다.
- 이 영상의 주제는 학교생활 수칙을 안내하는 것이므로 수칙의 제정 과정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은 공유 매체, ②는 예상 시청자, ③은 주제, ⑤는 기획 의도의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사는 등장인물이 하는 말로, 사건을 전개하고 등장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 롱 샷은 대상을 멀리서 찍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 설명에 적절하고(ㄱ), 웨이스트 샷은 인물의 상반신을 찍기 때문에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며 인물에 대한 집중을 유도한다(ㄷ).

오답 해설

ㄴ. 풀 샷은 인물의 전신을 찍기 때문에 인물의 행동, 인물이 위치하는 공간에 대한 정보를 보여 주기에 적절하다.
ㄹ. 클로즈업 샷은 대상의 일부를 크게 보여 줌으로써 인물의 감정 표현을 나타내기 위해 효과적이다.

- 대상을 올려다보는 각도로 촬영하면 대상을 강하고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어 위압감이 느껴진다.
- S# 2에서 두 학생이 부딪치는 장면은 풀 샷에서 클로즈업 샷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카메라와 대상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오답 해설

① '비켜! 비켜!'와 '야야!'라는 자막을 통해 학생들의 상황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
② '소란스러운 소리'를 효과음으로 들려주어 분위기를 실감 나게 보여 줄 수 있다.
③ '수업 시작 종소리'를 효과음으로 들려주어 실제 수업이 시작된 것 같은 현장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④ 카메라와 대상의 거리가 먼 롱 샷으로 촬영하면 복도의 전체적인 모습을 효과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

- 경고 카드를 로 앵글로 촬영하면 위압감을 느낄 수 있어서 경고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③은 아이레벨 앵글, ②, ⑤는 하이 앵글의 효과에 해당한다.

9 촬영은 카메라로 영상을 찍는 과정이기 때문에 촬영 중에 효과음이나 배경 음악이 필요하지는 않다. 효과음이나 배경 음악은 일반적으로 편집하기 단계에서 준비한다.

10 효과음과 배경 음악은 미리 준비하고, 자막을 넣을 때는 장면의 특성에 맞게 글씨체, 크기, 색깔, 위치 등을 적절하게 선택하며, 언어 규범을 지키도록 유의하여 편집한다.

오답 해설

ㄷ. 자막의 색깔과 위치는 장면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11 음악이나 사진은 영상의 주제나 목적이 잘 드러나도록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12 제시된 장면은 하이 앵글로 촬영한 것이다. 하이 앵글은 높은 곳의 카메라가 대상을 내려다보듯이 잡는 앵글로, 대상의 전체 모습을 한눈에 보여 줄 수 있다.

오답 해설

②는 아이레벨 앵글, ③은 클로즈업 샷, ④는 로 앵글의 효과에 해당한다. ⑤는 하이 앵글의 효과이나 제시된 장면과는 거리가 멀다.

13 효과음은 장면의 생생함을 더하기 위해 넣는 소리로 효과음을 사용하면 장면을 실감 나게 전달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③, ⑤ 효과음은 장면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넣는 소리이기 때문에 인물의 갈등을 보여 주거나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기는 어렵다. 또한 효과음을 통해 내용을 요약하는 것도 어려우며, 사건 전개 과정을 드러내기도 어렵다.

14 배경 음악은 주제가 정해진 뒤에 영상 편집 시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해 활용하는 것이다. 배경 음악을 고려하여 영상 주제를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5 영상 제작 기획안에는 영상을 공유할 매체(ㄱ), 영상 제작에 필요한 역할 분담(ㄴ), 영상의 기획 의도(ㄷ)가 들어간다.

오답 해설

효과음이나 배경 음악의 구체적 목록(ㄷ), 소품 제작 방법(ㄹ)은 역할 분담에 따른 담당자를 중심으로 추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다.

1 <보기>에 제시된 영상 매체 자료는 문자와 이미지 등의 시각적 요소, 소리와 음성 등의 청각적 요소, 동영상 등의 시청각적 요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복합양식성을 특징으로 한다.

오답 해설

영상 매체는 문자, 이미지, 소리, 음성, 동영상 등 다양한 표현 양식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의미를 구성하기 때문에 인쇄 매체에 비해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㉔, ㉕).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개인 인터넷 방송이나 대중 매체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며(㉖), 일상생활부터 전문 분야까지 다양한 영역의 정보를 제공하기에 적절하다(㉗).

2 영상 제작 기획안은 영상 제작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고(ㄱ), 촬영 전에 스토리보드를 작성하여 영상의 주요 장면을 그림이나 사진 등으로 시각화하여 정리한다(ㄴ).

오답 해설

ㄷ. 촬영한 영상을 편집할 때는 촬영 순서가 아니라 영상의 주제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스토리보드에 제시된 장면 번호의 순서에 따라 편집해야 한다.

ㄹ. 영상을 완성한 후에 시청자의 반응을 살펴 보면서 부족한 점을 점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시청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완성된 영상을 수정해 다시 제작할 필요는 없다.

3 ㉘는 인물의 상반신만 담은 웨이스트 샷으로 시청자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며 인물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웨이스트 샷으로는 인물이 위치하는 공간이나 인물의 행동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기는 어렵고, ㉙과 같은 풀 샷이 적절하다. 실제로 ㉘의 배경에는 하늘만 보여서 바닷가라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4 ㉚의 하이 앵글과 ㉛의 로 앵글은 대상보다 카메라를 높거나 낮은 곳에 두고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과 수평적인 각도의 아이레벨 앵글처럼 자연스럽게 객관적인 느낌이 들지는 않는다.

5 효과음은 장면에 생생함을 더하기 위해 넣는 소리이므로 축구 선수의 표정을 보여 주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선수의 표정을 생생하게 보여 주려면 클로즈업 샷으로 선수의 얼굴을 화면에 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축구장의 전체 모습을 보여 주려면 축구장과 카메라의 거리가 멀어야 하므로 롱 샷으로 촬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공을 차고 있는 선수의 발을 확대하여 보여 주려면 클로즈업 샷으로 촬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관중의 반응을 대사로 넣어 들려주면 경기가 진행되는 상황을 알려 줄 수 있다.

⑤ 팽팽한 경기 분위기를 표현하려면 긴장감이 넘치는 배경 음악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소단원 예상 문제

본문 42~45쪽

- 1 ④ 2 ① 3 ④ 4 ③ 5 ④ 6 ①
- 7 학교에서 지켜야 할 생활 수칙 안내 8 ① 9 ①
- 10 ⑤ 11 ① 12 ① 13 두 인물의 대사를 글로 제시하여 이미지나 소리를 보완함으로써 상황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14 ④ 15 ②

6 제시된 표는 계획하기 단계에서 작성하는 영상 제작 기획안이다.

오답 해설

- ② 이 영상의 기획 의도를 보면, 단순히 재미와 즐거움을 주기 위한 의도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안내하고 규칙을 지키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영상의 분량은 1분 30초 정도로 짧은 편이고, 촬영 장소는 2층 복도 한 곳이며, 촬영 횟수도 금요일 하루뿐이다. 따라서 촬영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학교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갈등의 이유와 해결 과정을 담고 있지는 않다.
- ⑤ 내용 항목을 보면, 경고 카드는 학교에서 지켜야 할 생활 수칙을 안내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할 것임을 알 수 있다. 학교 규칙을 어겼을 때의 처벌 규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7 [서술형] 이 표의 기획 의도와 내용을 보면, 영상의 주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켜야 할 생활 수칙을 안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8 작가는 영상의 대본을 작성하는 역할을 한다. 영상 제작에 필요한 소품을 준비하는 것은 소품 담당자의 역할에 해당한다.

9 스토리보드는 촬영을 하기 전에 영상의 주요 장면을 그림이나 사진 등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정리한 표이다. 따라서 촬영 일정을 확인할 수는 없다. 또한 스토리보드의 장면 번호는 촬영 순서가 아니라 편집 순서를 표시한 것이다.

10 다양한 효과음을 사용한 것은 장면을 실감 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지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S# 9~11을 보면, 학생들의 달라진 모습을 한 사람씩 보여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S# 1~2, S# 4, S# 6~7을 보면, 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S# 12에서 학교생활 수칙을 잘 지켜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자는 영상의 제작 의도를 자막으로 제시하여 영상을 마무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S# 3, S# 5, S# 8의 '장면(스케치)'를 보면 의인화한 경고 카드를 이용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1 S# 3, S# 5, S# 8에서 경고 카드가 등장할 때 학교생활 수칙을 대사와 자막을 통해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으며(ㄱ), 효과음으로 경고음을 넣어 경고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ㄴ).

12 이 스토리보드를 바탕으로 제작한 영상은 학교에서 생활 수칙을 잘 지켜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는 데 명확

한 제작 의도가 있다. 또한 영상을 제작할 때는 주제와 기획 의도가 잘 전달되어야 하는데, 기획 의도가 다양하면 내용이 산만해져 주제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어렵다.

13 [서술형] 영상 속 자막은 두 학생이 부딪치면서 충돌이 일어나 서로 아파하고 있는 상황임을 자막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14 S# 7은 평소에 습관적으로 비속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장면이므로, 비속어를 사용할 때의 불안감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 ① <보기>의 장면은 대상과 눈을 마주치는 것처럼 수평적인 각도에서 아이레벨 앵글로 촬영한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것 같은 자연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다.
- ② <보기>의 자막에는 'X'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장면이 학생들의 비속어 사용을 보여 주는 장면이라는 점에서 비속어를 영상에 직접 노출하지 않으면서 우회적으로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보기>에서는 클로즈업 샷을 활용하여 인물의 얼굴을 확대하여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찡그린 표정으로 욕을 하는 모습이 부각되고 있다.
- ⑤ <보기>의 장면에서 인물이 대사를 할 때 비속어를 '빠-' 효과음으로 대체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비속어가 영상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연출자의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5 ㉠에는 학교 복도의 전경을 보여 줄 수 있는 롱 샷이 들어가야 적절하고, ㉡에는 음료수 캔을 창틀 위에 놓는 학생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상반신을 촬영하는 웨이스트 샷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에는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전신을 촬영하는 풀 샷이 들어가야 한다.

중간·기말 시험 대비 문제 본문 46~53쪽

1 ④ 2 ② 3 ③ 4 ⑤ 5 ④ 6 ③ 7 ①

8 '어제도 오늘도 아니 잊고'라는 시구로 보아, 화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입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다. 9 ③ 10 ⑤

11 ③ 12 양반이 스스로를 '소인'이라 낮추고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희화화하여 신분을 매매한 양반의 행태를 풍자하고 있다. 13 ⑤ 14 ④ 15 ⑤ 16 ⑤

17 ② 18 부자가 양반의 부당한 특권을 나열한 증서를 보고 양반 되기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양반 계층의 비인간적인 횡포를 폭로한다. 19 ⑤ 20 ③ 21 ⑤ 22 ⑤ 23 ①

24 ③ 25 ① 26 ⑤ 27 ⑤ 28 복도에서 뛰지 않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기, 비속어 사용하지 않기(아름다운 말 사용하기) 29 ③

1 (가)와 (나)는 문학의 갈래 중 시에 해당한다. 시는 함축적 의미를 지닌 언어를 사용하여 주제를 드러내는 특성이 있다. 함축적 의미는 비유나 상징, 반어나 역설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만들어진다.

오답 해설

①은 소설, ②는 희곡이나 시나리오와 같은 극 문학, ③과 ⑤는 수필의 특성에 해당한다.

2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사물로 대신하는 표현은 상징이다. (가)에는 '별', '어둠', '대낮'과 같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 시어들이 쓰였지만, (나)에는 상징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가)에는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 화자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화자가 처한 상황이 작품에 드러나 있는 것은 (나)이다.

③ (나)에는 비유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가) 역시 '대낮', '어둠', '별' 등의 상징적 표현이 주로 쓰였다.

④ (가)에서는 '어둠'과 '대낮', '지금 어둠인 사람들'과 '지금 대낮인 사람들'을 대조하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나)에서는 두 대상을 대조하지 않았다.

⑤ (가)와 (나)에는 모두 의성어와 의태어가 쓰이지 않았다.

3 (가)에서 '어둠'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의미하며,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꿈과 희망을 상징하는 '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여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으므로 '어둠'은 밝은 미래를 가져오는 원천이 될 수 있다.

4 (가)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만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꿈을 꾸고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주제를 담고 있다. 따라서 절망 속에서 희망이 태어난다는 명언과 관련이 있다.

오답 해설

①은 실제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 없음을, ②는 미래를 위한 준비의 중요성을, ③과 ④는 노력의 중요성을 나타낸 명언이다.

5 (나)는 각 행을 3음보로, <보기>는 각 장을 4음보로 끊어 읽기를 반복하여 운율을 만들어 내고 있다.

6 <보기>의 1연과 4연은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수미상관이 쓰였지만, (나)의 1연과 4연은 '잇었노라'라는 시어만 반복되고 있어 수미상관이 쓰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나)의 '잇었노라'와 <보기>의 '하느님 눈물 흘리우리다'는 각각 임을 잊지 못하는 마음과 이별의 슬픈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②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상황에서 느끼는 그리움을,

<보기>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될 때 느끼는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④ (나)의 화자는 자신을 떠나간 임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을 뿐, 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거나 헌신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보기>의 화자는 떠나는 임을 위해 '진달래꽃'을 뿌리며 임의 앞날을 축복해 주겠다는 임에 대한 희생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⑤ (나)는 임과의 재회를, <보기>는 임과의 이별을 가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7 [A]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만이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이 이시의 주제이다(ㄱ). 또한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과 같이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ㄴ).

오답 해설

ㄷ. 별이 어둠 속에서만 보인다는 것은 별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상식에 맞는 표현이다.

ㄹ.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지금 어둠인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을 뿐, 이들이 느끼는 절망적인 현실은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 않다.

8 [서술형] '어제도 오늘도 아니 잇고'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임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잇었노라'는 임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정서를 반대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9 ㉠에 쓰인 개성적인 표현의 방법은 역설이다. 겉보기에는 모순된 표현이지만 그 안에 중요한 사실이나 진리를 담아내는 역설은 대상을 과장하거나 비꼬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과장하거나 비꼬기를 통해 대상을 비판하고자 한다면 풍자의 방법이 적절하다.

10 (마)에는 양반이 특권을 남용하여 재물을 수탈하고 무위도식하며 백성을 착취하는 등 부패한 모습이 그려져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관곡을 감지 못하는 양반을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것은 군수가 아니라 관찰사이다.

② (나)에서 매매 증서는 군수가 스스로 작성해 주겠다고 제안한 것이지 부자가 증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았다.

③ (다)는 양반이 지켜야 할 의무와 규범이 나뉘어져 있는데, 주로 겉치레를 중시하는 내용들이며 양반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세계의 모습과는 관련이 없다.

④ (라)에서 부자가 군수에게 매매 증서의 내용을 고쳐 달라고 한 이유는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이 없어서이다.

11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양반 신분을 매매하는 행위(ㄴ)나 허례허식에 얽매어 정작 중요한 도리는 지키지 못하는 모습(ㄷ) 등은 모두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나 절개를 갖추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 ㄱ. 글공부를 하여 문과 시험을 보는 것은 대부분의 양반이 거치는 과정으로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 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고자 하는 모습은 (가)의 관찰사에게서 나타나는데, 이것 역시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12 [서술형] 양반은 부자에게 자신의 양반 신분을 팔았기 때문에 평민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양반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그려 내는 희화화를 통해 작가는 양반 신분을 매매하는 행태를 풍자하고 있다.

13 이 글에서는 양반의 부정적인 측면, 비판의 대상이 되는 모습을 풍자의 방법을 활용하여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함께 보여주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㉓ 풍자는 권력이나 권위가 있는 힘 있는 존재를 비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풍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글에서도 조선 후기의 최상위 계층으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양반을 비판 대상으로 하고 있다.
- ㉔ 풍자의 방법에는 과장하기, 왜곡하기, 비꼬기 등의 방법이 있다. (가)에서는 아내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양반을 비꼬고 있으며, (다)와 (마)에서는 양반의 부정적인 측면을 과장하여 보여 주고 있다.
- ㉕ 풍자는 과장하거나 왜곡하고 비꼬아서 웃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독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유리하다.
- ㉖ 풍자는 단순히 개인이나 사회의 부정적 측면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14 (라)에서 부자는 '양반이라는 게 겨우 이것뿐'이라며 좀 더 좋은 쪽으로 증서를 고쳐 달라고 요구한다. 따라서 ㉔은 매매 증서의 내용이 부자의 기대와 달라 실망한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5 (다)에서 부자는 양반을 '도둑놈'에 빗대어 표현하여 양반의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도둑놈'은 양반에 대한 작가의 비판 의식이 표현된 말이다.

16 (나)의 화자는 미래에 '당신'을 만나는 상황을 가정하여 헤어진 '당신'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잊었노라'라는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강조하고 있다.

17 ㉠은 '꿈, 희망'을, ㉡은 '밝고 만족스러운 상황'을 의미한다. 또한 ㉢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을 볼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과 ㉢의 함축적 의미가 유사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별'은 '어둠' 속에서만 보이므로, 별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어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③ '어둠'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대낮'은 밝고 만족스러운 상황을

뜻하므로 서로 대조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

- ④ '대낮'에는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대낮에 별을 보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 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꿈과 희망을 뜻하는 '별'을 볼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어둠은 별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18 [서술형] 매매 증서에는 양반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백성의 재산과 노동력을 수탈하며 백성에게 횡포를 부리는 모습이 서술되어 있고, 부자는 이러한 양반을 '도둑놈'이라고 표현하면서 양반 되기를 포기한다. 작가는 이를 통해 양반의 비인간적 횡포를 비판하고 있다.

19 영상 매체는 문자와 이미지, 소리와 음악, 동영상 등의 복합적 요소를 활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복합양식성을 특징으로 한다(ㄴ). 따라서 문자와 이미지 같은 시각적 요소로만 의미를 구성하는 인쇄 매체에 비해 내용을 더 생생하고 현장감 있게 전달할 수 있다(ㄷ).

오답 해설

- ㄱ. 영상 매체는 시각적 요소 외에 청각적 요소와 동영상 등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의미를 구성한다.
- ㄴ. 텔레비전은 영상 매체라고 할 수 있지만, 라디오는 청각적 요소만을 활용하고, 신문은 시각적 요소만을 활용하는 매체이다.

20 대사는 영상을 구성하는 청각적 요소로 영상 속 등장 인물이 하는 말을 뜻한다. 인물이나 상황, 대화 내용 등을 설명하는 글은 시각적 요소인 자막에 해당한다.

21 ㉡은 카메라가 낮은 위치에서 대상을 올려다보는 로 앵글로 찍은 장면이다. 로 앵글을 활용하면 대상을 좀 더 강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다. 공간 전체를 조망하며 한눈에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하이 앵글의 효과에 해당한다.

22 공연자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도록 하려면 아이레벨(눈높이) 앵글로 촬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로 앵글로 촬영하면 대상이 위압적으로 보일 수 있어서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 어렵다.

오답 해설

- ① 롱 샷은 카메라와 대상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배경이나 인물의 동선을 포함한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기에 효과적이다. 따라서 공연장 전체의 모습을 보여 주려면 롱 샷이 적절하다.
- ② 클로즈업 샷은 카메라와 대상의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대상과의 거리적 친밀감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따라서 노래를 부르는 공연자의 얼굴을 클로즈업 샷으로 담으면 시청자가 공연자의 감정에 이입되어 노래를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③ 공연을 관람하는 학생들이 하는 말들을 대사로 넣어 주면 공연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고 공연 상황이나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④ 무대에서 들릴 수 있는 다양한 소리들을 효과음으로 넣으면 공연 상황을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23 ㉠은 롱 숏, ㉡은 클로즈업 숏에 해당한다. ㉠의 롱 숏이 ㉡의 클로즈업 숏에 비해 인물의 동선을 포함한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기에 효과적이다.

오답 해설

- ㉡ ㉡의 클로즈업 숏은 거리적 친밀감을 보여 주기에 적합하다. 인물의 행동, 인물이 위치하는 공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것은 풀 숏이다.
- ㉢ 인물의 심리 변화를 전달하기에 더 효과적인 것은 ㉡의 클로즈업 숏이다.
- ㉣ 인물과의 거리가 적절해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는 것은 웨이스트 숏이다.
- ㉤ 인물의 상반신만 담은 것은 웨이스트 숏으로 인물에게 집중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24 (나)는 영상 속 주요 장면을 그림이나 사진 등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정리한 계획표인 스토리보드로, 카메라의 거리와 각도, 자막과 효과음 등이 정리되어 있다. 대부분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영상을 만들기 위하여 쓴 글로, 배우의 동작이나 대사, 무대 장치 따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25 (가)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작성하는 영상 제작 기획안이다. 계획을 세울 때는 영상 제작에 필요한 준비물과 역할 분담, 촬영 장소 및 일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자막 내용은 스토리보드를 작성할 때, 배경 음악 목록은 편집하기 단계에서 논의한다.

26 (나)에는 영상의 주요 장면이 모두 제시되어 있는데, 그중 학생들과 인터뷰를 하는 영상은 나타나 있지 않다.

27 (나)의 마지막 장면은 학생들이 학교의 생활 수칙을 잘 지켜서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데 연출자의 의도가 있다. 따라서 연기자는 장난스럽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행복한 표정이 드러나게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실제로 <보기>의 장면에서 학생들은 행복한 표정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해설

- ㉠ 학교생활 수칙을 모두가 잘 지켜 행복한 학교가 된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S# 12에 제시된 밝고 경쾌한 음악을 배경 음악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 S# 12에서는 자막으로 영상의 제목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 영상을 통해 전하려는 내용을 강조할 수 있다.
- ㉢ S# 12에서 학생들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데서 학교생활 수칙을 지켰을 때의 긍정적인 효과가 느껴진다.
- ㉣ S# 12에서는 학생들보다 높은 곳에 카메라를 위치시킨 하이 앵글로 촬영하여 학생들의 전체 모습을 보여 준다.

28 [서술형] (나)의 S# 3, S# 5, S# 8의 자막과 대사를 통해 학생들이 지켜야 할 생활 수칙의 내용을 알 수 있다.

29 로 앵글을 사용하면 경고 카드의 위압적인 느낌을 부각하여 경고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서술·논술형 대비 문제

본문 54~57쪽

- 1 ㉢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 별들이 보인다 /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 별들을 낳을 수 있다 ㉤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희망과 꿈을 찾을 수 있다.
- 2 ㉢ 역설 ㉤ 걱정거리가 없고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꿈과 희망을 보지 못한다. ㉣ 겉보기에 모순된 표현을 통해 참신한 느낌을 주고 주제를 강조한다.
- 3 ㉡에는 반어법이 사용되었다. 화자가 '당신'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잊었노라'라고 반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 4 ㉢ 절대 천한 일을 해서는 안 됨. / 가난이란 말을 입 밖에 꺼내서는 안 됨. / 세수할 때는 주먹을 문질러 씻지 말아야 함. / 양치질을 해서 입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함. ㉤ 양반의 특권
- 5 문과에 급제한 사람에게 주는 증서인 '홍패'를 '돈자루'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신분을 이용하여 백성의 재물을 수탈하는 양반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 6 • 까닭: 양반이 실질적인 생산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특권을 이용하여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이 '도둑놈'과 같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 의도: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며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부패하고 무능한 양반의 모습을 비판하고 풍자한다.
- 7 반어의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너'를 보고 싶어 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 8 ㉠ 풍자 ㉡ 사람들이 아무 곳이나 버린 음료 컵 쓰레기가 엉망으로 쌓인 상황 ㉢ 쓰레기를 아무 곳이나 버리는 사람들의 행동을 비꼬아 웃음을 유발하며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
- 9 ㉢ 대상의 나약하고 위축된 모습을 표현할 수 있다. ㉤ 로 앵글
- 10 ㉢ 스토리보드 ㉤ 영상 속 주요 장면을 그림이나 사진 등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정리한 계획표
- 11 모두가 행복한 학교, 함께 만들어요!
- 12 • 용어: 클로즈업 숏, • 효과: ㉡은 창틀 위에 놓인 음료수 캔을 확대하여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은 학생의 입 모양을 확대하여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 13 ㉣는 음료수를 마시는 장면을 실감 나게 전달하고, ㉤는 비속어가 영상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평가 요소 시의 주제 파악하기

1 이 시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시어와 시구를 사용하여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별'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는 꿈과 희망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 별들이 보인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 별들을 낳을 수 있다'에는 힘들고 어

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만이 희망과 꿈을 찾을 수 있다는 주제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와 ㉡의 내용을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10점
㉠와 ㉡ 중 하나의 내용만 적절하게 쓴 경우	5점
㉢를 <조건>에 맞는 형식으로 쓰지 않은 경우	-1점

평가 요소 시에 쓰인 표현 방법(역설) 이해하기

- 2 결보기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중요한 사실이나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 방식을 역설이라고 한다. ㉠의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에서 밝은 '대낮'과 밝지 않다는 뜻을 지닌 '어둡다'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 하지만 ㉠에는 걱정거리가 없고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꿈과 희망을 보지 못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역설은 모순된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주의를 끌고 참신한 느낌을 주며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채점 기준	배점
㉠, ㉡, ㉢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10점
㉠, ㉡, ㉢ 중 두 개만 적절하게 쓴 경우	5점
㉠, ㉡, ㉢ 중 한 개만 적절하게 쓴 경우	3점

평가 요소 시에 쓰인 표현 방법(반어) 이해하기

- 3 이 시의 화자는 '당신'을 '잇었노라'라고 반복하여 말하고 있다. 그러나 '무척 그리다가', '어제도 오늘도 아니 잇고'라는 표현을 통해 드러나듯이 '잇었노라'가 '당신'을 잇지 못하는 마음을 반대로 말한 반어적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표현 방법과 까닭을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10점
표현 방법은 적절하게 썼으나, 까닭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	5점
표현 방법만 쓴 경우	3점

평가 요소 소설의 내용 파악하기

- 4 (가)에는 양반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나열되어 있다. 그중 하지 말아야 할 일에는 절대 천한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가난이란 말을 입 밖에 꺼내서는 안 되며, 세수할 때는 주먹을 문질러 씻지 말아야 하고, 양치질을 해서 입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등이 있다. (다)에는 양반이 지니는 특권이 나열되어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의 두 가지 이상 내용과 ㉡의 내용을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10점
㉠의 한 가지 내용과 ㉡의 내용을 적절하게 쓴 경우	5점
㉠와 ㉡ 중 하나만 적절하게 쓴 경우	3점

평가 요소 소설에 쓰인 표현 방법(비유) 이해하기

- 5 ㉠에는 '홍패'를 '돈자루'에 빗대어 표현한 은유법이 쓰였다. 또한 그 비유를 통해 특권을 남용하여 재물을 수탈하는 양반을 비꼬고 조롱하며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비유의 내용과 그 효과를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10점
비유의 내용만 적절하게 쓴 경우	5점

평가 요소 소설에 나타난 작가의 의도(풍자) 파악하기

- 6 부자가 양반을 '도둑놈'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본인을 일을 하지 않으면서 편하게 남의 것을 빼앗는 도둑처럼 양반도 일을 하지 않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괴롭히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둑놈'이라는 표현에는 부패하고 무능한 양반에 대한 작가의 비판 의식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까닭과 작가의 의도를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10점
까닭과 작가의 의도 중 하나만 적절하게 쓴 경우	5점
작가의 의도를 <조건>에 맞게 쓰지 않은 경우	-1점

평가 요소 개성적인 표현(반어)의 방법과 효과 이해하기

- 7 '보고 싶지 않아.'라고 말하면서 네가 없어서 이곳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진다거나 '네가 그리운 건 아니야.'라고 하면서 구름이 널 닮은 것 같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화자는 '너'를 계속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밑줄 친 시구는 모두 반어의 표현 방법이 쓰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표현 방법과 효과를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10점
표현 방법과 효과 중 하나만 적절하게 쓴 경우	5점
<조건>에 맞는 형식으로 쓰지 않은 경우	-1점

평가 요소 개성적인 표현(풍자)의 방법과 효과 이해하기

- 8 '거리의 시민 예술?'은 사람들이 아무 곳이나 버린 음료 컵 쓰레기가 엉망으로 쌓인 상황을 비꼬아 웃음을 유발하며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풍자의 표현 방법이 쓰인 것이다. 이러한 풍자에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태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목적이 담겨 있다.

채점 기준	배점
㉠, ㉡, ㉢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10점
㉠, ㉡, ㉢ 중 두 개만 적절하게 쓴 경우	5점
㉠, ㉡, ㉢ 중 한 개만 적절하게 쓴 경우	3점

평가 요소 영상의 구성 요소와 그 효과 이해하기

- 9 ㉡와 ㉣는 영상을 구성하는 시각적 요소 중 카메라의 각도에 따라 영상에 담기는 장면과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는 카메라가 대상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는 하이 앵글로 촬영한 것으로, 대상을 내려다보기 때문에 대상을 나약하고 위축된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다. 반대로 ㉣는 카메라가 대상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는 로 앵글로 촬영한 것으로, 대상을 올려다보기 때문에 대상을 좀 더 크고 강하고 위압적인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와 ㉣의 내용을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10점
㉡와 ㉣ 중 하나만 적절하게 쓴 경우	5점

평가 요소 영상 제작 과정(스토리보드 작성) 이해하기

- 10 (나)는 촬영 전에 작성하는 스토리보드로, 영상 속 주요 장면을 그림이나 사진 등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정리한 계획표이다.

채점 기준	배점
㉡와 ㉣의 내용을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10점
㉡는 적절하게 썼으나, ㉣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	5점
㉡만 적절하게 쓴 경우	3점

평가 요소 영상 제작 기획안 이해하기

- 11 (가)의 기획 의도에서 모두가 규칙을 잘 지킬 때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고 하였고, 실제로 (나)의 마지막 장면인 S# 12에서 이 기획 의도가 잘 드러나는 제목인 ‘모두가 행복한 학교, 함께 만들어요!’를 자막으로 추가하였다.

채점 기준	배점
㉠의 내용을 (나)의 자막과 일치하게 쓴 경우	5점
㉠에 들어갈 내용을 썼으나, (나)의 자막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3점

평가 요소 영상의 구성 요소와 그 효과 이해하기

- 12 ㉠과 ㉢은 모두 대상을 크게 확대하여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와 대상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클로즈업 샷에 해당한다.

채점 기준	배점
용어와 ㉠과 ㉢의 효과를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10점
용어를 적절하게 쓰고, ㉠과 ㉢의 효과 중 하나만 적절하게 쓴 경우	5점
용어를 적절하게 썼으나, ㉠과 ㉢의 효과를 모두 미흡하게 쓴 경우	3점
㉠과 ㉢의 효과를 <조건>에 맞는 형식으로 쓰지 않은 경우	-1점

평가 요소 영상의 구성 요소와 의도 이해하기

- 13 ㉠에 쓰인 효과음은 음료수를 마시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실감 나게 전달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는 비속어가 나올 때 그 비속어를 들려주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비속어가 영상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와 ㉢의 의도를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10점
㉠와 ㉢ 중 하나만 적절하게 쓴 경우	5점
문장을 <조건>에 맞는 형식으로 쓰지 않은 경우	-1점

2

슬기로운 독서, 계획적인 발표

1 능동적으로 읽기

소단원 핵심 미리 보기 본문 60~61쪽

| 핵심 확인 문제 | 1 점검, 조정 2 ④ 3 ① 4 ④
 5 문맥 6 × 7 ○

- 1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한다는 것은 읽기의 각 단계마다 자신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읽기 목표에 따라 읽기 전략을 조정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 2 이야기 글은 인물의 갈등이나 중심 사건을 따라가며 읽는 것이 효과적이다.
- 3 읽기 목적을 확인하는 것은 글을 읽기 전의 효과적인 읽기 전략에 해당한다.
- 4 더 알고 싶은 정보를 찾아보는 것은 글을 읽은 후에 적합한 읽기 방법이다.
- 5 읽는 중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에는 사전을 찾아볼 수도 있지만 우선 문맥을 바탕으로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 6 글을 읽기 전 과정에서는 글의 제목, 소제목, 그림 등을 훑어보고 배경지식을 떠올리며 글의 내용을 예측한다.
- 7 글의 구조도 그리기는 읽기 후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 구조도로 내용을 정리하면 읽은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다.

교과서 활동 점검하기 본문 62~73쪽

| 시험에 꼭 나오는 활동 확인 문제 | 1 ②, ⑤ 2 ③ 3 관
 심사, 배경지식 4 ③ 5 ⑤ 6 ③ 7 ④ 8 ④
 9 (마) 10 ④ 11 ⑤ 12 ④ 13 ② 14 ①
 15 ⑤ 16 ④ 17 ② 18 ⑤ 19 ② 20 ⑤
 21 ② 22 ② 23 ② 24 ⑤ 25 ③ 26 ④
 27 ② 28 ② 29 ③

- 1 제시된 만화는 준서가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친구에게 소개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읽을 글을 선정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2 흥미를 갖고 읽을 수 있는 글인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 3 읽을 글을 선정할 때는 자신의 관심사나 흥미, 수준, 배경지식, 읽기 목적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 4 준서는 읽기 목적에 맞게 새로운 정보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글을 읽겠다고 했으며, 제시된 그림에 관한 배경지식을 떠올리며 글 내용을 예측했다.
- 5 능동적인 독서를 한다고 해서 글의 주제와 읽기의 목적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6 (나)에는 페르메이르가 활동한 시기와 활용한 표현법(명암법)이 제시돼 있다.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를 그리게 된 계기에 관한 내용은 제시돼 있지 않다.
- 7 소제목은 문단의 내용을 요약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독자는 소제목을 보고 문단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고, 글의 주제를 짐작할 수도 있다.
- 8 명암법은 서로 다른 사물의 질감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 그러나 명암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사물의 촉감이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9 (마)의 '어두운 방 한쪽 벽에~ 뒤집혀 나타나는 것이지요.'에서 카메라 오브스쿠라의 원리를 확인할 수 있다.
- 10 카메라 오브스쿠라는 원래 크기가 방만 해서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컸으나, 발전하면서 옮겨가며 쓸 수 있을 정도로 크기가 작아져 화가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으며 훗날 카메라의 발명을 이끌었다.
- 11 글쓴이는 카메라 오브스쿠라의 원리를 설명하고, 해당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두 가지 종류의 카메라 오브스쿠라를 사용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그림을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 12 카메라 오브스쿠라가 대상을 실물에 가깝게 그리는 데 도움이 되는 장치라는 설명과 '생생한' 앞에 나온 '실물 처럼'이라는 표현으로 볼 때, 빈칸에는 '명백하고 또렷하게 보인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3 글쓴이는 '명암법의 선택이나 ~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를 통해 기법도 노력의 일부라고 하면서, 명작이 탄생하려면 화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 14 모르는 단어의 뜻을 문맥을 바탕으로 짐작하거나 사전을 찾아보는 활동은 '읽는 중' 활동에 해당한다. 글을

읽은 후에는 글의 구조를 한눈에 보여 주는 구조도를 그려 내용을 정리하고, 글을 읽으며 궁금했던 것이 모두 해결되었는지 살펴보고, 더 알고 싶은 정보는 없는지 찾아보는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 15 내용 구조도를 그리면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정보를 명확히 이해하고,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다.
- 16 '밝음과 어두움'은 뜻이 반대인 단어의 조합이므로 첫 번째 빈칸에는 '반대인' 또는 '상반되는'이, 두 번째 빈칸에는 '대비'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7 ㉠ 글쓰이는 그림의 창작 방법으로 '명암법'과 '카메라 오브스쿠라'를 들고 있으며, 첫 번째 방법으로 명암법을 설명하고 있다. ㉡ '명암법'으로 질감을 생생하게 표현하였다고 하였다. ㉢ 학자들은 카메라 오브스쿠라를 사용한 근거로 '사진'과 같은 특징이 나타남을 들고 있다.
- 18 마지막 문장을 통해 '칠실파려안'은 서양에서 청나라를 거쳐 조선에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 19 글의 제목을 보고 내용에 궁금증을 가지거나 예측하는 활동은 읽기 전 활동에 해당한다.
- 20 글의 내용을 구조화해서 정리하는 것은 읽은 후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에 해당한다. 다만 읽는 중에 구조화를 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 21 주어진 과제에 따라 읽기의 목적을 정한 후 이와 관련된 주제의 글을 선정하였으며, 읽기 수준을 고려해 청소년 대상으로 씌어진 글을 선정했다.
- 22 글을 읽기 전에는 글의 제목이나 표지 등을 보고 글의 내용을 예측해 보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 23 '방관자 효과'의 개념은 '정의'의 방법으로 설명되어 있다.
- 24 '다원적 무지'가 발생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긴급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세 번째 문단('그렇다면 ~ 발생하는 것이다.')을 통해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은 기본적인 읽기 전략이다.
- ②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 자료를 탐색하는 확장적 읽기 전략이다.
- ③ 글 전체의 맥락상 '상황'적 요인과 연결 짓는 것이 더 정확한 읽기 방법이다.
- ④ 지문의 '상상'할 때도 방관자 효과가 나타난다는 내용과 관련한 심화 읽기 전략이다.

- 25 ③은 군중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의 책임감이 반감되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이고, 재구성 단계에서는 '사람이 많을수록 책임감이 분산된다.'로 압축된다.
- 26 구조도에 정리된 내용에 따라 방관자 효과는 타인에 대한 다원적 무지와 책임감 분산 때문에 생기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자세가 방관자 효과를 막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27 내용 구조도에 나타난 글의 중심 내용을 고려할 때, 방관자와 방관인의 의미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28 글을 읽은 후 비판적인 태도로 글쓴이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고 근거를 들어 반박하는 것은 읽기 후 점검·조정하는 활동이 될 수 있지만 주로 주장하는 글에 대한 읽기 후 활동에 해당한다. <보기>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대화를 하지 않았다.
- 29 읽기 상황은 읽을 글을 선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로, 읽기 과정을 효과적으로 점검·조정한다고 해서 쉽게 변경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본문 74~77쪽

소단원 예상 문제

1 ④ 2 ⑤ 3 ② 4 ⑤ 5 ④ 6 명암법을 활용해 소녀의 모습을 입체적이고 생생하게 그렸다. 7 ①

8 ④ 9 ③ 10 ④ 11 ⑤

- 1 주어진 만화는 읽을 글을 선정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읽을 글을 선정할 때는 읽기 상황, 독자의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글의 주제와 독자의 삶과의 관련 여부는 선정 시 고려할 수 있는 항목이기는 하지만 만화에는 해당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2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글을 읽으면 글에 담긴 내용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글의 수준에 맞게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인 것은 아니며, 독자는 글쓴이가 요구하는 수준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준에 맞는 글을 선정하여 읽어야 한다.
- 3 글을 읽기 전에는 제목이나 표지의 그림 등을 보고 글 내용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때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면 더 능동적인 읽기가 가능하다.

- 4 (다)에서 질감의 차이를 확실하게 느끼려면 손으로 만져 보면 된다고는 했으나 이것이 화가들이 만질 수 있는 그림을 그렸다는 내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는 명암법을 통해 눈으로 보기만 해도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질감 차이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 하였다.
- 5 (나), (다)에 따라 명암법은 그림 속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기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에는 '그림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명암법'이라는 제목이 가장 적절하다.
- 6 [서술형] (나), (다)를 통해 명암법은 대상의 입체감을 살리고 생생하게 표현하는 기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 7 (가)의 핵심 내용은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가 카메라 오브스쿠라의 도움을 받아 그려졌다고 보는 견해가 있음.'이다.
- 8 페르메이르가 카메라 오브스쿠라를 사용했다는 직접적인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으로 그의 의도나 생각을 추론하기는 어렵다.
- 9 '여럿이 나누어 차례로 말아.'는 '교대하다'의 의미이다. '교차하다'는 '서로 엇갈리거나 마주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 10 (나)에는 도움이 필요한 긴급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타인의 반응을 살피는 경향이 있는데, 타인 역시 다른 사람의 반응을 살피고 있으므로 아무도 행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다.
- 11 '다원적 무지'는 개인의 비판적이고 주체적인 사고를 마비시키고 집단의 편향된 사고를 굳어지게 해 사회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나)에서 '다원적 무지'란 '집단적인 해석의 오류가 발생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 ② (나)의 '그러나 타인 역시 자신이 도와야 하는 상황인지 판단하기 위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를 통해 ㉠이 '다원적 무지'에 대한 적절한 설명임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나)의 '타인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상황이 긴급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다.'를 통해 ㉠이 '다원적 무지'에 대한 적절한 설명임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나)의 '실제로는 모두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행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를 통해 아무도 행동하지 않으면 위험에 처한 사람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2 점검하며 발표하기

소단원 핵심 미리 보기

본문 78~79쪽

1 핵심 확인 문제 | 1 ③ 2 ④ 3 이해, 재구성 4 ④ 5 ②

- 1 발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히 연습하는 것이 좋다.
- 2 발표할 때의 목소리는 발표의 내용이나 청중의 상황 등에 따라 크기를 적절히 조절한다.
- 3 수집한 다양한 자료를 청중을 고려하여 선별, 요약, 시각화하는 등의 재구성 과정을 거치면, 발표를 듣는 청중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 4 말하기 불안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
- 5 발표를 듣는 중에는 궁금한 내용을 떠올리며 듣되, 질문은 발표가 모두 끝난 후 하는 것이 좋다.

교과서 활동 점검하기

본문 80~93쪽

| 시험에 꼭 나오는 활동 확인 문제 | 1 ① 2 ③ 3 카페인 함량이 높은 음료를 많이 마시는 우리 반 친구들에게 고품량의 카페인 섭취를 주의해야 함을 알리기 위해 4 ③ 5 ① 6 ① 7 ④ 8 ④ 9 ② 10 ① 11 ④ 12 ④ 13 ④ 14 ② 15 ① 16 ③ 17 ④ 18 ④ 19 ③ 20 ④ 21 ④ 22 ③ 23 메모 24 ④ 25 ② 26 ④ 27 ② 28 ② 29 ⑤ 30 ⑤ 31 ⑤ 32 ② 33 ④ 34 ⑤ 35 ② 36 ⑤

- 1 매체 활용 순서를 정하는 것은 자료를 수집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이다.
- 2 은수네 모둠은 발표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발표 자료 선정에 관한 내용은 토의에 드러나 있지 않다.
- 3 예상 청중과 주제 구체화의 과정을 보았을 때, 은수네 모둠은 함량이 높은 에너지 음료를 많이 먹는 반 친구들에게 카페인 섭취 실태와 카페인의 부작용을 알리기 위해 주제를 선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 4 (다)는 카페인 과다 섭취의 부작용에 관한 자료이다.

- 5 카페인을 섭취해야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중들에게 카페인 섭취가 오히려 집중력을 저하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활용해 발표문을 구성하면 더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 6 아래 제시된 전개 ①의 세부 내용으로 보아 ㉠에는 카페인 섭취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적절하다.
- 7 발표 내용과 발표의 흐름 등을 고려할 때, ㉡에서는 '불면증, 정서 불안, 성장 방해, 빈혈'이라는 카페인의 부작용과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 매체 자료를 활용할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서 불안'에 대한 '그림'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8 구체적 수치의 변화 양상을 직관적으로 잘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는 도표이다.
- 9 '내용 조직하기' 단계는 수집한 자료를 발표 주제와 내용에 맞게 조직하는 활동이다. 발표 내용을 구성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표 내용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발표 전 활동이므로 청중의 반응에 따라 내용을 수정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0 발표의 목적은 발표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확정해야 하는 것으로, 조직하기 단계에서 발표의 목적이나 주제가 적절한지를 점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1 말하기 불안에 대한 연구가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 12 발표는 여러 사람 앞에서 어떠한 사실이나 자신의 정보를 전달하는 말하기이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 경험 부족이 아닌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해 본 경험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 13 제시된 글에서 '긴장이 된다면 '왜 이렇게 긴장이 되지?'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발표 경험을 쌓을 좋은 기회가 되겠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다.
- 14 주어진 상황에서 발표자인 은수가 친구들 앞에서 발표 내용을 실천처럼 연습하고 있다.
- 오답 해설**
- ㉠ 주어진 이미지에서 은수가 대본을 들고 있지 않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내용을 외웠는지는 알 수 없으며, 발표 내용을 대본에 의존하지 않을 정도로 숙지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모두 외우려 하기 보다는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나머지 내용을 말로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 ㉡ 친구들이 발표 연습을 들으면서 말하기 방식이나 말하기 태도

의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으나 이것을 보완하거나 고치는 과정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 말하기 불안의 원인을 찾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다.

- 15 발표 연습은 친구들 앞에서 해 보거나, 실제 청중이 있다고 상상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해 보는 것이 좋다.
- 16 발표를 이미 시작했다면 더 수집해야 할 자료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불필요하다.
- 17 발표를 들을 때는 메모를 하는 것이 집중력 강화와 내용 이해에 효과적이다.
- 오답 해설**
- ㉠ 발표를 할 때 발표자는 청중을 집중시키기 위해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다 보면 발표에 집중할 수 있다.
- ㉡ 활용한 매체 자료의 제목이 어떤 의미인지, 왜 그렇게 지었는지 생각해 보면 발표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 ㉢ 발표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알면 앞으로 이어질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
- ㉣ 발표자와 적극적으로 상호 작용하면 청중의 입장에서는 집중력이 높아지고, 발표자의 자신감도 향상되어 더 좋은 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

- 18 발표 중 질문을 하고 답을 듣는 과정은 일방적 정보 전달보다 오히려 시간이 더 소요되지만 소통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선택하는 전략이다. 발표 중 청중의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은 청중이 발표 내용에 호기심을 갖고 집중하게 해주며, 이미 알고 있는 배경지식을 상기시켜 이해를 돕고, 발표자와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 19 [A]에서는 청소년의 카페인 섭취 실태를 자료로 제시하며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청소년이 많다는 문제 상황을 청중에게 알리고 있다.
- 20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카페인 섭취 실태를 조사했으나 이 청소년이 우리 반 학생들은 아니며, 우리 반 학생들의 카페인 섭취 실태는 발표자(발표 모둠)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를 통해 조사하였다.
- 21 청중의 적극적인 듣기 태도나 긍정적인 반응은 발표자에게 자신감을 부여하고 여유를 갖게 해 주므로, 공감 이 가는 내용에 대한 긍정 표시나 질문에 대한 답, 흥미로운 요소에 대한 반응 등을 적극적으로 보여 주도록 한다.
- 22 ㉠, ㉡은 청소년의 카페인 섭취 실태와 카페인을 섭취할 때의 주의점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이다. 발표의 주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 23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여 기억하는 것은 발표를 듣는 과정에서의 전략 중 하나이다.
- 24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 중 어떤 것을 섭취하는 게 더 나은지는 발표만으로 알 수 없다. 발표의 내용이 말하는 것은 식품별 카페인 함량을 알고 하루 최대 섭취량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 25 ㉠은 체중이 50킬로그램인 청소년이 하루 최대 카페인 섭취량을 넘기는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발표를 할 때 구체적인 예를 들면 청중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 26 ㉡은 발표 자료의 출처를 매체를 통해 밝힌 것이다. 발표 내용이 전문가의 의견, 언론 보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통계를 출처로 함을 밝히고 있으므로 발표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신뢰성을 높이고 발표 내용에 힘을 실어준다.
- 27 순서 안내, 구체적인 사례 제시, 적절한 설명 방법과 자료 사용 등은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한다.
- 28 발표는 정보를 전달하는 말하기에 해당하므로 발표자의 경험보다는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메모하는 것이 좋고 세부적인 내용보다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메모하는 것이 좋다.
- 29 활용하는 매체 자료의 개수가 청중의 집중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매체 자료는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을 고르면 청중이 발표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준다.
- 30 비판적인 태도로 발표를 듣는 것은 좋은 자세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완벽하지 않은 발표를 많이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31 발표를 하기 전,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을 발표 주제와 목적에 맞게 조직하면서 개요표를 만든 후 발표문을 작성한다.
- 32 매체 자료는 청중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으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 주기 때문에 청중의 상상력을 제한할 수도 있다.
- 33 청소년의 당 섭취량에 관한 정보는 '전개 ㉢'의 '청소년의 당 섭취 실태' 내용과 맞는 자료이지만 발표 개요표에서 '그림이나 사진' 자료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므로 도표 자료는 적절하지 않다. 계획에 맞는 이 부분의 자료는 인터넷 신문 기사의 캡처 사진이나 단 음식을 잔뜩 먹고 있는 청소년의 그림 등이 적절하다.

- 34 발표는 어떤 사실이나 정보 등을 알리기 위한 말하기로,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청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야 한다. 따라서 청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35 발표를 시작하기 전 제시된 발표 제목, 목차 등을 통해 발표 내용을 예측하면 발표에 더 흥미를 가질 수 있고 발표 내용에 더 집중할 수 있다.
- 36 적극적 태도로 발표를 듣는 것은 좋지만 발표 도중 내용을 지적하는 행동은 발표를 방해하는 행동이다. 내용에 의문이 들거나 반박할 것은 기억해 두었다가 발표 종료 후 발표자에게 따로 이야기해야 한다.

본문 94~97쪽

소단원 예상 문제

1 ㉢ 2 ㉡ 3 카페인을 섭취하는 올바른 방법 4 ㉣
 5 청중들이 발표 내용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구체적 수치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 7 ㉡ 8 ㉡
 9 ㉣ 10 카페인을 올바르게 섭취할 것을 당부하기 11 ㉠
 12 ㉣ 13 ㉣ 14 발표의 신뢰성을 높이고 청중이 더 많은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1 발표 주제는 발표를 통해 얻은 정보를 청중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에서 찾는 것이 좋다. 청중의 삶에 밀접하거나 흥미를 가질만한 것에서 선정하면 청중은 발표 내용에 집중하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상은은 예상 청중의 규모가 아닌 예상 청중의 흥미를 고려하여 운동이나 음식 중 주제를 구체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3 [서술형] 은수의 마지막 말을 통해 은수네 모두가 구체화한 발표의 주제를 확인할 수 있다.
- 4 예상 청중과 상관없는 성인, 임산부, 어린이에 관한 정보는 발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다. 예상 청중인 우리 반 친구들에 해당하는 수치만 포함해 재구성하는 것이 적절한 활용 방안이다.

오답 해설

① ㉠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한 청소년의 카페인 섭취 실태에 관한 자료이다. (가)를 보면 발표를 통해 청소년의 카페인 섭취 실태를 알리려 하고 있으므로, ㉠은 청소년들이 고카페인 음료를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은 카페인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사전 자료이다. 예상 청중(우리 반 친구들)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전문적인 정보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자료이다.

③ ㉡은 카페인이 성장을 방해하고 빈혈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책의 내용이다. 이는 카페인의 부작용에 해당하므로 올바른 카페인 섭취 방법에 대해 알려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발표의 목적에 적합하다. 카페인이 갈증 및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과정은 발표문에 담기에는 지나치게 복잡한 내용일지라도 청중의 질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추가로 조사해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⑤ ㉢은 카페인이 정서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방송 내용이 담긴 동영상 자료이다. 과도하게 카페인을 섭취하는 친구들이 많으므로 이 내용은 발표문에 포함시키기에 적절하다.

5 도표는 추이나 경향, 구체적 수치의 변화 양상 등을 직관적으로 보여 주는 특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청중이 발표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이해하도록 한다.

6 (나)는 (가)의 발표 개요 초안을 발표의 목적 및 청중의 상황 등을 고려해 점검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7 발표의 도입 부분에 발표 순서를 안내하면 청중이 발표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예측할 수 있어서 효과적이다.

8 '실태'란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에는 청소년이 카페인을 어떤 식으로 얼마나 많이 섭취하고 있는지에 관한 통계 자료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9 (가)의 초안에 이미 발표 주제 소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영의 두 번째 말을 통해 발표 순서를 안내하는 것도 이미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0 [서술형] 개요 초안과 토의 내용을 미루어 보아 발표의 목적이 청중이 카페인 과다 섭취의 위험성을 알고 올바르게 섭취하도록 당부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11 간단한 몸풀기로 근육의 긴장을 푸는 것만으로도 말하기 불안에 대처할 수 있다.

12 제품 표면에 카페인 함량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 섭취 시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13 <보기>는 청소년의 체중 1kg당 권장 카페인 섭취량만 제시돼 있어서 내용 이해가 쉽지 않다. 그러나 [A]에서는 체중 50kg의 청소년으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 하루 최대 섭취량을 설명해서 청중의 이해를 도왔다.

14 [서술형] 발표에 활용한 자료의 출처를 제시하면 발표

내용을 더 믿을 만하게 만들고, 궁금증이 생긴 청중에게 탐색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중간·기말 시험
대비 문제

본문 98~103쪽

1 ④ 2 ⑤ 3 ③ 4 ② 5 ⑤ 6 ④
7 ⑤ 8 도와줄 사람이 많아질수록 책임감을 적게 느껴 나
아닌 다른 누군가 도와주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다. 9 ⑤ 10 ③ 11 ④ 12 청중의
집중도를 고려해 발표의 순서를 조정하였다. / 청중의 흥미를 높
일 수 있도록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추가하였다. /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했다. 중
두 가지 13 ⑤ 14 카페인이 우리 식생활에 깊이 들어왔
음을 알리기 위해서

1 명암법은 대상의 입체감이나 질감을 표현할 때 활용한 표현법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물의 근본적 성질인 본질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2 문맥과 의미를 고려할 때 '대비'는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차이를 드러낸다'는 뜻을 포함해야 한다.

3 카메라 오브스쿠라의 크기가 클 때는 크기가 방만 하여 화가들이 이것을 손쉽게 사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 볼록렌즈와 거울을 이용해 작게 만들어진 카메라 오브스쿠라 덕에 화가들은 이를 폭넓게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대상을 생생하게 표현한 작품들이 증가하였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카메라 오브스쿠라의 원리를 토대로 카메라가 만들어졌으며 카메라 오브스쿠라를 이용하면 사진과 같은 느낌의 그림이 그려지기는 했지만 카메라 오브스쿠라를 통해 사진을 찍어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② 그림의 일부는 선명하고 다른 부분이 흐릿한 것은 페르메이르가 그림을 그릴 때 카메라 오브스쿠라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려서 마치 사진 같이 표현됐기 때문이다.

④ 학자들은 페르메이르가 카메라 오브스쿠라를 사용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당시 유럽 미술에서 많이 사용된 점, 그림에서 사진과 같은 느낌으로 대상을 표현했다는 점을 근거로 페르메이르가 카메라 오브스쿠라를 사용했을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⑤ 페르메이르가 카메라 오브스쿠라를 이용해 그림을 그렸다 해도 기법의 일종일 뿐, 화가의 노력이 최소한의 역할만 했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학자들의 평가가 이 글에 제시되지도 않았다.

4 소제목은 이어지는 문단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카메라 오브스쿠라'에 관한 내용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적절하다.

- 5 <보기>는 페르메이르의 그림에 밑그림이 없다는 것은 그가 카메라 오브스쿠라를 사용했다는 근거가 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페르메이르가 카메라 오브스쿠라를 사용한 근거를 다루고 있는 (라), (마)와 연결해 읽는 것이 적절하다.
- 6 글에 제시된 단서를 바탕으로 생략되거나 숨겨진 내용을 추론하는 것은 읽기 중 전략에 해당한다.
- 7 글을 읽는 중 낯설고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때에는 글의 맥락을 바탕으로 단어의 뜻을 추측해 본 후 나중에 사전을 활용하여 정확한 뜻을 파악한다.
- 8 [서술형] ㉔는 '다원적 무지라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누구나 긴급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게 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뒤의 내용에 따라 다원적 무지가 없더라도 주변에 사람이 많다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어 방관자 효과가 나타나 긴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게 됨을 알 수 있다.
- 9 이 글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므로 글에서 전달하는 다양한 정보를 정리하며 읽는 것이 글의 이해에 효과적인 반면 <보기 2>는 주장하는 글이므로 주장의 타당성, 근거의 논리성, 신뢰성 등을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주장과 비교하며 읽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이 글을 읽을 때 <보기 2>를 읽는 것처럼 글쓰기가 제시한 대안이 실현 가능한지 따져 읽는 것을 최우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0 ㉑에는 카페인의 부작용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어야 하므로 심리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부작용인 ㉓이 가장 적절하다. 나머지는 카페인의 긍정적 효과에 해당한다.
- 11 해당 부분의 내용을 고려할 때 ㉑에는 카페인 하루 최대 섭취량과 관련된 자료나 주요 식품에 함유된 카페인 함량을 설명하는 자료가 제시되는 것이 적절하다.
- 12 [서술형] 수집하고 선정한 자료로 개요 초안을 작성한 후에는 발표의 목적이나 청중의 상황 등을 고려해 수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 13 이 글에서는 카페인 함량이 표시되지 않은 것을 섭취할 때 주의하라고 하고 있을 뿐, 섭취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다. 카페인 함량이 표시된 식품만 섭취하지는 것은 들은 내용을 올바로 적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14 [서술형] (가)의 마지막 문장에서 설문 조사가 드러내는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

서술·논술형
대비 문제

본문 104~107쪽

- 1 ㉑ 원리. ㉒ 볼록렌즈와 거울을 이용해 작게 만들어 옮겨 가며 쓸 수 있는 방식
- 2 글로만 설명하면 카메라 오브스쿠라의 원리나 활용하는 모습을 독자가 쉽게 떠올릴 수 없기 때문에 글쓰이는 그림을 활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 3 ㉓ 페르메이르의 작품은 사진처럼 어떤 부분은 선명하고 어떤 부분은 흐릿하게 표현됨. ㉔ 페르메이르의 작품을 엑스선으로 촬영한 결과 밑그림의 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함.
- 4 글쓰이는 페르메이르의 작품을 명작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명작은 기법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화가의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 5 긴급 상황에서 집단적 해석의 오류를 일으켜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는 방관자 효과
- 6 타인 역시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나를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여, 결국 모두가 긴급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다원적 무지가 발생한다.
- 7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든 설명이 이어져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책임감이 줄어든다
- 8 발표 주제, 목적, 예상 청중 등 발표 상황과 관련된 요소를 고려하여 발표를 계획하였는지
- 9 ㉕ 반 친구들에게 올바른 카페인 섭취 방법 알리기, ㉖ 우리 반 친구들
- 10 ㉗ ㉑, ㉖ 내용이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발표의 목적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은 자료이다.
- 11 ㉘ 예상 청중, ㉙ 청소년에 해당하는 수치만 활용하는
- 12 간단한 몸풀기 동작을 해 봐 / 심호흡을 해 봐 / 말하기 불안은 누구나 겪는 거라고 생각해 봐 / 적당한 긴장을 발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봐 / 충분히 연습해 봐. 중 두 가지 이상

평가 요소 중심 소재 파악하기

- 1 ㉑은 카메라 오브스쿠라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㉒에는 카메라 오브스쿠라의 종류 중 더 발전된 형태인 작은 카메라 오브스쿠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㉑, ㉒에 들어갈 내용을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10점
㉑에 들어갈 내용만 적절하게 쓴 경우	7점
㉒에 들어갈 내용만 적절하게 쓴 경우	3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글쓰이의 의도 추론

- 2 <보기>에 따르면 매체 자료는 독자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유발하며 신뢰성을 주는 등의 효과가 있다. 이 글에서는 독자에게 낯선 소재인 카메라 오브스쿠라의 모

습이나 원리 등을 그림을 바탕으로 설명하면서 독자들이 훨씬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채점 기준	배점
카메라 오브스쿠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매체 자료 활용의 효과를 <조건>에 맞게 서술한 경우	10점
카메라 오브스쿠라에 대한 내용을 매체 자료 활용의 효과를 포함해 서술했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7점
매체 자료 활용의 효과만을 서술한 경우	4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글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

- 3 글쓴이는 페르메이르가 카메라 오브스쿠라를 이용해 그림을 그렸다고 보는 학자들의 근거를 세 가지 들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 ㉡의 내용을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10점
㉠, ㉡ 중 하나만 적절하게 쓴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글쓴이의 생각 추론하기

- 4 글쓴이는 페르메이르가 명암법, 카메라 오브스쿠라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그렸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화가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러한 명작의 탄생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페르메이르의 작품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조건>의 형태로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페르메이르의 작품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서술했으나 <조건>의 형태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5점
페르메이르의 작품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서술했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3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읽기 과정 점검·조정하기

- 5 글을 읽기 전에는 제목이나 소제목, 삽화 등을 보고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 글을 읽는 중에는 읽기 전에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문맥에 맞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문맥에 맞게 내용을 서술했으나 글이 다루고 있는 중심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문단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

- 6 다원적 무지란 모두가 서로의 눈치만 살피다가 집단적 해석의 오류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긴급 상황에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채점 기준	배점
다원적 무지가 일어나는 원인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다원적 무지가 일어나는 원인을 부분적으로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설명 방법의 효과 파악하기

- 7 글쓴이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는 대상에 적절한 설명 방법을 활용한다. ㉠은 청중의 이해도에 따라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글쓴이는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채점 기준	배점
㉠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여 글쓴이가 활용한 설명 방법의 효과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글쓴이가 활용한 설명 방법의 효과에 대한 내용만 서술한 경우	7점
㉠의 의미에 대한 설명만 서술한 경우	4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발표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점검·조정하기

- 8 발표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발표 주제, 목적 등을 정한다. 이때 발표 상황을 고려해 계획이 적절하게 마련되었는지 점검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발표를 계획하는 단계에서의 점검 기준을 문맥에 맞게 서술한 경우	5점
발표를 계획하는 단계에서의 점검 기준을 부분적으로 알맞게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발표 계획하기

- 9 토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상 청중을 고려해 발표 목적과 주제를 정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 ㉡의 내용을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10점
㉠, ㉡ 중 하나만 적절하게 쓴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매체 자료 활용 계획 마련하기

- 10 발표를 위해 자료를 수집한 후에는 활용할 자료를 선정하고 선정한 자료를 활용할 계획을 마련한다. 이때 발표의 목적이나 확정된 주제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달라질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활용도가 낮은 자료를 알맞게 선정하고 그렇게 생 각한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활용도가 낮은 자료만을 골라서 쓴 경우	4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매체 자료 활용 방법 파악하기

- 11 발표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선정한 후에는 발표의 목적이나 확정된 주제, 예상 청중 등의 발표 상황에 따라 내용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가)의 발표 목적은 ‘반 친구들에게 올바른 카페인 섭취 방법 알리기’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고려의 대상, 결정할 사항 모두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고려의 대상, 결정할 사항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말하기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 이해하기

- 12 말하기 불안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 상황으로 간단한 체조나 심호흡, 충분한 연습, 인식의 전환 등의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말하기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을 두 가지 이상 문 맥에 맞게 서술한 경우	5점
말하기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 한 가지를 문맥에 맞게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3

체계적인 음운, 과학적인 문자

1 우리말 음운 체계

소단원 핵심 미리 보기

본문 110~111쪽

1 핵심 확인 문제 | 1 음운 2 (1) ㄹ, ㅂ (2) ㅌ, ㄷ (3) ㅅ, ㅈ 3 (1) × (2) ○ (3) ○ 4 (1) ㉠ (2) ㉡ (3) ㉢ 5 ㉤ 6 (1) ㉠ (2) ㉡ (3) ㉢ (4) ㉣ (5) ㉤ 7 ㉥ 8 ㉦

- 음운은 말소리의 단위로,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역할을 한다.
- (1)은 중성의 자음 ‘ㄹ’과 ‘ㅂ’, (2)는 중성의 모음 ‘ㅜ’와 ‘ㅣ’, (3)은 초성의 자음 ‘ㅅ’과 ‘ㅈ’에 의해 두 단어의 뜻이 각각 구별된다.
- (1) 모음은 소리 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의 방해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이다.
(2) ‘ㄱ, ㅋ, ㆁ, ㆁ’는 발음하는 동안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으므로 단모음이고, ‘ㅃ, ㆁ, ㆁ’는 발음하는 동안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므로 이중 모음이다.
(3) ‘ㄱ’은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전설 모음, 입술 모양에 따라 분류하면 원순 모음이다.
- 단모음을 혀의 높이에 따라 분류할 때 ‘ㅏ, ㅗ’는 저모음, ‘ㅣ, ㅜ, ㅡ, ㅝ’은 고모음, ‘ㅓ, ㅛ, ㅜ, ㅝ’는 중모음이다.
-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의 변화 여부는 단모음과 이중 모음을 분류하는 기준이다.
- 자음을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입술소리는 ‘ㅃ, ㅍ, ㅍ, ㅍ’, 잇몸소리는 ‘ㄷ, ㅌ, ㅌ, ㅌ, ㅌ, ㄷ, ㄷ’, 설입천장소리는 ‘ㅈ, ㅉ, ㅉ’, 여린입천장소리는 ‘ㄱ, ㅋ, ㅋ, ㅇ’, 목청소리는 ‘ㅎ’이다.
- 울림소리는 ‘ㄴ, ㄹ, ㄹ, ㅇ’이고, 그중 잇몸소리는 ‘ㄴ, ㄹ’이며, 그중 비음은 ‘ㄴ’이다.
- ‘ㅎ’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 분류되는 자음이 아니다. ‘ㅎ’은 소리 나는 위치로 목청소리에 해당하고, 소리 내는 방법으로 마찰음에 해당한다.

| 시험에 꼭 나오는 활동 확인 문제 | 1 ② 2 ② 3 ③
 4 ② 5 ⑤ 6 ② 7 ⑤ 8 ② 9 ②
 10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에 있는지 뒤쪽에 있는 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11 ③ 12 ① 13 ①
 14 ③ 15 ① 16 ① 17 ⑤ 18 ⑤ 19 ③
 20 ② 21 ④ 22 ① 23 ② 24 ② 25 ③
 26 ③ 27 ④ 28 '땀땀하게'가 '단단하게'에 비해 더 강하고 단단한 느낌을 준다. 29 ⑤ 30 ③ 31 ④ 32 ①
 33 ③ 34 ① 35 ④ 36 혀의 높이에 따라 분류하면 '누'는 고모음, '노'는 중모음으로 구분된다.

1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오답 해설

- ① 모음은 혼자서 발음이 가능하여 홀로 쓰일 수 있지만, 자음은 모음 없이 혼자서는 발음될 수 없어서 혼자 쓰일 수 없다.
- ③ 음운은 말소리의 단위이다. 소리를 나타낼 뿐 그 자체로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 ④ 자음은 독립적으로 발음할 수 없다. 독립적으로 발음할 수 있는 말소리의 단위는 음절이다.
- ⑤ 음운은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지 못한다. 문장에서 일정한 기능을 하는 것은 문장 성분이다.

2 '나'는 초성 'ㄴ'과 중성 'ㅏ'로, '꿈'은 초성 'ㄱ', 중성 'ㅇ', 종성 'ㅁ'으로, '불'은 초성 'ㅂ', 중성 'ㅜ', 종성 'ㄹ'로 이루어져 있다.

오답 해설

㉠, ㉡ '인'은 중성 'ㅣ'와 종성 'ㄴ'으로, '용'은 중성 'ㅇ'과 종성 'ㅇ'으로 이루어졌다. 둘 다 초성 없이 중성과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초성의 'ㅇ'은 소릿값이 없으므로 자음이 아니다.

3 <보기>에서 단어를 이루는 자음과 모음은 동일하지만 발음을 짧게 하느냐 길게 하느냐에 따라 단어의 뜻이 구별되므로 소리의 길이가 음운으로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아'와 '악'에는 동일한 모음인 'ㅏ'가 쓰였다(ㄱ). '아'는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에 막힘이 없지만, '악'은 자음 'ㄱ'으로 인해 공기의 흐름에 막힘이 생긴다(ㄷ).

오답 해설

- ㄴ. '악'의 중성에는 '아'에 사용되지 않은 자음 'ㄱ'이 사용되었다.
- ㄹ. '아'는 모음 'ㅏ' 하나의 음운으로, '악'은 모음 'ㅏ'와 자음 'ㄱ' 두 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다.

5 소리 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는 소리는 자음, 방해받지 않는 소리는 모음이다.

오답 해설

- ①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를 나누는 기준이다.

- ② 비음과 비음 아닌 소리를 나누는 기준이다.
- ③ 단모음을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나누는 기준이다.
- ④ 모든 발음은 숨을 내쉴 때 이루어진다.

6 '아이스크림'에 쓰인 자음은 'ㅅ, ㅋ, ㄹ, ㅁ'의 네 개이다. '아'와 '이'에 쓰인 'ㅇ'은 소릿값이 없으므로 자음이 아니고, '아'와 '이'는 모음 하나로 이루어진 음절이다.

오답 해설

- ① 'ㅅ'와 'ㅋ'에 모음 'ㅡ'가 각각 사용되었다.
- ③ 'ㅅ, ㅋ, ㄹ'은 초성에, 'ㅁ'은 종성에 사용된 자음이다.
- ④ '아'와 '이'는 각각 'ㅏ', 'ㅣ'의 모음 하나로 이루어진 음절이다.
- ⑤ '림'은 'ㄹ(자음)+(모음)+ㅁ(자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7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모음은 단모음으로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가 있고, 변하는 모음은 이중 모음으로 'ㅟ, ㅞ, ㅝ, ㅝ, ㅞ, ㅟ, ㅠ, ㅡ, ㅢ, ㅣ, ㅤ, ㅥ, ㅦ, ㅧ, ㅨ'가 있다. '귀'는 이중 모음으로 ㉠의 예이고, '늪'은 단모음으로 ㉡의 예이다.

8 ㉠에 쓰인 이중 모음은 '니', ㉡에 쓰인 이중 모음은 '키'이므로, 서로 다른 이중 모음이 쓰였다.

오답 해설

- ① ㉠에 쓰인 모음은 'ㅞ, ㅟ, ㅠ, ㅡ, ㅣ' 5개, ㉡에 쓰인 모음은 '키, ㅑ, ㅓ, ㅕ, ㅗ, ㅛ' 6개로, ㉠과 ㉡에 쓰인 모음의 개수는 서로 다르다.
- ③ ㉠에 쓰인 단모음은 'ㅞ, ㅟ, ㅠ, ㅣ' 4개, ㉡에 쓰인 단모음은 'ㅑ, ㅓ, ㅕ, ㅗ, ㅛ' 5개로, ㉠에 쓰인 단모음이 ㉡보다 개수가 더 적다.
- ④ ㉠에 쓰인 이중 모음은 '니', ㉡에 쓰인 이중 모음은 '키'로 각각 한 개씩 쓰였다.
- ⑤ ㉠과 ㉡에 공통으로 쓰인 단모음은 'ㅞ, ㅟ, ㅠ, ㅣ' 4개이다.

9 국어 모음의 개수는 단모음 10개, 이중 모음 11개로 총 21개이다(ㄱ). 단모음 중 'ㅑ'와 'ㅓ'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된다(ㄷ).

오답 해설

- ㄴ. 'ㅞ'와 'ㅟ'는 모두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단모음이다.
- ㄷ. 단모음은 10개, 이중 모음은 11개로, 이중 모음의 개수가 단모음의 개수보다 많다.

10 [서술형] ㉠은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쪽에 있는 후설 모음이고, ㉡은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에 있는 전설 모음이다.

11 '누'는 후설 모음, '귀'는 전설 모음이므로 '우위'를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동한다.

오답 해설

- ④, ⑤ '누'와 '귀'는 혀의 높이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모두 고모음이므로 혀의 높이에 변화는 없다.

12 저모음, 중모음, 고모음 순으로 모음을 나열한 것은 'ㅏ, ㅓ, ㅗ'이다.

오답 해설

- ② 'ㅕ, ㅓ, ㅗ'는 각각 저모음, 고모음, 중모음이다.
- ③ 'ㅓ, ㅓ, ㅗ'는 각각 고모음, 중모음, 중모음이다.
- ④ 'ㅗ, ㅓ, ㅏ'는 각각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다.
- ⑤ 'ㅓ, ㅕ, ㅗ'는 각각 고모음, 저모음, 중모음이다.

13 이 단어들에 쓰인 모음인 'ㅓ, ㅓ, ㅗ, ㅓ'는 모두 입을 을 둥글게 오므려 발음하는 원순 모음이다.

오답 해설

- ③, ④ 혀의 높이에 따라 분류하면, 'ㅓ, ㅓ'는 고모음, 'ㅓ, ㅗ'는 중 모음이다.
- ⑤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ㅓ, ㅓ'는 전설 모음, 'ㅓ, ㅗ'는 후설 모음이다.

14 '세상'에 쓰인 모음인 'ㅕ'와 'ㅏ'는 모두 평순 모음이다.

오답 해설

- ① '봄비'의 'ㅓ', ② '생쥐'의 'ㅓ', ④ '쇠뿔'의 'ㅓ'와 'ㅓ', ⑤ '후회'의 'ㅓ'와 'ㅓ'는 원순 모음이다.

15 전설 모음은 'ㅓ, ㅕ, ㅗ, ㅓ, ㅓ'이다. 그중 고모음은 'ㅓ, ㅓ'이고, 그중 평순 모음은 'ㅓ'이다.

오답 해설

- ② 'ㅕ'는 전설 모음, 중모음, 평순 모음이다.
- ③ 'ㅕ'는 전설 모음, 저모음, 평순 모음이다.
- ④ 'ㅓ'는 전설 모음, 고모음, 원순 모음이다.
- ⑤ 'ㅗ'는 후설 모음, 중모음, 원순 모음이다.

16 'ㅏ'와 'ㅗ'는 둘 다 후설 모음이면서 평순 모음이지만, 혀의 높이에 따라 분류할 때 각각 저모음과 고모음이라는 차이가 있다. 즉, 저모음 'ㅏ'는 혀를 가장 낮추어, 고모음 'ㅗ'는 혀를 가장 높은 곳에 위치시켜 발음한다.

17 셉입천장소리에 해당하는 자음은 'ㅈ, ㅉ, ㅊ'이다.

오답 해설

- ①은 여린입천장소리, ②와 ④는 잇몸소리, ③은 입술소리이다.

18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분류할 때 ㉠과 ㉡은 혀끝과 윗 잇몸 사이에서 소리가 나는 잇몸소리이고, ㉢은 혀 뒤와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소리가 나는 여린입천장소리이다.

19 초성인 입술소리는 'ㅂ, ㅃ, ㅍ, ㅍ'이고, 종성인 여린 입천장소리는 'ㄱ, ㅋ, ㅇ'이다. '붕'의 초성 'ㅂ'은 입술소리이고, 종성 'ㅇ'은 여린입천장소리이다.

오답 해설

- ① '꿀'의 초성 'ㄱ'은 여린입천장소리이고, 종성 'ㄹ'은 잇몸소리이다.
- ② '문'의 초성 'ㅁ'은 입술소리이고, 종성 'ㄴ'은 잇몸소리이다.

- ④ '컻'의 초성 'ㄱ'과 종성 'ㄱ'은 모두 여린입천장소리이다.
- ⑤ '뽕'의 초성 'ㅍ'과 종성 'ㅁ'은 모두 입술소리이다.

20 'ㄱ, ㄷ, ㅂ, ㅅ'은 발음할 때 코안이나 입안이 울리지 않는 안울림소리이고, 'ㄴ, ㄹ, ㅁ, ㅇ'은 코안이나 입안이 울리는 울림소리이다.

21 '나무'에 쓰인 'ㄴ, ㅁ', '우리'에 쓰인 'ㄹ', '영웅'의 'ㅇ'에 쓰인 종성 'ㅇ'은 모두 울림소리이다.

오답 해설

- '가위'에 쓰인 자음은 'ㄱ' 하나뿐이며 안울림소리이다. '오이'에는 자음이 쓰이지 않았다.

22 '말랑말랑'에 쓰인 자음 'ㅁ, ㄹ, ㅇ'은 모두 울림소리에 해당한다. 모든 모음도 울림소리이므로 '말랑말랑'에 안울림소리는 쓰이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② '덩실덩실'에 쓰인 안울림소리는 'ㄷ, ㅅ'이다.
- ③ '쿵쿵쿵'에 쓰인 안울림소리는 'ㄱ'이다.
- ④ '사르르'에 쓰인 안울림소리는 'ㅅ'이다.
- ⑤ '와하하'에 쓰인 안울림소리는 'ㅎ'이다.

23 'ㅂ'은 소리를 내는 방법에 따라 분류할 때 공기의 흐름을 잠시 막았다가 터뜨리며 내는 소리인 파열음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①, ③ 'ㄱ'과 'ㄷ'은 공기의 흐름을 잠시 막았다가 터뜨리며 내는 소리인 파열음이다.
- ④ 'ㅅ'은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면서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소리인 파찰음이다.
- ⑤ 'ㅎ'은 입안이나 목청 사이의 통로를 좁혀 그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소리인 마찰음이다.

24 안울림소리 중 마찰음에 해당하는 자음은 'ㅅ, ㅆ, ㅎ'이다. '새싹'에는 마찰음 'ㅅ, ㅆ'이 쓰였다.

25 코안이나 입안이 울리는 울림소리 중 공기가 코로 나가는 소리는 비음인 'ㄴ, ㅁ, ㅇ'이다.

26 자음을 소리의 세기에 따라 분류할 때 ㉠은 된소리이고, ㉡은 거센소리이다. ③ '뜨레'의 'ㄷ'은 된소리, '쿵후'의 'ㄱ'은 거센소리이다.

오답 해설

- ① '결코'의 'ㄱ'은 거센소리, '꿀밤'의 'ㄱ'은 된소리이다.
- ② '기타'의 'ㄷ'은 거센소리, '뽕뽕'의 'ㅃ, ㅃ'은 된소리이다.
- ④ '참외'의 'ㅈ'과 '피망'의 'ㅍ'은 모두 거센소리이다.
- ⑤ '조끼'의 'ㄱ'과 '뽕뽕'의 'ㅃ'은 모두 된소리이다.

27 'ㄱ, ㄷ, ㅂ, ㅅ'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 분류할 때 공기를 세계 내뿜어 숨이 거세게 나오는 거센소리(ㄷ) 세고 거친 느낌을 준다(ㄱ). 또한 코안이나 입안이 울리

지 않는 안울림소리이다(ㄴ).

오답 해설

ㄹ. 소리를 내는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공기의 흐름을 잠시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소리를 내는 파열음에 해당하는 자음은 'ㄱ, ㅌ, ㅍ' 세 개이다. 'ㄷ'은 파열음이 아니라 파찰음이다.

28 [서술형] '단단하게'에 쓰인 'ㄷ'은 예사소리이고, '딱딱하게'에 쓰인 'ㅌ'은 된소리이다. 된소리는 보통의 소리인 예사소리에 비해 강하고 단단한 느낌을 준다.

29 '잘랑잘랑'에 쓰인 'ㄷ'은 예사소리, '잘랑잘랑'에 쓰인 'ㅌ'은 된소리, '찰랑찰랑'에 쓰인 'ㄷ'은 거센소리이다.

오답 해설

- ① '광광'에는 된소리 'ㄱ'이, '퀵퀵, 광광'에는 거센소리 'ㄱ'이 쓰였다.
- ② '박박'에는 예사소리 'ㅂ, ㅅ'이, '퍽퍽'에는 거센소리 'ㅍ'과 예사소리 'ㄱ'이, '뽁뽁'에는 된소리 'ㅃ'과 예사소리 'ㄱ'이 쓰였다.
- ③ '달달, 덜덜, 들들'에는 예사소리 'ㄷ'이 쓰였다.
- ④ '부드득'에는 예사소리 'ㄷ, ㄸ, ㅌ'이, '푸드득'에는 거센소리 'ㅍ'과 예사소리 'ㄷ, ㄸ, ㅌ'이, '뿌드득'에는 된소리 'ㅃ'과 예사소리 'ㄷ, ㄸ'이 쓰였다.

30 혀끝과 윗잇몸 사이에서 소리가 나는 잇몸소리는 'ㄷ, ㅌ, ㅌ, ㅌ, ㅌ, ㄴ, ㄴ'이다. 그중 공기를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소리를 내는 파열음은 'ㄷ, ㅌ, ㅌ'이다. 그중 발음할 때 숨이 거세게 나오는 거센소리는 'ㅌ'이다.

31 '엄마'에 쓰인 자음은 'ㅁ'이다. 'ㅁ'은 코안이나 입안이 울리며 소리 나는 울림소리이면서,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소리 내는 비음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① 강하고 단단한 느낌을 주는 소리는 된소리이다. 'ㅁ'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 분류되는 자음이 아니다.
- ② 발음할 때 코안이나 입안이 울리지 않는 소리는 안울림소리이다. 'ㅁ'은 울림소리에 해당한다.
- ③ 혀의 뒷부분과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는 여린입천장 소리이다. 'ㅁ'은 입술소리에 해당한다.
- ⑤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면서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소리는 파찰음이다. 파찰음은 안울림소리를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ㅁ'은 울림소리로 비음에 해당한다.

32 '가시, 세련된, 질겨서'는 모두 표기 그대로 발음해야 하는 단어들이다. 그런데 단어 첫음절의 첫소리인 예사소리 'ㄱ, ㅌ, ㅌ'을 각각 된소리 'ㄱ, ㅌ, ㅌ'으로 잘못 발음하고 있다.

33 '장아찌'를 '짱아찌'로 표기한 것은 [장아찌]라고 발음해야 하는데 [짱아찌]로 잘못 발음하면서 그것이 잘못 된 표기로 이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살작'이 잘못된 표기이고, '살짝'이 맞는 표기이다.

- ② '쪽집게'는 잘못된 표기이고, '쪽집게'가 올바른 표기이다.
- ④ '김치찌개'는 잘못된 표기이고, '김치찌개'가 올바른 표기이다. 모음 'ㅐ'를 'ㅑ'로 잘못 발음하여 표기한 잘못된 예이다.
- ⑤ '부러뜨리다'와 '부러트리다'는 모두 올바른 표기이다.

34 'ㅐ'와 'ㅑ'는 둘 다 평순 모음, 전설 모음이고, 혀의 높이를 기준으로 분류할 때 저모음, 중모음이라는 차이만 있다. 따라서 '새'를 발음할 때는 '세'보다 입을 좀 더 크게 벌리고 혀의 위치를 최대한 낮추어 발음한다.

35 '뒤집개'에 쓰인 모음 'ㅑ, ㅣ, ㅐ'는 모두 단모음이므로 이중 모음을 발음할 때의 주의 사항을 따를 필요가 없다.

오답 해설

①의 'ㅑ', ②의 'ㅑ'와 'ㅑ', ③의 'ㅑ', ⑤의 'ㅑ'는 이중 모음에 해당한다.

36 'ㅑ'와 'ㅑ'는 모두 원순 모음이면서 후설 모음이지만, 각각 고모음, 중모음이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혀의 높이를 기준으로 두 모음을 구분하여 발음해야 한다.

소단원 예상 문제 본문 124~127쪽

1 ③ 2 ⑤ 3 소리의 길이 4 ④ 5 ⑤ 6 혀의 위치가 높다.(혀의 높이가 높은 고모음이다.) 7 ④ 8 ① 9 'ㅑ'는 혀의 높이를 높여 발음하고, 'ㅑ'는 혀의 높이를 중간쯤에 위치시켜 발음한다. 10 ④ 11 ② 12 ② 13 ① 14 ② 15 ⑤ 16 ③ 17 ① 18 'ㅎ'은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목청소리이다. 'ㅎ'은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안울림소리이면서 마찰음이다. 19 ② 20 ③ 21 ⑤ 22 ④ 23 ②

1 '물'과 '불'은 'ㅁ', 'ㅂ'에 의해, '물'과 '말'은 'ㄴ', 'ㅌ'에 의해, '물'과 '문'은 'ㄴ', 'ㄴ'에 의해 단어의 뜻이 구별된다. 이렇게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한다.

2 ④ '감사'에 쓰인 자음은 'ㄱ, ㅁ, ㅌ'이고, ⑥ '편지'에 쓰인 자음은 'ㅍ, ㄴ, ㅌ'이다. 따라서 두 단어에 쓰인 자음의 개수는 3개로 서로 같다.

오답 해설

- ① ① '오랜'에 쓰인 음운은 'ㄴ, ㄹ, ㅐ, ㄴ' 4개이고, ⑥ '시간'에 쓰인 음운은 'ㅌ, ㅣ, ㄱ, ㅌ, ㄴ' 5개로, 음운의 개수는 서로 다르다.
- ② ②에는 자음 'ㅇ'이 사용되지 않았고, ③에는 'ㅇ'의 종성으로 자음 'ㅇ'이 사용되었다.
- ③ ③ '시간'에 쓰인 모음은 'ㅣ, ㅌ'이고, ⑥ '편지'에 쓰인 모음은

‘ㄷ, ㅌ’로, 동일한 모음 ‘ㅣ’가 사용되었다.

④ ㉞ ‘시간’에 쓰인 자음은 ‘ㅅ, ㄱ, ㄴ’이고, ㉟ ‘갑사’에 쓰인 자음은 ‘ㄱ, ㅁ, ㅅ’로, 공통으로 쓰인 자음은 ‘ㅅ, ㄱ’이다.

3 ‘말’은 ‘ㅁ+ㅌ+ㄹ’로 이루어져 있어 ㉠과 ㉡의 자음과 모음은 서로 같지만, 소리의 길이가 달라 단어의 뜻이 구별된다. ‘말’을 짧게 발음하면 동물을, 길게 발음하면 언어를 뜻한다.

4 ‘ㅏ’는 단모음, ‘ㅑ’는 이중 모음이다. 단모음과 이중 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나는 것으로, 단모음인 ‘ㅏ’는 이중 모음 ‘ㅑ’와 달리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5 ㉠은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에 있는 전설 모음을 나타내고, ㉡은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쪽에 있는 후설 모음을 나타낸다. ‘ㅣ’는 전설 모음이고, ‘ㅓ’는 후설 모음이다.

오답 해설

- ① ‘ㅏ, ㅑ’는 모두 후설 모음이다.
- ② ‘ㅣ’는 후설 모음, ‘ㅓ’는 전설 모음이다.
- ③ ‘ㅡ’는 후설 모음, ‘ㅕ’는 전설 모음이다.
- ④ ‘ㅞ, ㅟ’는 모두 전설 모음이다.

6 [서술형] ‘ㅣ, ㅕ, ㅡ, ㅑ’는 혀의 높이에 따라 분류할 때 고모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ㅣ, ㅕ’는 전설 모음, ‘ㅡ, ㅑ’는 후설 모음으로 나뉜다. 입술 모양에 따라 분류하면 ‘ㅣ, ㅡ’는 평순 모음, ‘ㅕ, ㅑ’는 원순 모음으로 나뉜다.

7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고 발음해야 하는 원순 모음은 ‘ㅓ, ㅕ, ㅗ, ㅛ’이다. ‘눈물’에 쓰인 ‘ㅕ’, ‘شط’에 쓰인 ‘ㅕ’, ‘참외’에 쓰인 ‘ㅗ’, ‘혼자’에 쓰인 ‘ㅓ’는 모두 원순 모음이다.

8 혀의 높이에 따라 분류하면 ‘ㅏ’는 저모음, ‘ㅣ’는 고모음에 해당하므로 ‘ㅏ’와 ‘ㅣ’를 순서대로 발음하면 혀의 높이가 낮았다가 점차 높아진다.

오답 해설

- ㄴ.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ㅏ’는 후설 모음, ‘ㅣ’는 전설 모음이므로, ‘ㅏ’와 ‘ㅣ’를 순서대로 발음하면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에서 앞으로 이동한다.
- ㄷ. 입술 모양에 따라 분류하면 ‘ㅏ’와 ‘ㅣ’는 모두 평순 모음이므로, ‘ㅏ’와 ‘ㅣ’를 순서대로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은 둥글게 오므라지지 않은 채로 유지된다.

9 [서술형] 제시된 표를 보면, ‘ㅑ’와 ‘ㅓ’는 후설 모음이지만 원순 모음이지만, 고모음과 중모음이라는 차이가 있으므로 혀의 높이를 달리하여 둘을 구분하여 발음한다.

10 속담에 쓰인 모음은 ‘ㅣ, ㅡ, ㅓ, ㅌ, ㅞ’로, 모두 단모음에 해당한다. 이 중 ‘ㅓ’ 하나만 원순 모음이고, 나머지 ‘ㅣ, ㅡ, ㅌ, ㅞ’는 평순 모음이다.

오답 해설

- ㄱ. ‘ㅣ, ㅡ, ㅓ, ㅌ, ㅞ’ 중 후설 모음은 ‘ㅡ, ㅓ, ㅌ’ 3개, 전설 모음은 ‘ㅣ, ㅞ’ 2개이므로 후설 모음이 전설 모음보다 더 많이 쓰였다.
- ㄷ. ‘ㅣ, ㅡ, ㅓ, ㅌ, ㅞ’ 중 고모음은 ‘ㅣ, ㅡ’, 중모음은 ‘ㅓ’, 저모음은 ‘ㅞ, ㅌ’이므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 모두 쓰였다.

11 ㉠은 혀끝과 윗잇몸 사이로, 이 위치에서 소리 나는 자음은 잇몸소리이다. 잇몸소리에는 ‘ㄷ, ㅌ, ㅌ, ㅌ, ㅌ, ㅌ, ㄹ’이 있다.

오답 해설

- ① ‘ㄷ, ㅌ’은 잇몸소리로 ㉠에서 소리가 난다.
- ③ ‘ㅁ, ㅂ’은 입술소리로 ㉡에서 소리가 난다.
- ④ ‘ㅇ’은 여린입천장소리로 ㉢에서 소리가 나고, ‘ㅎ’은 목청소리로 ㉣에서 소리가 난다.
- ⑤ ‘ㅈ, ㅊ’은 센입천장소리로 ㉤에서 소리가 난다.

12 제시된 단어들의 받침에 쓰인 자음 ‘ㅇ, ㄴ, ㄹ, ㅁ’은 모두 울림소리이므로, 발음할 때 코안이나 입안이 울리면서 소리가 난다.

오답 해설

- ① 혀끝이 윗잇몸에 닿으며 소리가 나는 잇몸소리는 ‘ㄴ, ㄹ’이다.
- ③ 숨이 거세게 터져 나오는 거센소리는 없다.
- ④ 공기가 코를 통해 흘러 나가는 비음은 ‘ㄴ, ㅁ, ㅇ’이다.
- ⑤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는 소리는 모음이다.

13 소리를 내는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ㅌ’과 ‘ㄱ’은 공기의 흐름을 잠시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소리가 나는 파열음이다.

오답 해설

- ② ‘ㅌ’은 파찰음이므로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면서 마찰을 일으켜 소리를 낸다. 입안의 좁혀진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 마찰을 일으켜 내는 소리는 마찰음 ‘ㅅ, ㅆ, ㅎ’이다.
- ③ ‘ㅌ’은 마찰음이므로 입안의 좁혀진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 마찰을 일으켜 소리를 낸다. 혀끝을 윗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러 보내며 내는 소리는 유음 ‘ㄹ’이다.
- ④ ‘ㄴ’과 ‘ㅁ’은 비음이므로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며 소리를 낸다.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면서 마찰을 일으켜 내는 소리는 파찰음 ‘ㅈ, ㅊ, ㅊ’이다.
- ⑤ ‘ㄹ’은 유음이므로 혀끝을 윗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러 보내며 소리를 낸다.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며 내는 소리는 비음 ‘ㄴ, ㅁ, ㅇ’이다.

14 소리의 세기에 따라 자음을 분류할 때, 성대 근육이 긴장되면서 소리가 나고 강하고 단단한 느낌을 주는 소리는 된소리이다. ‘뚝뚝뚝’에는 된소리 ‘ㅌ’이 쓰였다.

15 성대 근육도 긴장되지 않고 숨도 거세게 나오지 않으면

서 편안하게 나오는 소리는 예사소리가 쓰인 ‘깜깜’이다. ‘깜깜’의 ‘ㄱ’은 발음할 때 성대 근육이 긴장되면서 소리가 난다.

오답 해설

- ①, ② ‘깜깜’에 쓰인 ‘ㄱ’은 거센소리이므로 발음할 때 숨이 거세게 터져 나오고, 예사소리 ‘ㄱ’에 비해 세고 거친 느낌을 준다.
- ③ ‘ㄱ, ㄲ, ㅋ’은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모두 여린입천장소리이다.
- ④ ‘ㄱ, ㄲ, ㅋ’은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모두 파열음이다.

16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ㅇ’은 여린입천장소리에 해당한다.

17 ㉠에 쓰인 비음은 ‘ㄹ’ 하나이고, ㉡에 쓰인 비음은 ‘ㄹ’과 ‘ㅇ’ 두 개이다.

오답 해설

- ② ㉠에 쓰인 ‘ㄹ, ㄹ’과 ㉡에 쓰인 ‘ㄹ, ㅇ, ㄹ’은 모두 코안이나 입안이 울리는 울림소리이다.
- ③ ㉠에 쓰인 ‘ㄱ’과 ㉡에 쓰인 ‘ㅇ’은 모두 여린입천장소리이다.
- ④ ㉠의 ‘ㄹ’과 ㉡의 ‘ㄹ’은 잇몸소리이면서 파열음에 해당하는 소리로 양쪽에 모두 쓰였다.
- ⑤ ㉠과 ㉡에는 세고 거친 느낌을 주는 거센소리는 쓰이지 않았다.

18 [서술형] ‘ㅎ’은 목청에서 소리가 나는 목청소리이고, 발음할 때 코안이나 입안이 울리지 않는 안울림소리이며, 목청 사이의 통로를 좁혀 그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마찰음이다.

19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ㅂ, ㅃ, ㅍ’은 모두 파열음에 해당한다.

20 ‘애기똥풀’에 쓰인 자음은 ‘ㄱ, ㅌ, ㅇ, ㅍ, ㄹ’인데,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ㄱ, ㅇ’은 여린입천장소리, ‘ㅌ, ㄹ’은 잇몸소리, ‘ㅍ’은 입술소리이다.

오답 해설

- ① ‘애기똥풀’에 쓰인 안울림소리 ‘ㄱ, ㅌ, ㅍ’은 모두 파열음이다.
- ② ‘애기똥풀’에 쓰인 모음 ‘ㅐ, ㅣ, ㅓ, ㅜ’은 모두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단모음이다.
- ④ ‘애기똥풀’에 쓰인 자음 ‘ㅌ’은 강하고 단단한 느낌을 주는 된소리이다.
- ⑤ ‘애기똥풀’에 쓰인 모음 ‘ㅐ, ㅣ, ㅓ, ㅜ’ 중 ‘ㅣ, ㅜ’는 고모음, ‘ㅓ’는 중모음, ‘ㅐ’는 저모음이다.

21 첫 글자의 첫소리인 마찰음은 ‘ㅅ, ㅆ, ㅎ’이고, 가운데소리인 전설 모음은 ‘ㅣ, ㅑ, ㅓ, ㅕ, ㅗ’이다. 두 번째 글자의 가운데소리인 고모음은 ‘ㅣ, ㅕ, ㅓ, ㅜ’이고, 끝소리인 비음은 ‘ㄹ, ㄴ, ㅇ’이다. ‘해인’에서 ‘해’의 첫소리인 자음 ‘ㅎ’은 마찰음이고, 가운데소리인 모음 ‘ㅑ’는 전설 모음이다. ‘인’의 가운데소리인 ‘ㅣ’는 고모음이고, 끝소리인 자음 ‘ㄴ’은 비음이다.

22 ‘주꾸미’의 올바른 발음은 [주꾸미]가 아니라 [주꾸미]이고, ‘질기다’의 올바른 발음은 [질기다]가 아니라 [질기다]이다. 따라서 단어 첫음절의 첫소리에 나오는 예사소리를 된소리로 바꾸어 발음한 것은 잘못된 발음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①, ⑤ ‘주꾸미’와 ‘질기다’는 표기 그대로 각각 [주꾸미], [질기다]로 발음해야 하므로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도록 예사소리로 발음해야 한다.
- ② ‘질기다’의 올바른 발음은 [질기다]이고, [질기다]는 잘못된 발음이다.
- ③ ‘주꾸미’의 올바른 발음은 [주꾸미]가 아니라 [주꾸미]이다.

23 이중 모음에는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ㅝ, ㅟ’가 있다. ‘김다예’에 쓰인 ‘ㅑ’, ‘이오연’과 ‘이우연’의 ‘ㅜ’, ‘정권이’의 ‘권’에 쓰인 ‘ㅝ’는 모두 이중 모음이다.

2 우리말 문자 체계

소단원 핵심 미리 보기

본문 128~129쪽

1 핵심 확인 문제 | 1 (1) ○ (2) × (3) × 2 애민 정신
3 상형 4 세기 5 ㉓ 6 (1) ㉑ (2) ㉒ (3) ㉑ (4) ㉒
(5) ㉒ 7 (1) × (2) ○ (3) ○ 8 모아쓰기

- (1) 훈민정음은 한글의 원래 이름으로 세종 대왕이 창제한 우리 글자이다.
(2) 한글 창제 시 자음자는 17자, 모음자는 11자로 총 28자이다.
(3) 『훈민정음』의 서문에는 한글의 창제 목적과 취지가 서술되어 있고, 창제 원리는 나와 있지 않다.
- 글로 제 뜻을 표현하지 못하는 백성을 위해 한글을 창제한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인 애민 정신에 해당한다.
- 자음 기본자는 해당 자음을 발음할 때 소리 나는 위치의 발음 기관 모양을 본뜨는 상형의 원리로 창제되었다.
- 자음자의 가획의 원리는 자음 기본자에 획을 더할수록 소리가 세지는 것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글자를 만든 것이다.
- ‘ㅈ’은 자음자 ‘ㅈ’을 가로로 나란히 붙여 쓰는 병서의 방식으로 만든 글자이다.
- ‘ㆍ’, ‘ㅡ’는 각각 하늘의 둥근 모양과 땅의 평평한 모양을 본떠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기본자이다. 초출자 ‘ㅏ’, ‘ㅑ’는 각각 ‘ㅣ’와 ‘ㅡ’에 ‘ㆍ’를 한 번 합하여 만든 것이고, 재출자 ‘ㅓ’는 초출자 ‘ㅓ’에 ‘ㆍ’를 한 번 더 합하여 만든 것으로, 모두 합성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 (1) ‘ㅍ’는 초출자 ‘ㅍ’에 ‘ㆍ’를 합하여 만든 재출자이다.
(2) 초출자 ‘ㅏ, ㅑ, ㅓ, ㅕ’는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에 변화가 없는 단모음이고, 재출자 ‘ㅑ, ㅓ, ㅕ, ㅍ’는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에 변화가 있는 이중 모음이다.
(3) 한글 창제 당시의 모음자 11자 중 ‘ㆍ’ (아래아)는 오늘날 쓰이지 않는 글자이다.
- 모아쓰기는 음절 단위로 자음자와 모음자를 가로세로로 묶어서 적는 표기 방식이다. 모아쓰기는 자음자와 모음자를 초성, 중성, 종성의 차례대로 늘어놓아 쓰는 방식인 풀어쓰기에 비해 읽기가 쉽고 의미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교과서 활동 점검하기

본문 130~139쪽

1 시험에 꼭 나오는 활동 확인 문제 | 1 ㉓ 2 ㉑ 3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4 ㉒ 5 ㉑, 자주정신 6 ㉓ 7 ㉓ 8 ㉑ 9 ㉑ 10 ㉑ 11 ㉑ 12 ㉓ 13 ㉒ 14 같은 자음자 두 개를 옆으로 나란히 붙여 써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15 ㉒ 16 ㉓ 17 ㉑ 18 ㉑ ㉒, ㉒ ㉒, ㉒ ㉒, ㉒ ㉒ 19 ㉓ 20 ㉓ 21 (1) ㉒, ㉒ (2) 합성 22 ㉓ 23 ㉒ 24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25 ㉓ 26 소리 27 ㉒ 28 ㉒ 29 ㉒ 30 ㉑ 부정적(비판적) ㉒ 긍정적(우호적)

- 한자를 배우기 어려워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가 없어서(㉒)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음(㉑)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말과 중국 말이 달라 한자로 우리나라 말을 표기하기 어렵다고 말한 부분을 통해 한글 창제 이전에는 한자로 문자 생활을 했음(㉒)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㉒. 우리나라 말이 중국 말과 달라 우리나라 말을 표기할 문자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므로 우리나라 말과 중국 말이 서로 달랐음을 알 수 있다.

- 이 글에서 세종 대왕은 훈민정음(한글)을 창제한 까닭을 설명하면서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과 취지를 밝히고 있다.
- [서술형]**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세종 대왕이 지배층이 아닌 백성을 위해 창제한 글자임을 그 뜻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훈민정음』 서문의 제목에서 ‘세종이 직접 훈민정음을 만들다’라고 하였으므로, 한글을 창제한 사람은 세종 대왕이고 한글의 원래 이름은 훈민정음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㉒.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라고 하였으므로 한글 창제 당시 글자 수는 28자임을 알 수 있다.

㉒. 『훈민정음』 서문에는 한글이 표음 문자인지 표의 문자인지는 나와 있지 않다. 표의 문자란 하나하나의 글자가 말소리와 상관없이 일정한 뜻을 나타내 글자의 수가 매우 많은 문자로, 대표적으로 한자가 있다. 이에 반해 실제로 한글은 말소리를 단 28자의 기호로 나타낸 표음 문자에 해당한다.

- 우리말이 중국 말과 다르다는 주체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한 글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㉑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남의 간섭이나 보호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일을 처리하려는

자주정신을 보여 준다.

6 백성들이 쉽게 익혀서 날마다 편하게 쓸 수 있는 문자가 만들어졌으므로 백성들도 문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7 자음 기본자는 자음자를 발음할 때의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뜨는 상형의 원리로 창제되었다.

오답 해설

- ① 가획의 원리란 기본자에 획을 더해 소리가 세짐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글자를 만든 것이다.
- ② 병서의 원리란 자음자 두 글자나 세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붙여 쓰는 방식으로 글자를 만든 것이다.
- ④ 연서의 원리란 자음자 두 글자를 위아래로 이어 쓰는 방식으로 글자를 만든 것으로, 'ㄹ, ㅂ, ㅃ, ㅍ' 등의 아래에 'ㅇ'을 이어 쓰는 방식을 말한다.
- ⑤ 합성의 원리란 모음자를 합하여 새로운 글자를 만든 것이다.

8 한글은 표음 문자이므로 자음 기본자 역시 글자 하나마다 일정한 소리를 나타낸다(ㄱ). 자음 기본자는 다른 자음자를 만드는 데 기본이 되는 글자이다(ㄴ).

오답 해설

- ㄷ. 자음 기본자에 해당하는 글자는 'ㄱ, ㄴ, ㄹ, ㅂ, ㅅ, ㅇ'이다.
- ㄹ. 자음 기본자는 해당 자음을 발음할 때의 발음 기관 모양을 반영하여 만들었다.

9 자음 기본자에서 본뜬 발음 기관의 모양은 해당 자음을 발음할 때 소리 나는 위치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ㄹ'은 두 입술 사이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입(입술)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

오답 해설

- ② 'ㄴ'은 혀바닥이 아니라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
- ③ 'ㄹ'은 입천장이 아니라 입(입술)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
- ④ 이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기본자는 'ㅅ'이 아니라 'ㅂ'이다.
- ⑤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기본자는 'ㅎ'이 아니라 'ㅇ'이다.

10 ㉓의 자음자는 모두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소리가 세짐을 나타내는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11 가획의 원리란 소리가 세짐에 따라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다른 자음자를 만든 원리이다.

12 'ㄴ, ㄷ, ㅌ'은 모두 잇몸소리로 소리 나는 위치가 같아 글자 모양도 비슷하다. 'ㄷ'은 예사소리, 'ㅌ'은 거센소리로 'ㄷ'에 획을 더하여 소리가 세짐을 글자 모양에 반영하였다.

오답 해설

- ㄱ. 소리를 내는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ㄴ'은 울림소리이면서 비음이고, 'ㄷ, ㅌ'은 안울림소리이면서 파열음이다. 따라서 소리 내는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글자 모양의 유사성과 관련

지어 설명하기는 어렵다.

ㄹ. 'ㄴ'에 획을 더해 'ㄷ'을 만들 때, 그 획을 소리의 울림 여부와 관련짓기는 어렵다. 'ㄷ'에 획을 더해 'ㅌ'을 만들었지만 'ㄷ'과 'ㅌ'은 둘 다 안울림소리이므로, 획을 더한 것과 소리의 울림 여부는 관련이 없다.

13 'ㅃ'은 같은 자음자 'ㅂ'을 가로로 나란히 붙여 써서 만든 글자이고, 'ㅍ'은 서로 다른 자음자인 'ㄹ'과 'ㅍ'을 가로로 나란히 붙여 써서 만든 글자이다.

14 된소리 'ㅃ, ㅆ, ㅈ, ㅊ'은 각각 'ㄱ, ㄷ, ㅂ, ㅅ, ㅈ'을 중복하여 옆으로 나란히 붙여 쓰는 방식으로 만들었고, 이를 통해 강하고 단단한 느낌을 주는 된소리의 특성을 글자 모양에 반영하였다.

15 'ㅇ, ㅅ, ㅎ'의 이름은 각각 '옛이음', '반치음', '여린히음'으로 오늘날에는 사라진 글자들이다(ㄱ). 'ㅅ'은 'ㅂ'에 획을 더하여 만들어졌지만 획을 더할수록 소리가 세지지 않으므로 가획자가 아니라 이체자에 해당한다(ㄹ).

오답 해설

- ㄴ. 'ㅎ'은 'ㅇ'에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로 만든 글자이다.
- ㄷ. 'ㅇ'은 'ㅇ'에 획을 더하였지만 소리가 세지지 않는 예외 글자인 이체자이다.

16 모음 기본자 'ㅏ, ㅑ, ㅣ'는 각각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뜨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고(ㄷ), 다른 모음자를 만드는 데 기본이 되는 글자이다(ㄴ). 모음 기본자 중 'ㅓ'는 오늘날에 쓰이지 않는 글자이다(ㄱ).

17 기본자 'ㅣ'는 '상형'의 원리로, 초출자 'ㅊ, ㅋ'와 재출자 'ㅉ, ㆁ'은 '합성'의 원리로 만들었다.

18 'ㅓ'와 'ㅡ'를 합하여 'ㅕ'가, 'ㅗ'와 'ㅛ'를 합하여 'ㅜ'가 만들어졌다. 'ㅓ'에 'ㅛ'를 한 번 더 합하여 'ㅝ'가, 'ㅜ'에 'ㅛ'를 한 번 더 합하여 'ㅠ'가 만들어졌다.

19 ㉑은 기본자 'ㅣ, ㅡ'에 'ㅛ'를 합하여 만든 초출자이고, 이 초출자에 다시 'ㅛ'를 합하여 만든 재출자가 ㉒이므로 ㉑이 먼저 만들어진 후에 ㉒이 만들어졌다.

오답 해설

- ① 초출자 ㉑은 'ㅣ, ㅡ'에 'ㅛ'를 합하여 만들었다.
- ② 재출자 ㉒은 초출자에 'ㅛ'를 다시 합하여 만들었다.
- ③ 초출자 ㉑과 재출자 ㉒은 모두 합성의 원리로 만들었다.
- ④ 초출자 ㉑은 단모음, 재출자 ㉒은 이중 모음을 나타낸다.

20 'ㄹ'은 'ㄱ'과 'ㄴ'을 합하여 만든 모음자이다.

21 '우유'에 쓰인 모음자는 'ㅜ'와 'ㅠ'이다. 'ㅜ'는 초출자로 'ㅡ'에 'ㅛ'를, 'ㅠ'는 재출자로 'ㅜ'에 'ㅛ'를 합하여 만든 합성의 원리로 창제되었다.

22 이 동영상은 디지털·정보화 시대에 한글이 다른 문자보다 유리한 까닭을 휴대 전화 문자 입력이 빠르다는 것과 인공 지능의 음성 정보 활용에 탁월하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23 이 동영상에서 일본어의 가나와 중국어의 한자(간체자) 입력 시에는 변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한글은 그런 전환 표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문자 입력 속도가 7~8배나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휴대 전화 문자 입력과 한글이 배우기 쉬운 문자라는 것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③ 한글뿐만 아니라 모든 문자는 어떤 내용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이 동영상에서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실험하였다고 하였을 뿐, 한글이 문자 입력 시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 ⑤ 한글은 글자 하나하나가 일정한 소리를 나타내는 표음 문자이다.

24 이 동영상에서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를 내기 때문에 인공 지능의 음성 정보 활용에 탁월하다고 하였다. 소리와 글자가 일대일로 대응하면 디지털 기기가 음성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서 인공 지능의 음성 정보 활용에 유리할 수 있다.

25 중국어 한자와 일본어 가나는 자판 입력 시 변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자판 입력 방식이 복잡하고 속도가 느린 반면, 한글은 그러한 변환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자판 입력 방식이 간단하고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26 한글 'ㅏ'는 [아]로만 소리가 나지만, 알파벳 'a'는 [에], [에이], [아] 등 다양한 소리로 발음된다. 따라서 한글은 말한 소리를 문자로 바로 바꾸기 쉽기 때문에 음성 인식 기술에 더 유리하다.

27 알파벳은 하나의 글자가 여러 가지로 발음되는 데 비해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로 발음되므로 음성을 문자로 변환하는 음성 인식 기술에 유리하다.

오답 해설

- ③ 제시된 자료에서 한글과 알파벳은 모두 하나의 글자가 의미가 아니라 특정 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28 우리말은 음절 단위로 읽고 쓰기 때문에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를 한 ㉠이 ㉡에 비해 읽기가 쉽고 의미를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다.

29 (가)에서 한글은 '정보 전달의 효율성이 뛰어나다'고 하였고, (나)에서 한글은 '글자 하나가 가진 정보량이

많아 줄어들기 이전의 말을 추측하기 쉽다'고 하였으므로 두 글의 글쓴이 모두 한글을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글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30 (가)의 글쓴이는 <보기>의 현상에 대해 우리말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고, (나)의 글쓴이는 모아쓰기나 한글의 자형과 창제 원리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정이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본문 140~143쪽

소단원 예상 문제

1 ⑤ 2 ④ 3 ⑤ 4 ④ 5 ① 6 ③ 7 ⑤
 8 ③ 9 ㉠ ㉡, ㉢, ㉣, ㉤, ㉥, ㉦ ㉧ 상형 ㉨ 발음 기관 ㉩ 하
 늘, 땅, 사람 10 ③ 11 ⑤ 12 ② 13 ⑤
 14 ③ 15 ④ 16 ③ 17 ② 18 ④
 19 (가)의 글쓴이는 '우리말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라고 표현하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는 반면, (나)의 글쓴이는 '글자를 모아쓰도록 고안한 세종의 의도를 재확인하는 작업'이고 '한글의 자형과 창제 원리를 되새기는 과정'이라고 하여 긍정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다.

1 이 글의 끝부분에서 모든 사람이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해 주고 싶어서 한글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지배층이 백성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라고 글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백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쉽게 익혀 실생활에서 쓸 수 있도록 글자를 만든 것이고, 여기에 실용 정신이 담겨 있다.

2 ㉠은 오늘날의 한글인 훈민정음으로, 중국 말을 표기하는 한자와 달리 우리나라 말을 표기하는 우리 글자가 필요하여 만들었다. 한자를 더 이상 쓰지 않도록 했다는 내용은 글에 나타나 있지 않고, 실제로 한자는 훈민정음과 별도로 계속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 ①, ② '세종이 직접 훈민정음을 만들다'라는 제목에서 한글의 원래 이름과 창제자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훈민정음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인 한글의 원래 이름이다.
- ⑤ 우리나라 말이 중국 말과 달라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한글을 만들었다고 하였으므로, 한글은 우리나라 말을 표기하는 데 적합한 글자라고 할 수 있다.

3 자음자는 기본자 다섯 자를 만든 후에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가획자를 만들었고, 모음자는 기본자 세 자를 만든 후에 기본자를 합하여 초출자를 만들고 초출자에 다시 기본자 'ㆍ'를 합하여 재출자를 만들었다. 따라서 자음자와 모음자 모두 기본자를 먼저 만든 후에 이를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나머지 글자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④ 자음 기본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 모음 기본자는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 ② 기본자에 획을 더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글자를 만든 것은 모음자가 아니라 자음자이다.
- ③ 기본자를 서로 합하는 방식으로 다른 글자를 만든 것은 자음자가 아니라 모음자이다.

4 ‘ㅅ’은 이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5 기본자 ‘ㄱ, ㄴ, ㄹ, ㅁ, ㅂ, ㅇ’에 획을 더하여 소리가 더 세짐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글자를 만든 원리는 가획의 원리이다.

6 ㉠과 ㉡은 모두 이미 만들어진 자음자를 옆으로 나란히 붙이는 병서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이다. ㉠은 같은 자음자를, ㉡은 서로 다른 자음자를 붙여 써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오답 해설

- ㄱ. ㉠은 이미 만들어진 자음자를 가로로 나란히 붙여 쓰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 ㄴ. ㉠과 ㉡은 모두 자음자를 세로가 아닌 가로로 붙여 쓰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7 거친 느낌을 주는 소리는 거센소리 ‘ㅋ, ㅌ, ㅍ, ㅊ, ㅎ’ 등을 말한다. 이 글자들은 자음자를 합쳐서 만든 것이 아니라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소리가 세짐을 나타내는 가획의 원리로 만들었다.

오답 해설

- ① 자음자 중 가획의 원리로 만든 가획자의 경우,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소리가 더 세짐을 글자 모양에 반영하였다.
- ② 자음자 중 병서의 원리로 만든 글자의 경우, 같은 자음자를 나란히 붙여 써서 소리가 더 강하고 단단해지는 느낌을 주는 된 소리를 나타내었다.
- ③ ‘ㄱ, ㅋ’, ‘ㄴ, ㄷ’, ‘ㄹ, ㄷ’ 등과 같이 소리 나는 위치가 같은 자음자는 글자 모양도 비슷하게 만들었다.
- ④ 자음 기본자 ‘ㄱ, ㄴ, ㄹ, ㅁ, ㅂ, ㅇ’은 각각 발음할 때 소리 나는 위치의 발음 기관 모양을 본뜨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다.

8 ‘ㅅ’은 자음 기본자로 이의 모양을 본뜨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고, 나머지 ‘ㄷ, ㅂ, ㅈ, ㅎ’은 모두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소리가 세짐을 나타내는 가획의 원리로 만든 가획자이다.

- 9 (1) 자음 기본자에는 ‘ㄱ, ㄴ, ㄹ, ㅁ, ㅂ, ㅇ’이 있다.
- (2) 자음 기본자와 모음 기본자는 모두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본뜬 대상이 각각 발음 기관의 모양과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이라는 차이가 있다.

10 ㉠의 초출자 ‘ㄱ, ㄴ’은 기본자 ‘ㄱ’에 ‘ㅇ’을 합하고, ‘ㄴ, ㄷ’은 기본자 ‘ㄴ’에 ‘ㅇ’을 합하는 합성의 원리로 만들었다.

오답 해설

- ① ㉠과 ㉡에 공통으로 적용된 창제 원리는 합성의 원리이다.
- ② ㉠에서 새로 만든 초출자 ‘ㄱ, ㄴ, ㄷ, ㄹ’과 ㉡의 재출자 ‘ㅁ, ㅂ, ㅅ, ㅆ’는 모두 오늘날에도 쓰이는 글자이다.
- ④ ㉡은 기본자 ‘ㄱ, ㄴ’에 ‘ㅇ’을 한 번 합한 초출자에 ‘ㅇ’을 한 번 더 합하여 재출자 ㉡을 만들었다.
- ⑤ ㉠의 초출자는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 단모음이고, ㉡의 재출자는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이중 모음이다.

11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뜬 기본자는 ‘ㅣ’, 하늘의 모양을 본뜬 기본자는 ‘ㅇ’이므로 [1단계]에서 만들어진 글자는 ‘ㅏ, ㅑ’이다. 여기에 다시 ‘ㅇ’을 합하여 [2단계]에서 만들어진 글자는 ‘ㅓ, ㅕ’이다. 여기에 다시 ‘ㅣ’를 합하여 [3단계]에서 완성한 글자는 ‘ㅗ, ㅛ’이다.

12 초성에서 입 모양을 본뜬 기본자 ‘ㅁ’에 가획하여 만든 가획자는 ‘ㅂ, ㅍ’이다. 중성에서 기본자 ‘ㄱ’에 ‘ㅇ’을 한 번 합하여 만든 초출자는 ‘ㄱ, ㄷ’이다. 중성에서 설명하는 이체자는 ‘ㄴ, ㄹ, ㄷ’이다. 따라서 정답은 ‘ㅂ’이다.

13 ‘ㅈ, ㅊ’은 기본자 ‘ㅈ’에 획을 더하여 소리가 세짐을 나타내는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진 자음자이다.

오답 해설

- ① ‘창제’에 쓰인 자음자는 ‘ㅈ, ㅇ, ㅈ’ 세 개, 모음자는 ‘ㅏ, ㅑ’ 두 개이다.
- ② 모음자 ‘ㅏ, ㅑ’ 중, ‘ㅏ’는 초출자이고, ‘ㅑ’는 창제 모음자 11자에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 모음자이다.
- ③ 땅의 평평한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는 모음자 ‘ㅡ’인데, ‘창제’에는 ‘ㅡ’가 쓰이지 않았다.
- ④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자음자인 기본자 ‘ㄱ, ㄴ, ㄹ, ㅁ, ㅂ, ㅇ’ 중 ‘ㅇ’이 사용되었다.

14 ‘ㅁ, ㅂ, ㅍ’은 모두 입술소리로 기본자 ‘ㅁ’에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로 만들었다. 이들은 글자 모양이 비슷하여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나는 자음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ㄱ, ㄴ, ㅇ’은 모두 여린입천장소리로 소리 나는 위치가 같지만, ‘ㄱ, ㄴ’과 ‘ㅇ’의 글자 모양은 서로 다르다.
- ② ‘ㄴ, ㄹ, ㅅ’은 모두 잇몸소리로 소리 나는 위치가 같지만, ‘ㄴ, ㄹ’과 ‘ㅅ’의 글자 모양은 서로 다르다.
- ④ ‘ㅋ, ㅌ, ㅊ’은 각각 여린입천장소리, 잇몸소리, 센입천장소리로 소리 나는 위치가 서로 다르다.
- ⑤ ‘ㅌ, ㅍ, ㅆ’ 중 ‘ㅌ, ㅆ’은 잇몸소리이고, ‘ㅆ’은 센입천장소리로 소리 나는 위치가 서로 다르다.

15 ㉠에서 ‘ㅏ’는 [아]로만 소리가 나지만 ‘ㅑ’는 [애], [에 이], [아]로 다양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하나의 글자로 많은 소리를 표현하는 것은 한글이 아니라 오히려 영어 알파벳이라고 할 수 있다.

16 음절은 독립적으로 발음할 수 있는 말소리의 단위이기 때문에 소리 내어 읽을 때의 최소 단위는 음절이다. 따라서 음절 단위로 표기하는 모아쓰기가 소리 내어 읽을 때 더 유리한 표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의 풀어쓰기와 ㉡의 모아쓰기는 한글의 자음자와 모음자를 표기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것이다.
- ② ㉠은 자음자와 모음자를 하나하나 늘어놓아 표기하고 있으므로 음소 단위의 표기에 해당한다. 또한 음절을 이루는 초성, 중성, 종성의 음소를 차례대로 늘어놓아 표기하고 있다.
- ④ ㉡은 자음자와 모음자를 가로세로로 조합하여 독립적으로 발음할 수 있는 말소리의 단위인 음절 단위로 표기하고 있다.
- ⑤ ㉡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모아쓰기 방식으로, 음절 단위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에 비해 읽기가 쉽고 뜻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7 (가)는 맞춤법에 맞지 않는 말, 지나치게 줄인 말 등 우리말이 파괴되는 현상을 다루고 있다.

18 (나)에서 ‘버스 카드 충전(Bus Card Charging)’의 줄임말은 ‘비시시(BCC)’라고 하였고, ‘빠카충’은 ‘버스 카드 충전’을 줄인 말이다. 따라서 ‘빠카충’은 영어를 줄여 쓴 말이라고 볼 수 없다.

19 [서술형] (가)와 (나)는 디지털 소통 공간에서 새말, 준말, 맞춤법에 맞지 않는 말 등이 사용되는 현실을 다루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가)의 글쓴이는 우리말이 파괴되고 있다고 하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나)의 글쓴이는 모아쓰기에 담긴 세종 대왕의 의도나 한글의 자형과 창제 원리를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중간·기말 시험 대비 문제 본문 144~149쪽

1 ⑤ 2 ③ 3 ① 4 ③ 5 ④ 6 ㉠: 뒤쪽, 쇠뿔, 오돌토돌 ㉡: 렌즈, 매일, 아장아장 7 ㉠ | ㉡ ㉢ | ㉢ ㉠ | ㉢ ㉠ | ㉢ ㉠

8 ④ 9 ③ 10 ④ 11 ④ 12 ㉠: 마찰음 ㉡: 파열음 ㉢: 파찰음 13 ⑤ 14 ⑤ 15 ②

16 ③ 17 ③ 18 ② 19 ④ 20 ① 21 ②

22 ② 23 ⑤ 24 ⑤ 25 ② 26 ④ 27 ③

28 ② 29 자음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소리가 세짐을 나타내는 가획의 원리로 만들었다. 30 ③ 31 ① 32 ①

33 ⑤ 34 ①

1 음운은 그 자체로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기능을 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오답 해설

- ① 현대 국어의 자음은 19개, 모음은 21개이다.
- ② 모음의 경우, 모음 하나만으로 독립적으로 발음할 수 있다.
- ③ 음절의 초성과 종성에 자음이, 종성에 모음이 쓰인다.
- ④ 현대 국어 표준어에서는 자음과 모음 이외에 소리의 길이만을 음운으로 인정한다.

2 ‘수박’은 ‘ㅅ, ㅊ, ㅂ, ㅏ, ㅑ’으로, ‘주박’은 ‘ㅈ, ㅊ, ㅁ, ㅏ, ㅑ’으로 음운이 분석된다. 따라서 하나의 음운이 아니라 ‘ㅅ, ㅂ’과 ‘ㅈ, ㅁ’ 두 개의 음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최소 대립쌍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은 ‘ㅂ’과 ‘ㅈ’에 의해, ②는 ‘ㅏ’와 ‘ㅑ’에 의해, ④는 ‘ㅑ’과 ‘ㅂ’에 의해, ⑤는 ‘ㅏ’와 ‘ㅑ’에 의해 단어의 뜻이 구별되는 최소 대립쌍이다.

3 ㉠에 쓰인 음운은 ‘ㄱ, ㅏ, ㅊ, ㄴ, ㄷ, ㅑ’로 6개이고, ㉡에 쓰인 음운은 ‘ㄱ, ㅏ, ㄴ, ㅑ’로 4개이다.

오답 해설

- ② ㉠과 ㉡에 공통으로 쓰인 모음은 ‘ㅏ’ 한 개이다.
- ③, ④ ㉠에 쓰인 자음은 ‘ㄱ, ㄴ, ㄷ’ 3개이고, ㉡에 쓰인 자음은 ‘ㄴ’ 1개로, ㉠과 ㉡에는 동일한 자음이 쓰이지 않았다.
- ⑤ ㉠의 ‘가’와 ‘데’, ㉡의 ‘래’는 ‘자음+모음’으로, ㉠의 ‘운’은 ‘모음+자음’으로 이루어진 음절이다. ㉡의 ‘위’와 ‘아’는 모음 하나로 이루어진 음절이다. 따라서 ㉡에만 모음 하나로 이루어진 음절이 있다.

4 ㉠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단모음이고, ㉡은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이중 모음이다.

5 혀의 높이에 따라 분류할 때 혀의 높이가 가장 낮은 저모음은 ‘ㅏ, ㅑ’이다. ‘양파’의 ‘ㅑ’에 저모음 ‘ㅏ’가 쓰였다.

오답 해설

- ①의 ‘ㅣ’, ②의 ‘ㅡ’, ③의 ‘ㅜ’는 고모음이다.
- ⑤의 ‘ㅓ’는 중모음이다.

6 ㉠은 원순 모음, ㉡은 평순 모음을 발음할 때의 입술 모양이다. ‘뒤쪽, 쇠뿔, 오돌토돌’에는 원순 모음 ‘ㄱ, ㅊ, ㅊ, ㅊ’가 쓰였다. ‘렌즈, 매일, 아장아장’에 쓰인 ‘ㄱ, ㅡ, ㅑ, ㅣ, ㅏ’는 평순 모음에 해당한다.

7 전설 모음 중에서 평순 모음이고 고모음인 것은 ‘ㅣ’, 원순 모음이고 중모음인 것은 ‘ㅓ’이다. 후설 모음 중에서 평순 모음이고 저모음인 것은 ‘ㅏ’, 원순 모음이고 중모음인 것은 ‘ㅑ’이다.

8 고모음은 ‘ㅣ, ㅡ, ㅜ, ㅠ’이다. ‘물줄기’에 쓰인 ‘ㄱ, ㅍ, ㅌ’, ‘귀국길’에 쓰인 ‘ㄱ, ㅍ, ㅌ’, ‘누구든’에 쓰인 ‘ㄱ, ㅍ, ㅌ’는 모두 고모음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 ‘산속’에 쓰인 ‘ㅅ’는 저모음, ‘ㅇ’는 중모음이다.
- ㉡ ‘오랜’에 쓰인 ‘ㅇ’는 중모음, ‘ㄹ’는 저모음이다.
- ㉢ ‘외로움’에 쓰인 ‘외’와 ‘ㅇ’는 중모음, ‘ㅍ’는 고모음이다.

9 첫째 음절에 쓰인 모음은 후설 모음이면서 평순 모음이므로 ‘ㅡ, ㅜ, ㅠ’이고, 둘째 음절에 쓰인 모음은 전설 모음이면서 중모음이므로 ‘ㅐ, ㅓ’이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도시 이름은 첫째 음절에 ‘ㅜ’가, 둘째 음절에 ‘ㅐ’가 쓰인 ‘거제’이다.

10 ‘츠’는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분류할 때 혀바닥과 셴입천장 사이에서 소리가 나는 셴입천장소리이다.

오답 해설

- ㉠ ‘ㄱ’은 혀의 뒷부분과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소리가 나는 여린입천장소리이다.
- ㉡ ‘ㅂ’은 아랫입술과 윗입술 사이에서 소리가 나는 입술소리이다.
- ㉢ ‘ㅌ’은 혀끝과 윗잇몸 사이에서 소리가 나는 잇몸소리이다.
- ㉣ ‘ㅎ’은 목청에서 소리가 나는 목청소리이다.

11 ‘멍멍, 야옹, 날리리’에 쓰인 자음 ‘ㄴ, ㄹ, ㅁ, ㅇ’은 발음할 때 코안이나 입안이 울리면서 소리가 나는 울림소리이다. 울림소리에 해당하는 음운은 자음 중 ‘ㄴ, ㄹ, ㅁ, ㅇ’과 모든 모음이다.

12 ㉠~㉣은 안울림소리로, 소리를 내는 방법에 따라 ㉠은 마찰음, ㉡은 파열음, ㉢은 파찰음으로 분류된다.

13 비음은 ‘ㄴ, ㄹ, ㅇ’이다. ‘일류’에 쓰인 자음 ‘ㄹ’은 비음이 아니라 유음이다. 유음은 공기를 코로 내보내는 소리가 아니라,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 떼거나 혀끝을 윗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려 보내는 소리이다.

오답 해설

- ㉠ ‘나눔’의 ‘ㄴ, ㅁ’, ㉡ ‘낭만’의 ‘ㄴ, ㅇ, ㅁ’, ㉢ ‘마음’의 ‘ㅁ’, ㉣ ‘양념’의 ‘ㅇ, ㄴ, ㅁ’은 비음이다.

14 발음할 때 숨이 거세게 터져 나오는 소리는 거센소리이다. 거센소리에 해당하는 자음은 ‘ㅌ’이다. ‘ㅌ’은 된소리로 성대 근육이 긴장되면서 나는 소리이다.

15 혀끝과 윗잇몸 사이에서 소리 나는 잇몸소리는 ‘ㄷ, ㅌ, ㅊ, ㅍ, ㅌ, ㄷ, ㅌ’이고, 그중 코안이나 입안이 울리지 않는 안울림소리는 ‘ㄷ, ㅌ, ㅊ, ㅍ, ㅌ’이다. 그중 공기를 막았다가 터뜨리며 소리를 내는 파열음은 ‘ㄷ, ㅌ, ㅊ’이고, 그중 소리의 세기가 강하고 단단한 느낌을 주는 된소리는 ‘ㅌ’이다.

16 제시된 표를 보면,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ㅅ, ㅆ’은 잇몸소리, ‘ㅎ’은 목청소리로 분류되어 소리 나는 위치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오답 해설

- ㉠ ‘ㅅ, ㅆ, ㅎ’은 코안이나 입안이 울리지 않는 안울림소리로 분류되어 있다.
- ㉡ ‘ㅅ, ㅆ’과 ‘ㅎ’은 모두 마찰음이다.
- ㉣ ‘ㅆ’은 된소리이므로 예사소리 ‘ㅅ’에 비해 강하고 단단한 느낌을 주는 소리이다.
- ㉤ ‘ㅎ’은 예사소리와 된소리의 구분이 없으므로 소리의 세기에 따라 분류하지 않는 자음임을 알 수 있다.

17 ‘파’의 모음 ‘ㅏ’와 ‘래’의 모음 ‘ㅐ’는 모두 혀의 높이에 따라 분류할 때 저모음에 해당하므로 혀의 높이를 가장 낮추어 발음해야 한다.

오답 해설

- ㉠ ‘파’의 자음 ‘ㅍ’은 안울림소리이고, ‘래’의 자음 ‘ㄹ’은 울림소리이다. 따라서 ‘래’의 자음만 코안이나 입안이 울리면서 소리가 난다.
- ㉡ ‘파’의 자음 ‘ㅍ’은 셴입천장소리가 아니라 입술소리이고, ‘래’의 자음 ‘ㄹ’은 잇몸소리이다.
- ㉣ ‘파’의 모음 ‘ㅏ’는 후설 모음이고, ‘래’의 모음 ‘ㅐ’는 전설 모음이다. 따라서 ‘파’의 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입안의 뒤쪽에 있다.
- ㉤ ‘파’의 자음 ‘ㅍ’은 파열음이고, ‘래’의 자음 ‘ㄹ’은 유음이다.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며 내는 소리는 비음으로 ‘파래’에는 쓰이지 않았다.

18 ‘생쥐’에 쓰인 모음 ‘ㅐ’와 ‘ㅑ’는 모두 단모음이므로 ‘생쥐’는 이중 모음을 발음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는 관련이 없는 단어이다.

오답 해설

- ㉠의 ‘ㅐ’, ㉢의 ‘ㅑ’, ㉣의 ‘ㅑ’, ㉤의 ‘ㅑ’는 이중 모음이다.

19 여린입천장소리이면서 비음인 자음은 ‘ㅇ’이고, 원순 모음이면서 후설 모음이고 고모음인 모음은 ‘ㅜ’이다. 자음 ‘ㅇ’과 모음 ‘ㅜ’가 모두 쓰인 단어는 ‘둥’이다.

오답 해설

- ㉤ ‘욱’에 쓰인 자음은 ‘ㄱ’ 하나이고, ‘우’의 초성에 쓰인 ‘ㅇ’은 소릿값이 없으므로 자음이 아니다. 따라서 ‘욱’에는 자음 ‘ㅇ’이 쓰이지 않았다.

20 ‘각도기’의 올바른 발음은 [각또기]이다. ‘각도기’에 쓰인 ‘ㄷ’은 첫음절이 아닌 둘째 음절의 첫소리이므로 <보기>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21 ‘개’와 ‘개’는 둘 다 전설 모음이고 평순 모음이지만, 각각 저모음, 중모음이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개’를 발음할 때는 ‘개’를 발음할 때보다 혀의 높이를 더 낮추고 입을 최대한 크게 벌려 발음한다.

22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글을 몰라 제 뜻을 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한글을 창제하였다고 했으므로 백성들의 요구로 한글을 만든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③ 오늘날은 모음자 21자, 자음자 19자이고, 창제 당시에는 모음자 11자, 자음자 17자였다.

23 자음 기본자는 ‘ㄱ, ㄴ, ㄷ, ㅅ, ㅇ’ 5자이고, 가획자는 ‘ㅋ, ㆁ, ㅌ, ㅍ, ㅊ, ㅍ, ㅆ, ㅎ’ 9자이고, 이체자는 ‘ㄹ, ㅍ, ㅇ’ 3자이다.

24 자음 기본자 ‘ㅅ’에 획을 더해 만든 글자인 ‘ㅆ’ 두 개를 옆으로 나란히 써서 만든 글자는 ‘ㅆ’이다.

오답 해설

- ① ‘ㅋ’은 자음 기본자 ‘ㄱ’에 획을 더해 만든 글자이다.
- ② ‘ㄷ’은 자음 기본자 ‘ㄴ’에 획을 더해 만든 글자이다.
- ③ ‘ㅆ’은 자음 기본자 ‘ㅅ’에 획을 더해 만든 글자 ‘ㅅ’과 자음 기본자 ‘ㅅ’을 옆으로 나란히 써서 만든 글자이다.
- ④ ‘ㅆ’은 자음 기본자 ‘ㅅ’ 두 개를 옆으로 나란히 써서 만든 글자이다.

25 ‘ㅂ’은 자음 기본자 ‘ㅁ’에 획을 더하여 소리가 세짐을 나타내는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이다.

오답 해설

- ① ‘ㅇ’은 ‘ㅇ’에 획을 더하였으나 소리가 세짐을 나타내지 않는 이체자이다.
- ③ ‘ㄱ’은 같은 자음자 ‘ㄱ’을 옆으로 나란히 붙여 쓰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 ④ ‘ㄹ’은 ‘ㄴ’에 획을 더하였으나 소리가 세짐을 나타내지 않는 이체자이다.
- ⑤ ‘ㅅ’은 이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

26 ‘ㅋ, ㅌ, ㅍ, ㅆ’은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소리가 세짐을 나타내는 가획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글자로, 거센소리를 나타낸다(ㄱ).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ㄴ’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ㄹ’은 입(입술)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이다(ㄴ). ‘ㄱ, ㅌ, ㅍ, ㅆ, ㅆ’은 같은 소리를 가로로 나란히 적어서 만든 글자로, 된소리를 나타낸다(ㄹ).

오답 해설

ㄷ, ‘ㅁ, ㅂ, ㅍ’은 입술소리로 소리 나는 위치는 같지만,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ㅁ’은 울림소리면서 비음이고, ‘ㅂ, ㅍ’은 안울림소리면서 파열음이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소리 내는 방법이 같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27 ‘ㅇ, ㅡ, ㅣ’는 모음 기본자로, 각각 하늘의 둥근 모양, 땅의 평평한 모양,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28 기본자 ‘ㄴ’에 ‘ㅇ’을 합하여 초출자 ‘ㄴㅇ, ㄴㅇ’를, 기본자 ‘ㅣ’에 ‘ㅇ’을 합하여 초출자 ‘ㅣㅇ, ㅣㅇ’를 만들었다.

오답 해설

- ① ㉠: 기본자 ‘ㄴ’과 ‘ㅣ’를 서로 합한 것이 아니라, 기본자 ‘ㄴ, ㅣ’에 ‘ㅇ’을 합해 초출자를 만들었다.
- ③, ④, ⑤ ㉡: 초출자 ‘ㄴㅇ, ㄴㅇ, ㅣㅇ, ㅣㅇ’에 ‘ㅇ’을 한 번 더 합해 재출자 ‘ㄴㅇㅇ, ㄴㅇㅇ, ㅣㅇㅇ, ㅣㅇㅇ’를 만들었다.

29 [서술형] ‘ㄷ’은 기본자 ‘ㄴ’에, ‘ㅂ’은 기본자 ‘ㅁ’에, ‘ㅆ’은 기본자 ‘ㅅ’에 각각 획을 더하여 소리가 세짐을 나타내는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30 ‘ㄴ’에 ‘ㅇ’을 합하여 만든 글자 ‘ㄴㅇ, ㄴㅇ’에 ‘ㅇ’을 한 번 더 합하여 만든 글자는 재출자 ‘ㄴㅇㅇ, ㄴㅇㅇ’이다. ‘ㄴㅇ, ㄴㅇ’은 발음하는 도중에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변하는 이중 모음에 해당한다.

31 자음자 중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글자는 기본자 ‘ㄴ’이고, ‘ㄴ’에 획을 더하였으나 소리가 세지지 않는 글자는 이체자 ‘ㄹ’이다. 모음자 중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는 기본자 ‘ㅣ’이고, ‘ㅣ’에 ‘ㅇ’을 합하여 만든 초출자는 ‘ㅣㅇ, ㅣㅇ’이다. 따라서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단어는 ‘나리’이다.

32 ‘꿈을 키우는 나’에 쓰인 모음 ‘ㅜ, ㅡ, ㅣ, ㅏ’는 모두 단모음이다. 이중 모음은 쓰이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② ‘ㅛ’는 병서의 원리로 만들어진 된소리이다.
- ③ ‘ㅋ’은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진 거센소리이다.
- ④ ‘ㅡ, ㅣ’는 모음 기본자이고, ‘ㅁ, ㄴ’은 자음 기본자이다.
- ⑤ ‘ㅁ’은 입술소리, ‘ㄴ, ㄹ’은 잇몸소리, ‘ㄱ, ㅋ’은 여린입천장소리이다.

33 중국어 한자의 자판 입력 방식의 경우, 중국어 발음을 영어로 찾은 후 이를 한자로 바꾸는 변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한글은 자판을 입력하면 바로 문자가 완성되므로 자판 입력이 쉽고 빠르다(ㄷ). 또한 뜻을 나타내는 글자인 한자와 달리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글자인 한글은 글자 수가 적어 대부분의 글자를 자판에 표시할 수 있고 이를 입력하여 거의 모든 말을 표현할 수 있다(ㄷ).

오답 해설

- ㄱ. 제시된 자료에서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글자’라고 하였다. 즉, 한글은 뜻을 나타내는 글자가 아니라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이다.
- ㄴ. 글자 모양의 유사성이 발음의 유사성과 관련이 있는 내용은 제시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다.

34 영어의 알파벳은 자음자와 모음자를 차례대로 늘어놓아 쓰는 풀어쓰기 방식을 따르고 있지만, ㉠의 한글은 자음자와 모음자를 가로세로로 묶어 쓰는 모아쓰기 방식을 따르고 있다.

오답 해설

- ②, ⑤ 모아쓰기는 독립적으로 발음할 수 있는 단위인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 때문에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③ 모아쓰기는 풀어쓰기와 달리 자음자와 모음자를 가로세로로 묶어 쓰는 방식이다.
- ④ ㉠과 ㉡을 비교해 보면 음절 단위의 모아쓰기(㉠)가 음소 단위의 풀어쓰기에 비해 문장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장 길이가 짧아지면 읽는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서술·논술형 대비 문제

본문 150~153쪽

- 1 ㉠ 'ㄱ'과 'ㅌ' ㉡ 'ㄹ'과 'ㄴ' ㉢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 2 ㉡~㉢에서 알 수 있는 음운의 종류는 소리의 길이이다. 왜냐하면 ㉡~㉢에 각각 제시된 두 단어를 이루는 자음과 모음이 같지만 소리의 길이가 달라 뜻이 구별되기 때문이다.
- 3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 4 단모음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ㅞ'는 전설 모음, 평순 모음, 저모음이고, 'ㅟ'는 전설 모음, 평순 모음, 중모음이다. 따라서 'ㅞ'와 'ㅟ'는 저모음과 중모음이라는 차이만 있으므로 'ㅞ'를 발음할 때는 'ㅟ'를 발음할 때보다 혀를 더 낮추고 입을 더 크게 벌려 발음한다.
- 5 <보기>의 단어에 쓰인 모음 'ㅜ, ㅝ, ㅠ, ㅡ'는 혀의 높이에 따라 분류할 때 모두 고모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 6 (1) ㄴ, ㄷ (2) ㄴ: 후설 모음, 중모음, 원순 모음, ㄷ: 후설 모음, 중모음, 평순 모음 (3) '이종미'의 '종'을 발음할 때는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고, '이정미'의 '정'을 발음할 때는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는다.
- 7 ㉠ 혀바닥과 셴입천장 사이에서 소리 나는 셴입천장소리이다. ㉡ 코안이나 입안이 울리지 않는 안울림소리이다. ㉢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면서 마찰을 일으키며 소리를 내는 파찰음이다.
- 8 ㉠ 입술소리 ㉡ 여린입천장소리 ㉢ ㄷ, ㅌ, ㅌ
- 9 '남남'에 쓰인 자음 'ㄴ, ㅁ'은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며 소리를 낸다.
- 10 소리의 세기에 따라 분류하면 'ㅂ'은 예사소리, 'ㅃ'은 된소리, 'ㅍ'은 거센소리입니다. 비교적 편안하게 발음하는 'ㅂ'과 달리 'ㅃ'은 성대 근육을 긴장시켜 발음하고, 'ㅍ'은 숨을 세게 터뜨리면서 발음해야 합니다.
- 11 ㉠ 목청소리, 안울림소리, 마찰음 ㉡ 전설 모음, 평순 모음, 고모음
- 12 ㉠ 우리말은 중국 말과 다르므로 중국 말을 표기하는 한자가 아닌,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는 우리 글자가 필요하다. ㉡ 애민 정신 ㉢ 실용 정신
- 13 자음 기본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데 비해, 모음 기본자는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 14 ㉡ 이미 만든 자음자를 옆으로 나란히 써서 새로운 자음자를

만들었다. ㉢ 이미 만든 모음자인 기본자, 초출자, 재출자를 합하여 새로운 모음자를 만들었다.

- 15 ㉠ ㄷ, ㉡ ㅌ, ㉢ ㅍ / 'ㄷ, ㅌ, ㅍ'은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소리가 세짐을 나타내는 가획의 원리로 만들었다.
- 16 초출자와 재출자는 모두 합성의 원리로 만들었다. 초출자는 기본자 'ㄴ, ㄷ'에 'ㅇ'를 한 번 합하여 만들었고, 재출자는 초출자 'ㄴ, ㄷ, ㄷ'에 'ㅇ'를 한 번 더 합하여 만들었다.
- 17 ㉠ 된소리 ㉡ 세고 거친 ㉢ 거센소리
- 18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ㄱ, ㅋ'은 여린입천장소리, 'ㄴ, ㄷ, ㅌ'은 잇몸소리에 해당하는데, 소리 나는 위치가 같다는 말 소리의 특성이 글자 모양의 유사성으로 반영되어 있다.
- 19 (1) 한글 'ㅏ'는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로 나타나지만, 알파벳 'a'는 하나의 글자가 여러 소리로 나타난다. (2) 한글이 알파벳보다 유리하다. 왜냐하면 음성 인식 기술은 사람이 발성한 음성의 의미 내용을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므로 소리와 글자가 일대일로 대응하는 한글이 더 유리하다.

평가 요소 음운의 개념 파악하기

- 1 '물'과 '말'은 중성 'ㄱ'과 'ㅌ'에 의해, '물'과 '문'은 중성 'ㄹ'과 'ㄴ'에 의해 두 단어의 뜻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를 음운이라고 한다.

채점 기준	배점
㉠, ㉡, ㉢을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8점
㉠, ㉡ 중 하나와 ㉢을 적절하게 쓴 경우	6점
㉠, ㉡만 적절하게 쓰거나 ㉢만 적절하게 쓴 경우	4점
㉠, ㉡ 중 하나만 적절하게 쓴 경우	2점

평가 요소 비분절 음운(소리의 길이) 이해하기

- 2 ㉡에 쓰인 두 단어 '눈', ㉢에 쓰인 두 단어 '밤', ㉣에 쓰인 두 단어 '말'은 각각 서로 뜻이 구별되는 단어이다. 그런데 단어를 구성하는 자음과 모음은 같고 소리의 길이만 다르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소리의 길이에 의해 뜻이 구별되므로 소리의 길이도 음운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음운의 종류와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8점
음운의 종류와 그렇게 생각한 까닭 중 하나만 적절하게 쓴 경우	4점
<조건>의 '자음', '모음' 단어가 없거나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모음의 종류 이해하기

- 3 ㉠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단모음이고, ㉡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

치가 변하는 이중 모음이다. 따라서 모음의 두 종류인 단모음과 이중 모음을 분류하는 기준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이다.

채점 기준	배점
㉠과 ㉡의 분류 기준을 <조건>에 맞게 적절하게 쓴 경우	5점
㉠과 ㉡의 분류 기준을 적절하게 썼으나 <조건>에 맞지 않게 쓴 경우	3점

평가 요소 단모음의 체계 이해하기

- 4 ‘개’는 전설 모음, 저모음, 평순 모음이고, ‘개’는 전설 모음, 중모음, 평순 모음이다. ‘개’는 저모음, ‘개’ 중모음이라는 차이만 있으므로 ‘개’를 발음할 때는 ‘개’를 발음할 때보다 혀를 더 낮추고 입을 더 크게 벌려 발음한다.

채점 기준	배점
‘개’와 ‘개’의 종류와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적절하게 쓴 경우	10점
‘개’와 ‘개’의 종류와 문제의 해결 방법 중 하나만 적절하게 쓴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단모음의 체계 이해하기

- 5 ‘부디’에 쓰인 ‘ㄷ, ㅌ’, ‘취미’에 쓰인 ‘ㄱ, ㅋ’, ‘스르르’에 쓰인 ‘ㄴ’은 모두 혀의 높이를 기준으로 분류할 때 혀의 높이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는 고모음이다.

채점 기준	배점
단어에 쓰인 모음을 모두 정확히 찾고, 그 모음의 공통점을 분류 기준이 드러나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6점
단어에 쓰인 모음들의 공통점을 썼으나,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4점
단어에 쓰인 모음들의 공통점을 썼으나, <조건> 두 가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2점

평가 요소 단모음의 체계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발음하기

- 6 (1) ‘이중미’와 ‘이정미’의 음운을 분석하면, ‘중’에 쓰인 모음 ‘고’와 ‘정’에 쓰인 모음 ‘기’만 차이가 난다.
 (2)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고’와 ‘기’는 후설 모음이고, 혀의 높이에 따라 분류하면 ‘고’와 ‘기’는 중모음이고, 입술 모양에 따라 분류하면 ‘고’는 원순 모음, ‘기’는 평순 모음이다.
 (3) ‘고’와 ‘기’는 원순 모음, 평순 모음이라는 차이만 있으므로 원순 모음 ‘고’가 쓰인 ‘중’을 발음할 때는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고, 평순 모음 ‘기’가 쓰인 ‘정’을

발음할 때는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는다.

채점 기준	배점
(1), (2), (3)을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12점
(1), (2), (3) 중 두 개만 적절하게 쓴 경우	8점
(1), (2), (3) 중 한 개만 적절하게 쓴 경우	4점

평가 요소 자음을 기준에 따라 분류하기

- 7 ‘즈, ㅈ, ㅊ’은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섹입천장소리이고, 코안이나 입안의 울림 여부에 따라 분류하면 안울림소리이고, 소리를 내는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파찰음이다.

채점 기준	배점
㉠, ㉡, ㉢을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9점
㉠, ㉡, ㉢ 중 두 개만 적절하게 쓴 경우	6점
㉠, ㉡, ㉢ 중 한 개만 적절하게 쓴 경우	3점

평가 요소 자음 체계 이해하기

- 8 ‘ㅂ, ㅃ, ㅍ’은 두 입술 사이에서 소리가 나는 입술소리이다. ‘ㄱ, ㅋ, ㅋ’은 혀 뒤와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소리가 나는 여린입천장소리이다. 잇몸소리 ‘ㄷ, ㅌ, ㅌ, ㅍ, ㅍ, ㅍ’ 중에 파열음은 ‘ㄷ, ㅌ, ㅌ’이다.

채점 기준	배점
㉠, ㉡, ㉢을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6점
㉠, ㉡, ㉢ 중 두 개만 적절하게 쓴 경우	4점
㉠, ㉡, ㉢ 중 한 개만 적절하게 쓴 경우	2점

평가 요소 자음 체계 이해하기

- 9 ‘냠냠’에 쓰인 자음 ‘ㄴ, ㄹ’을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며 소리를 내는 비음이다.

채점 기준	배점
‘냠냠’에 쓰인 자음을 정확히 찾고, 소리 내는 방법을 적절하게 쓴 경우	5점
‘냠냠’에 쓰인 자음을 찾았으나, 소리 내는 방법을 정확히 쓰지 못한 경우	2점

평가 요소 자음 체계 이해하기

- 10 ‘ㅂ, ㅃ, ㅍ’은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입술소리이고,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안울림소리이면서 파열음으로 모두 같은 종류의 소리가 된다.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 분류할 때이며, 이때 ‘ㅂ, ㅃ, ㅍ’은 각각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분류된다. 예사소리는 비교적 편안한 상태에서 발음하지만, 된소리는 성대를 긴장시켜 발음하고, 거

센소리는 숨을 거세게 터뜨리며 발음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조건>에 맞게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8점
두 질문에 대한 답 중 하나만 적절하게 쓴 경우	4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음운 체계에 따라 자음과 모음을 분류하기

- 11 자음 ‘ㅎ’은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목청소리, 코안이나 입안의 올림 여부에 따라 분류하면 안올림소리,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마찰음이다. 모음 ‘ㅣ’는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전설모음, 입술 모양에 따라 분류하면 평순 모음, 혀의 높이에 따라 분류하면 고모음이다.

채점 기준	배점
㉠, ㉡을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6점
각 항목의 분류가 하나씩 틀릴 경우 각각에 대하여	-1점

평가 요소 한글의 창제 정신 이해하기

- 12 『훈민정음』의 서문에서 우리나라 말이 중국 말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말을 표기하는 우리 글자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부분은 자주정신을 보여 준다. 또한 백성을 안타깝게 여겨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들었다는 데서 애민 정신을, 쉽게 익혀 쓰기 편한 글자를 만들고자 한다는 데서 실용 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 ㉡, ㉢을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8점
㉠은 적절하게 썼으나, ㉡, ㉢ 중 한 개만 적절하게 쓴 경우	6점
㉠만 적절하게 쓴 경우 또는 ㉡, ㉢만 적절하게 쓴 경우	4점

평가 요소 한글의 창제 원리 이해하기

- 13 자음 기본자와 모음 기본자는 모두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지만, 자음 기본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모음 기본자는 하늘의 둥근 모양, 땅의 평평한 모양,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데 차이가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자음 기본자와 모음 기본자의 상형의 원리의 차이점을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6점
자음 기본자와 모음 기본자의 상형의 원리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쓴 경우	3점

평가 요소 한글의 창제 원리 이해하기

- 14 ㉠과 ㉡의 예를 보면, 창제 자음자 17자 이외의 글자

와 창제 모음자 11자 이외의 글자 모두 이미 창제된 글자를 사용하여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의 경우는 자음자를 옆으로 나란히 써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고, ㉡의 경우는 모음자를 서로 합하여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다.

채점 기준	배점
㉠과 ㉡의 내용을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8점
㉠과 ㉡의 내용 중 하나만 적절하게 쓴 경우	4점

평가 요소 한글 자음자의 창제 원리 이해하기

- 15 제시된 자료는 자음 기본자 ‘ㄱ, ㄴ, ㄷ, ㅅ, ㅇ’로부터 가획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 준다. 기본자 ‘ㄴ’에 획을 더해 ‘ㄷ’을 만들었고, 기본자 ‘ㄷ’에 획을 더해 ‘ㅂ’을 만들고 여기에 다시 획을 더해 ‘ㅍ’을 만들었고, 기본자 ‘ㅅ’에 획을 더해 ‘ㅈ’을 만들었다. 획을 더할수록 소리가 더 세지는 특성이 가획의 원리에 반영되어 있다.

채점 기준	배점
㉠, ㉡, ㉢을 모두 정확하게 쓰고, 공통된 창제 원리를 적절하게 쓴 경우	8점
㉠, ㉡, ㉢만 모두 정확하게 쓴 경우 또는 공통된 창제 원리만 적절하게 쓴 경우	4점
㉠, ㉡, ㉢은 모두 정확하게 썼으나 <조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경우	3점

평가 요소 한글 모음자의 창제 원리 이해하기

- 16 제시된 자료를 보면 초출자의 경우 기본자 ‘ㄴ’에 ‘ㆍ’를 한 번 합하여 ‘ㄴㆍ, ㅈㆍ’를, 기본자 ‘ㅣ’에 ‘ㆍ’를 한 번 합하여 ‘ㅏ, ㅑ’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재출자는 그 초출자 ‘ㄴㆍ, ㅈㆍ, ㅏ, ㅑ’에 ‘ㆍ’를 한 번 더 합하여 만드는 합성의 원리로 창제되었다.

채점 기준	배점
초출자와 재출자의 창제 원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9점
초출자와 재출자의 창제 원리의 공통점과 차이점 중 하나만 적절하게 쓴 경우	4점

평가 요소 글자와 소리의 관련성 이해하기

- 17 ‘ㅈ, ㅉ, ㅊ’은 소리의 세기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각각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에 해당한다. 된소리의 경우 같은 글자를 두 번 중복하여 강하고 단단한 느낌을 주는 특성을 글자 모양에 반영하였고, 거센소리의 경우 예사소리 글자에 획을 더하는 방식으로 거칠고 센 느낌을 주는 특성을 글자 모양에 반영하였다.

채점 기준	배점
㉠, ㉡, ㉢을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6점
㉠, ㉡, ㉢ 중 두 개만 적절하게 쓴 경우	4점
㉠, ㉡, ㉢ 중 한 개만 적절하게 쓴 경우	2점

평가 요소 글자와 소리의 관련성 이해하기

- 18 'ㄱ, ㅋ'와 'ㄴ, ㄷ, ㅌ'은 각각 여린입천장소리와 잇몸 소리로 소리 나는 위치가 같고 글자 모양이 서로 비슷하다.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분류할 때 말소리의 공통적인 특성을 글자 모양에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자음의 종류를 정확하게 쓰고, 글자와 말소리의 관련성을 적절하게 설명한 경우	8점
자음의 종류만 정확하게 쓴 경우 또는 글자와 말소리의 관련성만 적절하게 설명한 경우	4점

평가 요소 한글의 가치 이해하기

- 19 제시된 자료에서 한글 'ㅏ'는 [아] 하나로만 소리가 나는 반면, 알파벳 'a'는 [에], [에이], [어]로 다양하게 소리가 난다. 따라서 글자와 소리가 일대일로 대응하는 한글이 알파벳에 비해 음성 인식 기능 활용 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1), (2)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10점
(1), (2) 중 하나만 적절하게 쓴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4

비판적인 읽기, 돌아보며 글 쓰기

1 복합양식 자료나 글 평가하며 읽기

소단원 핵심 미리 보기 본문 156~157쪽

핵심 확인 문제 | 1 복합양식 2 ④ 3 (1) × (2)
 ○ (3) ○ 4 ㄴ, ㄷ 5 ⑤

- 복합양식 자료나 글은 두 가지 이상의 표현 양식(문자, 소리, 그림, 사진, 동영상 등)이 합쳐져 어우러진 하나의 글이나 자료를 뜻한다.
- 복합양식 자료나 글은 다양한 양식의 자료를 사용하여 글에서 전하고자 하는 하나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 복합양식 자료나 글을 읽을 때는 내용이 타당하고 믿을 만한지, 사용된 표현이 내용을 전달하기에 적절한지 등을 평가하며 읽는 것이 필요하다.
- ㄱ은 내용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기준이고, ㄴ은 표현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준에 해당한다.
- 도표나 그래프는 설문 조사, 통계 등의 결과를 시각화하여 전달하므로, 응답 간 차이, 응답 분포 비율 등을 시각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소단원 핵심 확인하기 본문 158~159쪽

핵심 체크 | 1 × 2 × 3 ○
핵심 내용 확인 문제 | 1 ② 2 ⑤ 3 ③ 4 못
 난이 농산물

- 이 글은 복합양식으로 구성된 인터넷 신문 기사로, 다양한 양식의 매체를 활용하여 독자들에게 못난이 농산물 소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보고서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③ 논문, 연구 보고서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④ 건의문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⑤ 광고에 대한 설명이다.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산물 표준 규격을 활용하는 이유와 등급 기준은 나타나지만, 해당 기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인용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농림축산식품부가 활용하는 농산물 표준 규격에 대한 설명을 가시오이의 예를 들어 하고 있다.
- ② 제목과 함께 못난이 농산물의 사진을 제시하고, 가시오이 판정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농산물 표준 규격 등급 도감의 사진 등을 활용하였다.
- ③ '못난이라 무시당하던 과일이나 채소가'라는 구절을 통해 못난이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외면받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 ④ 제목의 '이게 더 좋아'에 단정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 3 '반란'이라는 표현은 생김새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외면받던 못난이 농산물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시작한 상황을 비유한 것이다.
- 4 [서술형] 독자는 ㉠에 제시된 못난이 오이 사진의 예를 통해 못난이 농산물의 생김새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어떤 상품들이 못난이 농산물로 구분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소단원 핵심 확인하기

본문 160~161쪽

| 핵심 체크 | 1 ○ 2 ○ 3 ×

| 핵심 내용 확인 문제 02 | 1 ② 2 ⑤ 3 ③ 4 농사 소득이 줄어들고 폐기 비용이 발생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폐기하는 과정에서 환경이 오염된다.

- 1 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연합환경계획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인용하여 내용의 신뢰도를 높였다. 나. 2020년 우리나라 생활 폐기물의 양, 그중 음식물이 차지하는 비율과 양,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식량이 폐기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차지하는 비율 등의 통계 자료가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되었다.

오답 해설

- 나. '버려지는 농산물의 현주소'에 우리나라 생활계 폐기물의 양, 이 중 음식물이 차지하는 비율과 양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식량이 폐기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비율에 대한 정보는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폐기되는 농산물 처분에 사용되는 비용에 대한 정보는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 라. 식자재 재활용이 식품 시장과 비식품 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가 나타나 있을 뿐, 두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정보는 나타나 있지 않다.

- 2 ㉠은 농산물이 폐기되는 현장의 모습을 담은 사진으로 대상의 모습과 상황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폐기되는 농산물의 양이 많음을 독자들에게 시각적으로 전달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 3 식자재 재활용 시장이 화장품 업계와 같은 비식품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만, 식품 시장보다 화장품 업계에서 못난이 농산물을 더 많이 재활용한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식자재 재활용 시장'의 두 번째 문단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식자재 재활용 시장'의 첫 문장에서 식자재 재활용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 ④ '식자재 재활용 시장'의 '캠페인 광고는 ~ 가치를 이야기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⑤ 식자재 재활용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는 '식자재 재활용 시장'의 두 번째 문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4 [서술형] '버려지는 농산물의 현주소'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농산물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식품 폐기물이 환경이 미치는 악영향의 구체적인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소단원 핵심 확인하기

본문 162~163쪽

| 핵심 체크 | 1 × 2 ×

| 핵심 내용 확인 문제 03 | 1 ③ 2 ①, ② 3 ④ 4 지구와 경제를 살리는 영웅

- 1 이 글은 마지막 문단에서 못난이 농산물이 환경과 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버려지는 농산물로 인한 문제점, 식자재 재활용의 사례 소개와 함께 못난이 농산물의 소비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의도를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 2 ㉠은 못난이 감자가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는 뉴스 동영상이다. 이를 통해 독자는 식품 업계가 아닌 화장품 업계에서도 식자재 재활용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동영상을 통해 생생하고 현장감 있게 확인할 수 있다.

- 3 [항목별 만족도]를 보면 항목별 만족도의 차이를 막대 그래프의 길이를 통해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가격에 대한 만족도는 3.6점 이상(3.64점)이고 신선도에 관한 만족도는 3.6점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해당 자료의 출처는 '한국소비자원'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다.
- ② 첫 번째 그래프인 [못난이 농산물 재구사 의사]를 살펴보면 재구사 의사가 '있다'는 대답이 차지하는 비중은 95.5%이다.
- ③ 두 번째 그래프인 [전반적 만족도]를 통해 5점 만점에 3.71점으로 대체로 구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세 번째 그래프를 보면 못난이 농산물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첫 번째 제시된 항목인 '맛, 식감'으로 막대 그래프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4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고, 기후 위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소비는 모두를 구하는 역할을 하므로 글쓰이는 못난이 농산물을 '영웅'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교과서 활동 점검하기

본문 164~169쪽

| 시험에 꼭 나오는 활동 확인 문제 | 1 ③ 2 버려지는 농산물로 인한 문제점과 못난이 농산물의 이점을 알리고자 한다. 못난이 농산물의 소비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3 ㄱ, ㄴ 4 ①, ④ 5 ⑤ 6 ㉠ 7 ① 8 ① 9 ①-ㄴ, ②-㉠ 10 ③ 11 내용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쓰기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12 ④ 13 ③ 14 ④ 15 ⑤ 16 ③ 17 ⑤

- 1 식자재 재활용에 대한 반응은 우리나라에서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못난이 농산물이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② '버려지는 농산물의 현주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식자재 재활용 시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⑤ '못난이 농산물 소비의 이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 [서술형] 이 글은 신문 기사로 못난이 농산물 소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이러한 정보 전달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소비가 확산되길 바라는 의도가 함께 반영되어 있다.

- 3 ㄷ: 못난이 농산물은 모양만 투박할 뿐 맛과 신선도에는 이상이 없는 농산물이므로 ㄷ과 같은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 4 내용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글에 제시된 정보가 객관적인지, 출처가 믿을 만한지 살펴봐야 한다. 이 기사는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된 통계 자료와 공공기관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사용하여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5 글로만 읽었을 때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가시오이의 구부러진 정도를 사진을 통해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ㄱ. 해당 사진은 글과 일치하는 내용을 사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 ㄴ. 해당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시오이의 '특' 등급과 '상' 등급의 차이이다.

- 6 ㉠은 신문의 표제에 해당한다. 신문의 표제는 기사 전체 내용을 대표하면서 독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 7 기사의 내용과 관련된 시각 자료는 독자의 시선을 끌어서 기사에 대한 관심을 유발한다.

오답 해설

- ② 못난이 농산물의 의미를 사진을 통해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해당 자료는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독자의 이해와 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 ④ 못난이 농산물로 인한 문제는 이들이 소비되지 않고 다수가 폐기된다는 사실인데, 해당 사진은 못난이 농산물을 폐기하는 상황을 담고 있지 않다.
- ⑤ 못난이 농산물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을 뿐, 소비자들의 왜곡된 인식을 보여 주고자 하는 의도는 드러나 있지 않다.

- 8 뉴스 영상은 글에서 소개한 못난이 농산물이 비식품 분야에 활용된 사례를 보여 주고 있을 뿐, 기사 전체의 내용 담고 있지는 않다.

- 9 글에 제시된 정보의 객관성 여부는 내용의 신뢰성 평가 기준에, 글에 사용된 표현 방법은 표현의 적절성 평가 기준에 해당한다.

- 10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좋아하는 가사든 싫어하는 가사든 음악을 듣는 것은 공부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음악이 공부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 ② 가사의 유무, 가사에 대한 선호도가 정당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좋아하는 가사가 있는 음악과 싫어하는 가사가 있는 음악을 들었을 때의 정답률의 차이는 1%로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 ⑤ 음악이 없는 경우가 정답률이 가장 높았다.

- 11 [서술형] 글을 쓸 때 참고하거나 인용한 자료는 쓰기 윤리에 따라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어야 한다. 출처를 명확히 밝히면 글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 12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사가 있는 음악보다 가사가 없는 음악을 들었을 때 성적이 더 높게 나타났다.

- 13 매체 자료를 다양하게 많이 사용한다고 좋은 자료나 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글의 주제와 내용을 전달하기에 효과적이고 적절한 것을 골라 사용해야 한다.

- 14 해당 그림은 네 가지 실험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실험 설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오답 해설

- ㄱ. 구체적인 수치 정보는 그림에 드러나 있지 않다.
- ㄷ. 각 실험 상황은 그림과 간단한 설명을 통해 제시하였고, 각 상

황을 구분하기 위해 칸마다 색상을 달리했다. 다만, 특정 상황을 구분하거나 강조하기 위해 글자 크기를 의도적으로 달리하지는 않았다.

15 ⑤는 꺾은선그래프의 특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추이가 주된 목적이다.

16 재민이는 한 가지 실험만으로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렵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③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 글의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실험 결과를 객관적인 수치 자료로 제시하면 내용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 ② 저자의 공신력, 전문성을 활용하여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는 전략이다.
- ④ 개인적인 경험은 주관성을 갖지만, 독자의 경험과 결부지어 공감을 얻으면 독자에게 믿음을 주어 설득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 ⑤ 권위 있는 사람의 의견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단, 권위 있는 사람이 해당 주장, 주제, 화제와 관련성이 있어야 믿을 만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17 제시된 문장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간결하게 글을 마무리하고자 했지만, 글에서 소개한 실험 결과를 과장하고 왜곡하여 표현하고 있다.

소단원 예상 문제

본문 170~173쪽

- 1 ② 2 ② 3 ③, ④ 4 '식품 외모 지상주의'를 깨뜨린 못난이 농산물의 활용 현황 5 ① 6 ⑤ 7 ③
 8 ① 9 ③ 10 ③ 11 못난이 농산물을 소비하면 농업인은 추가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고, 소비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농산물을 줄일 수 있어 기후 위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12 ⑤ 13 ④

1 못난이 농산물은 외관상 흠이 있거나 모양이 투박할 뿐, 맛과 신선도에 이상이 없다.

2 <보기>는 글에 설명한 내용을 사진을 통해 보여 주어, 가시오이의 구부러진 정도의 차이, 못난이 농산물의 개념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준다.

오답 해설

- ①, ④ 가시오이 등급 판정 방법에 관한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사진을 시각화하여 제시하였다.
- ③ 사진 자료를 사용한 것은 독자의 이해를 도우려는 의도에 의한 것이지만 이를 통해 글의 분량을 늘리려 한 것은 아니다.
- ⑤ 글에 상품성을 인정받지 못한 농산물의 종류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으며, 제시된 사진도 못난이 오이의 다양한 생김새를 보여 줄 뿐 종류는 하나이다.

3 ①은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못난이 농산물'의 생김새를 시각적으로 제시하여 독자가 '못난이 농산물'을 이해하는 것을 돕고, 시각 자료를 통해 글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한다.

오답 해설

- ① 못난이 농산물의 생김새를 보여 주는 사진으로, 글에 없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 ②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못난이 농산물의 개념을 독자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제시한 사진으로 글의 내용과 관련성이 매우 높다.
- ⑤ 해당 사진은 생김새로 인해 못난이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외면 받는 상황을 독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4 [서술형] '도전장'은 외모가 중시되던 식품 시장에서 못난이 농산물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비유적 표현에 해당한다.

5 우리나라 농산물은 등급 외 판정을 받으면 대부분 가공용으로 헐값에 팔리거나 생산지에서 폐기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6 (가)와 (나)는 모두 믿을 만한 출처의 설문,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국내외 사례를 각각 보여 주고 있을 뿐, 이들이 차이를 대조하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 ② 전문가의 의견은 (가), (나) 모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③ 새로운 용어에 대한 설명은 (가), (나) 모두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다)에 '식자재 재활용'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 ④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인용하고는 있으나, 이는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지 독자에게 재미를 주기 위한 의도로 활용한 것은 아니다.

7 (마)는 못난이 농산물을 소비할 때의 좋은 점을 설명하고 있다. 못난이 농산물을 소비할 때 생기는 문제점에 관한 내용은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ㄴ. 못난이 농산물 소비의 장점을 강조하고 있는 글이다.

8 <보기>는 (마)에서 글로 설명한 못난이 농산물 구매 경험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도표로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수치 정보를 도형의 크기와 색깔을 통해 표현하여, 응답별 차이와 비율을 한눈에 파악하기 쉽다.

오답 해설

- ② 도표에 응답자에 관한 정보(나이, 성별, 사는 지역 등)는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못난이 농산물 소비 후 만족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래프로 종류별 선호도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 ④ 도표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글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글에 설명되지 않은 추가 정보를 보여 주어 농산물 재활용 방안에 관한 새로운 관

점을 제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다.

⑤ 도표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을 보여 주는 정보는 나타나 있지 않다.

9 ㉠은 (가), (나)를 대표하는 제목으로, 해당 문단들은 버려지는 농산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환경 오염을 다루고 있다. ㉡은 (다), (라)를 대표하는 제목으로, 해당 문단들은 식자재 재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10 '일석이조(一石二鳥)'는 돌 한 개를 던져 새 두 마리를 잡는다는 뜻으로, 동시에 두 가지 이득을 봄을 이르는 말이다. 못난이 농산물을 소비하면 경제, 환경 두 가지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아홉 번 죽을 뻔하다 한 번 살아난다는 뜻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겨우 살아남음을 이르는 말.
- ②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음.
- ④ 앉아도 자리가 편안하지 않다는 뜻으로, 마음이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워서 한군데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못하는 모양을 이르는 말.
- ⑤ 거침없이 넓고 큰 기개.

11 [서술형] 못난이 농산물 소비의 장점에 관한 설명은 (마)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12 <연구 결과>의 도표는 연구 결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네 가지 학습 환경별 정답률의 차이를 막대 길이를 통해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한다. 학습 환경에 대한 선호도는 도표에 나타나지 않는다.

13 이 글은 음악이 학습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하였다. 이를 밝히기 위해 실험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음악이 없는 조용한 환경이 학습에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2 복합양식 자료 활용하여

점검·조정하며 글 쓰기



소단원 핵심 미리 보기

본문 174~175쪽

| 핵심 확인 문제 | 1 효과 2 ㉠ - ㉡, ㉢ - ㉣, ㉤ - ㉥
3 ㉢ 4 모든 5 ㉤ 6 (1) ○ (2) × (3) ○

- 1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작성하면, 단일양식을 활용하는 것보다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 2 설명하는 글은 일반적으로 글은 '처음-중간-끝'의 3단 구성으로 쓰되, 쓰기 목적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진다.
- 3 쓰기의 점검·조정은 고쳐쓰기 단계뿐만 아니라 쓰기의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4 '독자'는 글쓰기의 모든 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독자를 고려하여 글을 고쳐 쓰면 글의 목적과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다.
- 5 활용할 자료는 글의 주제, 목적, 유형, 독자 등을 고려하여 적절성을 판단하되 복합양식 자료나 글이라고 해서 한 가지 종류의 매체만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러 매체를 다양하게 사용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6 지도, 사진, 동영상 등을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하여 활용하면 독자의 이해를 돕고 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교과서 활동 점검하기

본문 176~184쪽

| 시험에 꼭 나오는 활동 확인 문제 | 1 ㉤ 2 ㉤ 3 주제, 정보, 학생회 누리집, 예상 독자 4 ㉣ 5 ㉢ 6 ㉢
7 점검·조정 8 ㉤ 9 ㉣ 10 ㉢ 11 정보
12 ㉠ 13 ㉤ 14 ㉤ 15 ㉡, ㉣ 16 ㉠
17 ㉣ 18 ㉤ 19 글의 목적이 예상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략이 글에 적절하게 활용되었는지 점검하기 위해 20 ㉤
21 ㉢ 22 ㉡ 23 ㉣

- 1 윤주는 친구들에게 체험 학습에 관해 바라는 것들을 직접 물은 후, 이를 토대로 체험 학습 장소를 선정하며 추천하는 글을 쓰고자 한다.

오답 해설

- ① 윤주는 글에 친구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쓰기 전 친구들과 먼저 이야기를 나누었다.
- ② 친구들의 기대, 요구를 분석하여, 체험 학습 장소를 추천하는 글을 쓰고자 한다.
- ③ 학생회 게시판에 올라온 '학급 현장 체험 학습 장소 추천'에 관한 공지 사항이 글을 쓰게 된 계기이다.
- ④ 공지 사항에 '학생회 누리집'에 글을 올려달라고 했으므로, 온라인 매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글을 작성할 것이다.

2 학급 현장 체험 학습에 관한 글을 쓸 때에는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예상 독자의 전화 번호와 같은 정보는 필요하지 않다.

3 글을 쓰기 전 글의 주제, 목적, 예상 독자 등을 고려하여 글쓰기 계획을 세우면 효과적으로 글을 쓸 수 있다.

4 <보기>는 예상 독자의 체험 학습에 관한 교육적 요구를 분석한 것으로, 체험 학습 일정에 학습 요소를 배치하고 이의 교육적 의미를 설명해 준다면 독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이동 거리에 관한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 계획이다.
- ② 재미와 즐거움에 대한 요구 사항은 제시되지 않았다.
- ③ 편의 시설에 관한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 계획이다.
- ⑤ 독자의 기대와 요구를 분석했으나, 글을 쓰는 목적과 주제에서 벗어난 글쓰기 계획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체험 학습 추천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5 문자와 그림이나 사진이 결합된 자료는 서로의 의미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며, 글만 읽을 때보다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다.

6 (다)의 누리집은 갯벌 체험 장소인 하전 마을을 소개하고 있으며, 하전 마을이 갖추고 있는 편의 시설, 구급약품, 장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진을 통해 갯벌 체험의 즐거움을 전달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다)의 '넓은 주차장과 각종 편의 시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② (다)의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다)의 '체험장 주위는 ~ 다양한 장비도 갖추고 있습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⑤ (다)의 '하전 마을은 ~ 지정되었습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 글쓰기의 점검·조정: 글이 완성될 때까지 모든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좋은 글을 완성할 수 있다.

8 (바)에서 학교에서 갯벌 센터까지의 이동 경로와 소요 시간을 글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지도를 활용하여 제시하면 독자가 이를 시각을 통해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9 동영상은 영상과 소리를 통해 정보를 현장감 있고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답 해설

- ① 글을 쓸 때는 독자의 수준, 사전 지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하전 어촌 마을은 갯벌 체험을 할 수 있는 갯벌 체험장이 있는 장소이므로 관련 있는 자료이다.
- ③ 체험 학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독자의 기대, 요구와 관련 있는 내용이므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 ⑤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지도에 이동 경로와 소요 시간을 표시한 것이 독자의 직관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다.

10 오래된 정보는 시간이 흐른 현재 상황과 다를 수 있으므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정보를 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답 해설

- ① 갯벌 버스에 대한 내용으로, 주제와 관련이 있다.
- ② 뉴스에 실린 기사문이다.
- ④, ⑤ 독자가 흥미 있어할 만한 내용이거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도, 오래된 자료의 내용은 현재 상황과 다를 수 있으므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11 글을 조직할 때는 글을 쓰는 목적에 따른 글의 유형을 고려해야 한다.

12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게 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좋은 전략이지만, 윤주는 친구들의 관심을 더 유발하기 위해 이전 체험 장소의 아쉬운 점을 언급하고 현장 체험 학습에 관한 문제의식과 그에 관한 해결책을 처음에 제시하는 것으로 내용 구조를 조정하였다.

오답 해설

- ② 처음 부분을 점검·조정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갯벌 버스의 즐거움'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였다.
- ④ 유관한 내용끼리 묶어서 제시하기 위해 '저렴한 비용'에 관한 내용을 장점 1 항목으로 이동하였다.

13 체험 장소의 장점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단점에 대한 정보는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14 고창 갯벌 센터는 갯벌 체험을 더 의미 있게 하기 위해 갯벌 체험을 하기 전에 방문한다.

오답 해설

- ① 저렴한 비용을 소개한 후 잡은 조개 중 1kg을 집에 가져갈 수 있다는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 ② 학교에서 고창 체험 센터까지 이동 시간은 1시간 17분 정도가 소요되므로 이동 거리가 짧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 ③ 고창 갯벌 센터는 갯벌 생물에 관한 해설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④ 갯벌 장화, 갈퀴, 바구니 및 샤워 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고창 갯벌 체험장이 아닌 하전 마을이다.

15 글을 고쳐 쓸 때는 삭제, 교체, 추가, 재구성의 방법을 사용한다. 여기에서는 삭제와 재구성의 방법은 사용하지

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고창 갯벌 센터에서 하전 마을 갯벌 체험장까지 이동 경로를 보여 주는 지도를 추가하였다.
- ③ 배움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기 위해 '한바탕 조개 잡기'에서 '배움과 추억 잡기'로 수정하였다.
- ⑤ '체험거리 ①'과 '체험거리 ②'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비슷한 내용이 이어질 때 사용하는 접속사 '그리고'를 추가하였다.

16 이동 시간과 거리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도를 하나 더 추가하였다.

17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쓴 글은 순수 창작물이 아닌 인터넷상의 정보를 조합한 결과물이므로, 사용된 정보의 출처가 어디인지, 기존 창작물을 그대로 옮겨온 부분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8 비유 등의 표현 방법을 사용할 때는 내용 전달에 효과적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표현 방법을 무조건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19 [서술형] 내용, 조직, 표현의 차원에서 독자를 고려하여 글을 고쳐 쓰면 글의 목적에 따른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20 쓰기 과정은 회귀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점검과 조정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다.

21 이 카드 뉴스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첫 번째 실천 방안이 배달 대신 개인 용기에 포장하기이다.

오답 해설

- ① 2019년에 비해 2021년의 플라스틱 폐기물 양은 증가하였다.
- ② 두 번째 카드에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제시되어 있다.
- ④ 카드 뉴스에서 장바구니를 챙길 것을 권장하는 이유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 ⑤ 여섯 번째 카드에서 인식 확산을 위해 해당 캠페인을 SNS에 게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22 통계를 활용하기는 했지만, 이를 시각화한 도표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세 번째 카드에 '용기'의 중의적 의미가 드러나 있다.
- ③ 첫 번째 카드와 두 번째 카드에 플라스틱 폐기물의 사진이 제시되어 있다.
- ④ 첫 번째 카드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네 번째 카드부터 여섯 번째 카드에 구체적인 실천 방안 세 가지를 그림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23 쓰기는 글쓴이가 독자에게 생각을 전달하는 행위이므로

로 고쳐쓰기를 할 때는 글쓴이가 아닌 독자를 고려해야 한다.

소단원 예상 문제

본문 185~188쪽

- 1 ① 2 ⑤ 3 ③ 4 ③ 5 ② 6 ④ 7 참고 자료를 통해 자료의 정확한 출처를 밝히면 글 내용에 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원작자의 저작권을 존중하고 표절을 방지하여 올바른 쓰기 윤리를 실천할 수 있다. 8 ②, ③ 9 ④ 10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개인용 '그릇이나 장바구니'라는 의미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한 씩씩하고 굳센 마음'을 뜻한다.

1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체험 학습 장소를 추천해 달라는 독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글쓰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오답 해설

- ② 독자가 '멀지 않은 곳'을 요구하므로 버스나 기차 등을 이용하더라도 너무 먼 곳을 추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독자가 요구한 편의 시설을 갖추되, 학생들이 가는 체험 학습 임을 감안하여 비용이 적정한지도 함께 따져 보아야 한다.
- ④ 갯벌 체험 여부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 ⑤ 정보를 왜곡하거나 불리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은 쓰기 윤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독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2 ㉞은 갯벌 체험의 즐거움을 생생하고 현장감 있게 전달해 주는 동영상으로, 독자가 주제에 관한 관심과 기대를 갖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3 ㉞은 길찾기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도상에 학교에서 갯벌 센터까지의 이동 경로를 시각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출발 위치와 도착 위치뿐만 아니라 이동 시 사용하는 경로, 소요되는 시간까지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료이다.

오답 해설

- ㄱ. 고창 갯벌 센터의 위치만 나와 있을 뿐 갯벌 체험 장소인 하전 마을의 위치는 지도에서 확인할 수 없다.
- ㄴ. 이동 소요 시간은 알 수 있지만, 학교에서 갯벌 센터로 출발하는 시간과 갯벌 센터에서 학교로 돌아오는 시간에 대한 정보는 지도에 나타나 있지 않다.

4 개요를 점검·조정할 때는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파악하여 내용을 삭제, 교체, 추가, 재구성한다. '비용'에 대한 내용은 '짧은 이동 거리'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내용의 흐름상 자연스러우므로 제시 순서를 앞으로 옮기기로 (가)에서 조정하였으며, (나)의 2번째~4번째 문단에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에서 체험거리는 시간 순서대로 장소 이동에 따라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갯벌 버스의 즐거움'은 (가)에서 개요를 점검하고 추가하기로

한 내용이다.

- ④ 처음 부분에서는 이전 체험 학습에 대한 아쉬움과 필자가 제시하는 체험 학습의 장점을 대조하여 독자가 기대를 갖도록 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 ⑤ 필자가 추천하는 체험학습 장소의 장점을 위주로 글이 서술되어 있으며, 단점은 글에서 찾아 볼 수 없다.

5 잡은 조개를 집에 가져가서 조개탕이나 칼국수를 끓여 먹을 수 있다고 했지, 체험 장소에서 조개탕이나 칼국수를 끓여 준다는 내용은 소개되지 않았다.

6 <보기>는 갯벌 체험 시 걱정되는 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다. (나)~(라)까지 갯벌 체험의 장점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라) 다음 부분에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나)는 이 글의 시작 부분이므로, (나)의 앞에 <보기>가 추가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나)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에 이어질 내용으로 배움과 재미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가 소개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으므로, 체험 학습의 안전성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체험거리를 소개하는 중간에 체험 학습의 안전성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내용의 흐름상 자연스럽지 않다.
- ⑤ (마)는 글을 마무리하는 부분이므로 이 뒤에 <보기>가 추가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7 [서술형] 글을 쓸 때는 타인의 아이디어나 글은 절대 표절하지 않고 정확히 인용해야 하며, 인용 시에는 정확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글은 사실에 근거하여 왜곡·과장 없이 진실하게 작성해야 한다.

8 이 카드 뉴스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그림의 형태로 소개하고 있다. '용기 내기'라는 중의적 표현을 통해 독자들이 환경 보호에 참여할 것을 독려한다.

오답 해설

- ①, ⑤ 배달 음식으로 인한 환경 문제(플라스틱 폐기물 양의 증가)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 ④ 이 카드 뉴스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방안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작되었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만든 상업 광고는 아니다.

9 ㉔의 그림은 '용기내 캠페인'의 세 가지 실천 방법을 그림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이는 순서대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행동들을 나열한 것이다.

10 [서술형] 이 카드 뉴스는 '용기'의 중의적 의미를 사용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중간 기말 시험 대비 문제

본문 189~194쪽

- 1 ④ 2 ② 3 식자재 재활용 4 ④ 5 ②
 6 ①, ⑤ 7 못난이 농산물을 소비하면 농업인은 추가 소득을 얻고 소비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 경제적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줄여 기후 위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8 ④ 9 ② 10 ④ 11 ⑤
 12 ⑤ 13 ④, ⑤ 14 갯벌 버스를 담은 사진(또는 그림, 동영상), 독자에게 '이런 모양'에 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15 ⑤ 16 ④

1 (나)의 중간 부분에 등급 외 판정 농산물로 인해 농가 소득이 줄어들고 폐기 비용이 발생하여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며,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오답 해설

- ① 4cm 이상 구부러지면 보통 등급으로 분류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산물 표준 규격을 활용한다는 정보가 나와 있을 뿐, 이에 미달한다고 폐기를 권장했다는 정보는 글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
- ③ 2020년 우리나라 농산물의 생산량 중 등급 외 농산물의 발생 비율은 평균 11.8%로 10%를 넘어간다.
- ⑤ 2020년 우리나라의 생활계 폐기물의 22.9%를 차지하는 것은 음식물로, 이 중 상당량이 버려지는 농산물이 차지하고 있다.

2 등급 외 농산물 폐기 발생 비율이나 생활계 폐기물 중 음식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수치를 활용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폐기에 드는 비용과 관련된 수치 자료는 활용되지 않았다.

3 신문 기사의 부제를 통해 버려지던 못난이 농산물을 재탄생시키는 방법이 식자재 재활용임을 짐작할 수 있다.

4 독자들에게 못난이 농산물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독자들이 못난이 농산물 소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바라는 의도가 드러날 뿐, 소비자들의 태도를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는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못난이 농산물을 '지구와 경제를 살리는 영웅'으로 표현한 것을 통해 긍정적인 관점을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⑤ 못난이 농산물 소비의 장점을 소개한 것으로 보아, 소비가 증가되기를 바라는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 ③ (가), (나)에서 식자재 재활용의 국내외 성공 사례를 소개한 것을 통해 긍정적 관점이 드러나고 있다.

5 (가)와 (나)는 모두 식자재 재활용 시장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가)에서는 식자재 재활용의 개념과 해외 사례를, (나)에서는 국내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6 ㉠은 동영상으로, 내용을 생생하고 현장감 있게 전달한다. ㉡은 도표로, 수치를 시각화하여 한눈에 정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오답 해설

- ② ㉡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므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담고 있다.
- ③ ㉡은 설문 조사 결과를 도표를 통해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은 많은 양의 자료를 풀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7 [서술형] ㉡은 못난이 농산물을 소비하는 것은 못난 소비가 아니라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훌륭한 소비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8 이 글은 '음악을 들으며 공부해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에 관한 답을 찾기 위해 '질문-연구 설계-연구 결과-결론'의 순서에 따라 믿을 만한 출처의 실험 연구를 인용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오답 해설

ㄷ. 개인의 경험은 주관적인 정보이므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으며, 해당 글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9 <보기>의 도표는 ㉠에서 설명한 네 가지 학습 환경별 정답률의 차이를 시각화하여 보여 주고 있다. 시간에 따른 정답률의 변화는 ㉠에 설명되지 않았으며, <보기>에도 드러나 있지 않다.

10 ㉡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갯벌 체험 시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시설에 대한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11 (나)는 체험 학습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글을 쓰기 위한 개요표이다. 따라서 글쓴이의 주장으로 글을 마무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2 예상 독자를 분석하여 이를 글에 반영하였으나, 현장 체험 장소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는 글에 드러나 있지 않다.

13 ④ 문장의 명확한 의미를 위해서는 '많다'의 주어인 '조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⑤ 체험거리를 소개하는 글 다음 부분에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글의 도입 부분에서는 글에서 다루는 내용이 무엇인지 안내해야 한다.
- ② 고창 갯벌 센터에서 하전 마을까지의 이동 경로와 시간도 지도로 제시하면 시각적으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③ 유사한 내용이 연결되고 있으므로 앞과 뒤의 내용을 병렬적으로 연결하는 접속사 '그리고'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4 [서술형] 글에 '이런 모양'에 대한 추가 설명이 없으므로 독자의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 또는 그림이

나 동영상 같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

15 [A]는 글을 쓸 때 참고한 자료의 목록을 정리한 부분으로, 자료를 인용한 경우에는 쓰기 윤리상 출처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16 나. 첫 번째 장에서 2021년 배달 음식 포장재 하루 평균 배출량과 2019년 대비 증가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르. 카드 뉴스에는 다양한 시각 자료가 활용되고,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어 글에 비해 독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쉽다.



서술·논술형 대비 문제

본문 195~198쪽

- 1 ㉠ 이해 ㉡ 관심 ㉢ 버려지는 농산물의 규모가 막대함을 전달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 2 (나)의 내용은 신뢰성이 높다. 왜냐하면 첫째, 농림축산식품부나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같이 믿을 만한 출처의 자료를 인용했기 때문이다. 둘째, 농산물 생산량 중 등급 외 발생 비율이나 우리나라 생활계 폐기물 중 음식물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객관적인 수치 자료를 통해 제시했기 때문이다.
- 3 ㉠: 글 내용이나 주장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적절한 것인지 판단한다. / 글의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일관성 있게 연결되어 있는지 판단한다. ㉡: 글에 제시된 정보가 객관적인지 판단한다. / 출처가 믿을 만한지 판단한다.
- 4 ㉠: ㉠은 못난이 농산물 소비 경험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도표로 제시한 것으로, 독자가 수치를 쉽게 비교하고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 ㉡은 네 가지 실험 상황을 그림으로 제시한 것으로, 독자가 그 차이를 직관적으로 비교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 5 <보기>는 (나)가 단 하나의 실험 결과만을 근거로 삼아 결론의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 역시 30명이라는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므로 그 결과를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보편적 사실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 내용은 결론을 뒷받침하기에 신뢰도가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 6 ㉠: ㉠ / 우리 학교에서 고창 갯벌 센터까지의 거리와 이동 경로, 소요 시간을 지도상에 표시하여 보여 주면 독자가 관련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기 쉽기 때문이다. ㉡: ㉡ / 갯벌 버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을 통해 시각적으로 보여 주면, 갯벌 버스를 타는 재미에 관한 독자의 관심과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 7 갯벌이라 발이 빠질까 봐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지요? 하전 마을 갯벌은 부드럽지만 비교적 단단해서 일반인도 멀리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해요. 혹시나 갯벌 체험을 하다 다치면 어쩌나 걱정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전 마을에는 응급 상황을 대비해 구급약품 세트 등도 갖추고 있다고 하니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가 요소 복합양식에 사용된 매체 자료의 활용 의도 및 그 효과

- 1 ㉠, ㉡은 시각 매체 중 사진으로, 정보를 사실적으로 제시하며 시각적으로 독자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사진은 담고 있는 내용에 따라 표현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글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로 활용되며, 글에 나와 있지 않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채점 기준	배점
㉠, ㉡, ㉢를 모두 적절히 작성한 경우	10점
㉠, ㉡, ㉢ 중 두 가지만 적절히 작성한 경우	7점
㉠, ㉡, ㉢ 중 한 가지만 적절히 작성한 경우	4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내용의 신뢰도 평가하기

- 2 내용의 신뢰도는 글에 제시된 정보가 객관적인지, 출처가 믿을 만한지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내용의 신뢰도 평가와 두 가지 근거를 모두 적절히 제시한 경우	10점
내용이 신뢰도 평가와 한 가지 근거만 적절히 제시한 경우	7점
내용의 신뢰도 평가만 적절히 제시한 경우	4점
형식 조건에 어긋나게 작성한 경우	-1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복합양식 글이나 자료의 평가 기준

- 3 복합양식 글이나 자료를 읽을 때는 내용의 타당성, 내용의 신뢰성,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생각하며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 ㉡를 모두 적절히 작성한 경우	10점
㉠, ㉡ 중 한 가지만 적절히 작성한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복합양식 자료의 표현 효과 파악하기

- 4 ㉠은 도표로, 객관적인 수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을 뿐 아니라 복잡한 내용을 시각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은 글로 설명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실험 설계의 상황을 시각적으로 쉽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 ㉡를 모두 적절히 작성한 경우	10점

㉠, ㉡ 중 한 가지만 적절히 작성한 경우	5점
형식 조건에 어긋나게 작성한 경우	-1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자료의 신뢰도 평가하기

- 5 내용의 신뢰도는 자료의 내용이 객관적인가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사건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거나 생각하는 것으로 과장, 왜곡하거나 편향되지 않게 판단하는 것을 요한다.

채점 기준	배점
<보기>에 나타난 평가 내용과 그 근거, ㉢의 내용의 신뢰도 평가를 모두 적절히 제시한 경우	10점
<보기>에 나타난 평가 내용과 그 근거만 제시한 경우, 또는 <보기>에 나타난 평가와 ㉢의 내용의 신뢰도 평가만 적절히 제시한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복합양식의 글 표현하기

- 6 복합양식의 글을 표현할 때는 글의 내용에 어울리는 매체 자료를 적절히 선정하여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 ㉡에 해당하는 각각의 기호와 선택한 이유를 모두 적절히 작성한 경우	10점
㉠, ㉡ 중 하나만 기호와 선택한 이유를 적절히 작성한 경우	5점
㉠, ㉡의 기호만 적절히 작성한 경우	3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글 고쳐쓰기

- 7 글을 고쳐 쓸 때 중요한 점검 요인 중 하나는 예상 독자를 분석한 내용이 잘 반영되었는가의 여부이다. 계획하기 단계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예상 독자의 요구나 기대가 글을 고쳐 쓰는 단계에서 떠올랐더라도, 언제든지 이를 수정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갯벌 체험의 위험성과 이의 해결책 두 가지를 모두 작성한 경우	10점
갯벌 체험의 위험성과 이의 해결책을 한 가지만 작성한 경우	7점
갯벌 체험의 위험성 두 가지만 작성한 경우	4점
형식 조건에 어긋나게 작성한 경우	-1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